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2022.12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2. 12.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목 차 】

제1장 사업개요	1
제1절 계획수립 방향	1
1. 과업의 배경	1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의 기대효과	3
제2절 계획수립 범위	4
1. 시간적 범위	4
2. 공간적 범위	5
3. 내용적 범위	6
제3절 계획수립 내용	7
1. 과업의 이해	7
2. 내용의 구성	8
3. 과업의 진행	9
4. 계획수립 방법	10
제2장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현황분석 및 진단	15
제1절 캠프마켓 현황 및 특징	15
1. 시대별 전개 과정 및 이슈 도출	15
2. 역사적 변천에 따른 공간 특성 파악	16
3. 시대 상황에 따른 연혁 구분	20
제2절 기록물 통합 목록화	22
1. 목적 및 방향성	22
2. 목록화 방법 및 대상	23
3. 목록 기술 요소 설정	26
제3절 파악된 기록물 및 목록 분석	28
1. 기록물 형태	28
2. 생산 시기	28
3. 소장처	29
4. 관련 주제	30
제3장 캠프마켓 아카이브 방향설정	35
제1절 추진방안	35
1. 계획수립 방향 도출	35
2. 계획수립 내용	35
제2절 개념정립	36
1. 캠프마켓 아카이브 개념	36
2. 캠프마켓 아카이브 의미	38
제3절 필요성 및 활용방안	39
1. 캠프마켓 아카이브 특성 도출	39
2. 캠프마켓 아카이브 필요성	40

제4절 아카이브 최신 경향 분석	41
1.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대두	41
2. 기록물의 기능 및 역할 전환	43
제5절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비전	43
1. 전제 사항	43
2. 비전: 함께 쓰는 역사, 같이 쓰는 미래	44
3. 3대 추진 목표	44
4. 5대 추진 전략	45
5. 미래상	46

제4장 캠프마켓 기록물의 수집·구술·생산 51

제1절 공공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51
1. 개요 및 목적	51
2. 수집범위	53
3. 수집기준 및 원칙	57
4. 수집 방법	60
5. 수집 실행 매뉴얼	62
제2절 역사적 사실 확인을 위한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67
1. 방향 설정	67
2.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방법	70
3. 해외 소장 기록물 목록화 및 표적화	76
4. 해외 소장 기록물 시범 수집	81
제3절 생활사 조사를 위한 구술 채록	85
1. 기초조사 및 방향 설정	85
2. 기존 구술 자료 현황 파악	87
3. 기존 구술자료 유형화 및 특성 분석	88
4. 종합 분석	93
5. 제안 사항	93
제4절 기록생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95
1. 건축물 조사분석을 통한 가치 발견	95
2. 참여형 기록문화 활동 전개	101
3.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인식 제고	104

제5장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계획 109

제1절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해	109
1. 개념정립	109
2. 잠재적 가능성 및 요구사항	109
제2절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및 역할	111
1. 효율적 기록물 관리	111
2. 기록물 장기 보존	112
3. 아카이브 시스템 요소	114
제3절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	116
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식	116
2.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118

제6장 캠프마켓 아카이브 거점 공간 구축 계획	123
제1절 방향 설정	123
1. 쟁점 사항	123
2. 사례 분석	124
제2절 기능 및 역할	127
1. 캠프마켓 아카이브 거점 공간의 이해	127
2. 복합문화공간(GLAM) 기능 및 역할	128
제3절 건립 규모 및 입지 선정	130
1. 적정규모 검토	130
2. 입지 선정	131
제4절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GLAM) 특성 부여	134
1. 주요 기능 및 역할	134
2. 도입시설	135
3. 세부 운영 프로그램	138
4. 아카이브 기반 콘텐츠 활성화 방법	139
제7장 운영계획 수립	145
제1절 운영조직 및 인력 배치 계획	145
1. 전담 조직 기본구상	145
2. 조직체계 및 인력계획	148
제2절 운영체계 구축	152
1. 전담 조직 운영 형태 검토	152
2. 전담 조직 운영 대안 분석	154
3. 운영 방식 결정	157
제3절 법제도 검토	160
1. 아카이브 관련 조례 제정 사례	160
2. 시사점 및 대안 분석	162
3. 캠프마켓 아카이브 실행을 위한 법령 검토	164
4. 캠프마켓 아카이브 내부 규정 마련	166
제8장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로드맵	171
제1절 단계별 추진계획	171
1. 연도별 로드맵 제안	171
2. 단위 사업 도출	173
제2절 단위 사업 종합	174
제3절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175
제4절 재원 조달방안	195
1. 국비 연계형 공모사업	195
2. 아카이브 관련 정책 연계 사업	196

참고문헌	197
------------	-----

부록	199
----------	-----

- 부록 1.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통합목록
- 부록 2.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자 진행 기존 구술자료 분석
- 부록 3. 캠프마켓 관련 활동조직 및 기관단체 목록
- 부록 4. 시대변화에 따른 주요사건 및 이슈발생 목록
- 부록 5. 국내 소장 해외기록물 현황파악 및 해제
- 부록 6. 미국 소장 미수집 기록물 해제(RG338/RG554)
- 부록 7. 일본 소장 미수집 기록물 현황 파악
- 부록 8. 기타(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자료)
- 부록 9. 수집 매뉴얼 서식

* 표지 배경은 1964년 애스컴시티와 주변 보급창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활용하였음.
출처 : Belford Duplantis, Map of ASCOM compound in 1964

【 표 목차 】

<표 1> 시기 구분 및 연표 정리 (일부)	20
<표 2> 목록화 대상 주요 기관 및 단체	24
<표 3> 면담 기관별 기본정보	24
<표 4> 기관별 특성 및 의견	25
<표 5> 캠프마켓 기록물 목록 기술 요소	27
<표 6> 기록 형태별 분석	28
<표 7> 시기별 분석	29
<표 8> 소장처별 분석	30
<표 9> 주제별 분석	31
<표 10> 수집단계별 업무	53
<표 11> 확인된 기록(소유주체별)	54
<표 12> 잠재적 기록(소유주체별)	54
<표 13> 수집 범위	56
<표 14> 캠프마켓 관련 기록 수집 우선순위 기준항목	57
<표 15> 선정기준별 우선 수집대상	58
<표 16> 유형별 우선 수집대상	59
<표 17> 수집방법 및 해당주체	60
<표 18> 상황별 입수 방법	62
<표 19>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문서군과 주요 내용	72
<표 20> WAR DEPARTMENT DECIMAL FILE SYSTEM(1943) 중 캠프마켓 관련 분류 표시(일부) ..	74
<표 21> 국내 소장 캠프마켓 관련 NAⅡ(NARA Ⅱ, Archive Ⅱ) 문서군과 시리즈 현황	77
<표 22> RG127, RG165, RG243, RG338, RG550, RG554 특성 분석	78
<표 23>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수집자료	84
<표 24> 기존 구술조사가 수록된 24개 자료	85
<표 25> 구술 자료 목록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정	87
<표 26> 시기별 구술자 / 구술 내용 특징	89
<표 27> 시기별 구술자 특성 분석	89
<표 28> 중복된 구술자와 인용 횟수 정리	90
<표 29> 구술을 통한 공간 현황 파악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91
<표 30> 구술을 통한 공간 현황 파악 (애스컴시티)	92
<표 31> 스캔 방법별 특징	99
<표 32> 협력대상 기록 활동 선별기준	101
<표 33> 협력네트워크 구축 절차	102
<표 34>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내 디지털 자료의 4가지 유형	111
<표 35> 디지털 변환의 원칙	113
<표 36> 디지털 변환의 우선순위	113
<표 37> 온라인 플랫폼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행계획	114
<표 38> 디지털 아카이빙이 필요한 캠프마켓 관련 자료	115

<표 39>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형식	117
<표 40>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형식(녹음자료)	118
<표 4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형식(영상자료)	118
<표 42> 디지털 플랫폼의 주요 사례 및 기능 분석	119
<표 43> 복합문화공간(GLAM) 공간구성 및 실현방안	129
<표 44> 유사 기관 건축 규모 및 주요시설 면적	130
<표 45> 공간 활용을 위한 입지선정 기준(안)	132
<표 46> 공간활용을 위한 평가기준 시범적용	133
<표 47>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운영 탐방프로그램	145
<표 48> 캠프그리브스 반환부지 공간 활용	146
<표 49> 평택시 주한미군 아카이브 관련 진행상황	147
<표 50> 관내 유사 시설 운영 인력 분석	151
<표 51> 직접운영, 간접운영, 민간위탁운영 방식의 비교	153
<표 52> 캠프마켓 전담조직 운영 비교분석	158
<표 53> 아카이브 관련 조례 분석	160
<표 54>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2022.11.17. 시행]	161
<표 55> 캠프마켓 아카이브 운영규정(안)	167
<표 56> 단계별 목표 설정	171
<표 57> 단위 사업 종합	174

【 그림 목차 】

[그림 1]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	2
[그림 2] 기대효과	4
[그림 3] 과업의 내용	6
[그림 4] 과업의 이해	7
[그림 5] 아카이브 계획 수립의 방향	8
[그림 6] 과업의 추진 일정	10
[그림 7] 과업 수행 방법	11
[그림 8] 현황 파악의 목적	22
[그림 9] 캠프마켓 기록물의 의미	38
[그림 10]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가치	40
[그림 11]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필요성 및 지향점	41
[그림 12] 아카이브 최신 경향 분석	42
[그림 13] 기록물의 기능 및 역할 전환	43
[그림 14] 캠프마켓 아카이브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46
[그림 15]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미래상	47
[그림 16] 수집의 필요성	52
[그림 17] 확인 및 잠재 기록물 수집 전략	55
[그림 18] 기록물 유형분석	55
[그림 19] 소유 주체에 따른 수집 방법 개념도	60
[그림 20] 기록유형에 따른 수집 방식	61
[그림 21]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의 필요성	68
[그림 22] 해외 소장 기록물 조사 및 수집 방법	70
[그림 23]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 구조 도해	71
[그림 24] 미국 · 일본 소장 자료 현황	72
[그림 25] 캠프마켓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일부 (부록 5 참고)	78
[그림 26] 미국 소장 미수집 기록물 해제(RG338/RG554)	79
[그림 27] 미국 소장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 제안	80
[그림 28]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자 진행 기존 구술자료 분석 (부록2 참고)	87
[그림 29]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기관단체 및 공간 현황	91
[그림 30] 에스컴시티 관련 기관단체 및 공간 현황	92
[그림 31] 구술 자료와 공간 전거레코드 연계	94
[그림 32] 구술 대상 선정기준 및 구술 대상 분류	95
[그림 33] 캠프마켓 1단계 반환에 따른 건축물 기록화 작업	96
[그림 34] 건축자산 조사 목록 구축 방안	96
[그림 35] 캠프마켓 구역별 주요 건축물 현황	97
[그림 36] 실측 조사 과정 사진	98
[그림 37] 입면도와 주요부재 상세도	98
[그림 38] 건축물, 박물관, 경관 등의 사진 촬영 방법 예시	100

[그림 39] 동영상 촬영 예시	101
[그림 40] 참여형 기록문화 활동	106
[그림 41] 기존 건축물 활용 사례 분석	125
[그림 42] 활용 가능한 건축물 현황	133
[그림 43] 연구실 관련 시설 예시	135
[그림 44] 교육관 관련 시설 예시	136
[그림 45] 전시관 관련 시설 예시	137
[그림 46] 전시관 관련 시설 예시	137
[그림 47] 운영 프로그램의 방향	139
[그림 48] 세부 운영 프로그램	141
[그림 49] 캠프마켓 아카이브 관련 업무	149
[그림 50] 인력 구성 및 역할	150
[그림 51] 연도별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	151
[그림 52] 캠프마켓 아카이브 단계별 운영체계 제안	159
[그림 53] 캠프마켓 아카이브 5단계 10개년 계획	172
[그림 54] 캠프마켓 아카이브 단위사업 도출	173

01

사업개요

제1절 계획수립 방향

제2절 계획수립 범위

제3절 계획수립 내용

제1장 사업개요

제1절 계획수립 방향

본 과업은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의 미래지향적 활용」이라는 정책적 목표 수행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의 캠프마켓 부지를 둘러싼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상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캠프마켓이 남아있었던 시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미군주둔기, 부지반환기, 공원조성기 등 다양한 시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특히 각 시대별 중요 이슈의 전개 과정에 따라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일상적 기억을 다양한 차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했음. 본 과업의 제목이 「캠프마켓 아카이브」로 규정된 것은 사회적 통념과 행정적 절차 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인천육군조병창, 에스컴시티, 캠프마켓이 아카이브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1. 과업의 배경

캠프마켓 부지 반환 이후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대두

-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마켓 이전 방침이 결정되고 난 이후 반환된 땅에 대한 공간 활용 논의가 시작되었음.
- 발전종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유재산 관리처분, 반환 시기 관련 협의, 시민 참여위원회 구성 등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적 절차 이행(2009년~2015년)
- 반환공여구역 오염 및 위해성 평가 시행, 환경협의 착수, 환경오염 정화 방안 논의, 전담조직 구성, 시민참여 컨퍼런스 등 지역 사회 차원의 관심 증대(2017년~2019년)
 - ※ C구역 반환(2019.8), A,B구역 반환(2019.12)
- 건축도서 인수, 토양오염정화작업 진행, 일부 건축물 철거 진행, 환경정화 완료지역 부분 개방, 공간활용 시민의견 수렴 등 공간의 적극적 활용 시작(2020년~2021년)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 수립

- 캠프마켓 반환에 따른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2021년 5월 인천시에서는 미군기지 반환부터 공원 활용까지의 단계를 담은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함.
- 1단계(2019~2021) 공여구역반환, 2단계(2019~2024) 오염토양 정화 및 토지매입, 3단계(2022~2024) 공원조성계획 수립, 4단계(2025~2028) 공원 조성공사 시행 등
- 공원 조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수행하고,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 인포센터 개소(캠프마켓 오늘&내일), 시민생각찾기 프로그램 운영
- 캠프마켓 이전과 이후의 흔적을 기록하여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음
- 이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역사문화자산 아카이브 필요성이 제기됨.

인천연구원(2021)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방향 정책연구 수행

- 캠프마켓 기록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부지 내 시설 및 기록자료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캠프마켓 시설현황, 시대별 변천사, 기관별 자료 보유현황,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캠프마켓 기록화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다시 쓰고 미래의 지역문화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구축하는 방향성을 제안하였음.
- 「함께 쓰는 역사, 같이 여는 미래, 캠프마켓 아카이브」 비전 설정
- 「수집의 다양화, 관리의 체계화, 활용의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홈페이지 자료실 상세내용 열람 가능
(<https://www.incheon.go.kr/campmarket/index>)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 수립

- 2023년 캠프마켓 완전 반환과 연계하여 기존 로드맵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분야별로 보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9월에 변경안을 수립함.
- 토양오염정화 완료, 발전종합계획 재수립, 토지매입 완료 등 2026년까지 공원 조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밀한 추진계획 재수립하였음
- 시민 소통 분야에서는 숙의경청회와 숙의공론장 운영, 갈등영향 분석, 시민참여 위원회 시민위원 확대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함
- 공원 계획 분야에서는 기존 전담팀 운영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구상 정립에서 나아가 2024년까지 공론화 권고안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그림 1]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

2. 과업의 목적

역사적 정체성 및 상징성 도모

- 캠프마켓 기록화 작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여 캠프마켓 부지의 역사적 정체성과 상징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이 땅은 일제강점기, 미군주둔기 등 과거의 가슴 아픈 역사적 현장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흔적이 남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장소
- 아카이브를 통해 이 땅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유도

체계적 기록물 평가 및 분류 기반마련

- 캠프마켓 관련 아카이브 원천자료의 분포현황 및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조사·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평가하고 분류하고자 함.
- 흩어져 있는 자료의 소장처와 자료의 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기록물 해석 및 분석

- 캠프마켓을 둘러싼 시대·장소·사람·사건을 기준으로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함.
 - 부지의 연혁 조사를 통해 「시대」 기준을 정립하며 변화 과정에 따른 「장소」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고, 이해관계자별로 분류하여 「사람」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요 「사건」을 파악하여 기준을 도출하였음
 - 기록물 유형화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직관적으로 분석·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

특화된 아카이브 활용 제안

- 유·무형적 기록물의 ‘수집’에 그치지 않고, 기록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될 활용방안을 도출해야 함.
 - 지역 상생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기반 특화 활동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참여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활용 등 종합적 기능을 일체화하여 미래유산으로서의 캠프마켓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음.

3. 과업의 기대효과

과거·현재·미래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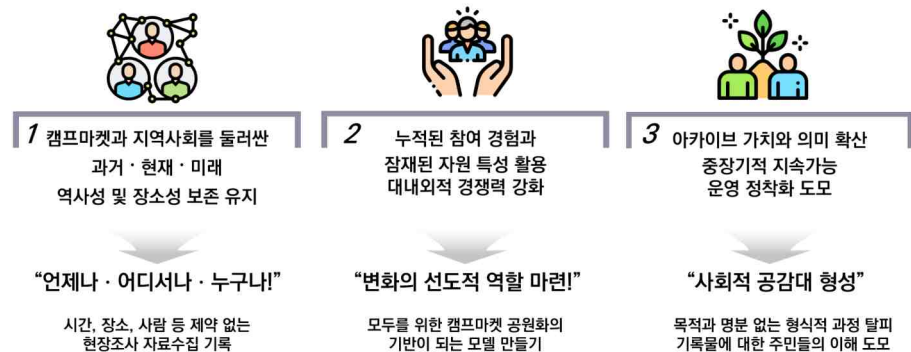
- 캠프마켓과 지역 사회를 둘러싼 가치와 의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장소 기반 역사를 발굴하여 인류 공동의 자산화를 실현하도록 함.
- 시간 · 장소 · 사람 등 제약 없는 온라인·오프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누적된 참여 경험과 잠재적 자원 특성을 활용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

- 캠프마켓 공간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선도적 역할을 마련하여 모두를 위한 캠프마켓 공원화의 기반이 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캠프마켓이 공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원 만들기를 도모함.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목적과 명분 없는 형식적 과정을 탈피하고, 기록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 아카이브가 공원화 과정에 있어 조성뿐 아니라, 조성 이후 운영관리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적 구조를 구축하여 명목적인 아카이브를 탈피함.



[그림 2] 기대효과

제2절 계획수립 범위

1. 시간적 범위

[과거-현재-미래] 시대별 이슈에 따르는 변화과정 살펴보기

○ 일제강점기 :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 시기

- 일제는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서울 및 인천항과 가까우며, 평야 지대였던 부평에 주목하며 공업지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천육군조병창을 조성하였음. 특히,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며 조병창의 역할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군수산업공장들의 부설과 대규모 노동자 주택의 건설을 초래함.
-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들의 가슴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이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삶의 애환을 담고 있음.

○ 광복 이후 : 전쟁 준비를 위한 미군 병참 본부 시기

-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군에 의해서 각 지역이 군사적으로 점령되기 시작했고 인천지역을 담당하게 된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는 부평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에 주둔하게 되었음.
- 이후 이를 애스컴시티*라고 부르게 되었고 각종 군수물자와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미군의 대규모 병참 시설로서 군사 임무뿐 아니라 미군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평 주민들의 일자리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 1970년대 초 애스컴시티 규모와 기능이 축소되었고 캠프마켓만 잔류하게 됨.

○ 캠프마켓 반환 전후 :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캠프마켓의 부지 반환 이후 닫힌 공간이었던 미군 부대를 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긍정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오염 및 정화에 대한 문제와 캠프마켓 내 건물 존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후 2021년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22년 지역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시민참여 공원 조성과정을 강조하며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을 재수립하였음.

* 애스컴시티(ASCOM City : Army Service Command City)는 캠프마켓, 캠프그란트, 캠프타일러, 캠프해리슨, 캠프아담스, 캠프하이에스, 캠프테일러 등 7개 구역으로 부대가 분할되어 공간을 점유했음.

2. 공간적 범위

[점령-확장-반환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공간적 특성변화 살펴보기]

○ 일본군 점령 : 전쟁 군수물자 공급을 위해 조성한 무기 제조 공장

-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현 부지에 20사단 부평 육군연습장으로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전쟁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인천육군조병창이 개창(開創)되면서 공간의 규모가 확장되고 땅의 용도도 크게 변화했음.
- 제1제조소는 3개의 공장으로 구성되며 제1공장에서 주물을 만들어내면 2공장에서 그것을 깎아 부속으로 만들고, 3공장에서는 부속을 조립하여 무기를 완성했음¹⁾
- 또한 기능자양성소를 두어 공장파견을 위한 준비교육을 시행함

○ 미군의 주둔과 확장 : 한국 안에 있는 작은 미국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24)는 인천육군조병창을 점령해 그대로 군수기지로 활용하였음. 일본이 떠난 자리에 미군들이 다시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건조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그 이후 이곳을 애스컴시티(ASCOM City)로 명명하였음.
-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들과 클럽, 매점, 영화관 등의 생활 지원시설이 건설되어 공간적으로 미국 본토 기지의 분위기를 갖췄다고 함²⁾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군의 철수로 인해 애스컴시티 부지는 한국정부에 귀속되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다시 UN연합군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 이후에도 공간 대부분이 미군의 영역으로 고착화되었음.
- 인근 지역 사회는 외래 물산 유통으로 인한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미군클럽을 중심으로 기지촌이 형성되어 미국 대중음악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음

○ 미군의 규모 축소와 이전 : 애스컴시티 해체와 캠프마켓 이전

-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되며 애스컴시티 군수 및 행정지원 등의 주요 업무가 중단되었음. 규모 및 기능 축소로 캠프마켓(물자처리반, 영양시설, 제빵공급저장 및 일부 저장시설)의 일부 역할만 수행하게 됨.
- 그 이후에도 55헌병대(55th Military Police Company), 군수품재활용사무소(DRMO), 제빵시설 등은 마지막까지 역할을 수행하다 최종 종료되었음
- 2013년 인천시와 국방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 이후 반환구역이 확정되고 토양오염정화 등의 과정을 거쳐 부분적 개방이 시작됨.
- B구역 일부(야구장 등) 부분적 시민개방, A·B구역 건축물 기록화 작업 진행
- 인포센터(캠프마켓 오늘&내일) 개소 이후 개방부지 활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의 닉슨독트린 선언 발표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여 제7사단 철수가 시작되었음. 2002년 수립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협정에 따라 미군기지 반환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오염정화 기준과 책임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음. 그 이후 2019년 SOFA 200차 합동위원회에서 미군기지 반환의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 반환 절차를 이행하는 중임³⁾.

1) 이상의,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국사편찬위원회-인천도시역사관 공동학술회의, 2020, p.13

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별책 : 캠프마켓 1단계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 2021, p.7

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p.6

3. 내용적 범위

[현황진단-방향제언] 중장기적 차원에서 열린 아카이브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시대별 상황에 따라 발생한 이슈 기반 연대별 연혁 정리
 -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미군주둔기-부지반환기」의 주요 사건에 따라서 연대를 구분하고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생성변화 단계를 분석함.
 - 기존 진행했던 문헌자료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시대상황, 변화과정, 발전 연혁 등을 분석하여 개별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및 자료목록화 작업을 수행함.
- 기존 기록물 현황 조사를 통한 통합 목록화 작업수행
 - 고지도, 건축도면, 논문, 영상, 신문기사, 사진 등 연구적 차원에서 생산했거나 생활적 차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진행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캠프마켓 근무자, 지역 주민, 유관단체 등 그간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는 이해관계자 활동 및 역할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필요함.
 - 국내 소장 기록물뿐만 아니라 해외 소장 기록물의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직접 수집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및 로드맵 제안
 -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카이브 구축의 대상, 구현 형태, 구체화 및 실현화 방안, 중장기적 역할 제안 등 추진방안을 마련함.
 - 아카이브의 「기획-수집-해석-활용」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안함.
 - 복합문화공간(GLAM)에서 문화적 콘텐츠의 생산 가능성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확산성 있는 미래지향 아카이브가 되도록 함.



01 연대별 연혁 정리

대한제국기 시대상황 - 일제강점기 일본군 점령 - 애스컴시티 및 캠프마켓 등 미군기지 주둔

주요 사건에 따라 연대 구분하여 생성변화 단계파악

→ 일본군 주둔기 → 애스컴 주둔기 → 캠프마켓 전반기 → 부지반환기

개별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및 자료목록화 작업수행

→ 시대상황, 변화과정, 발전 연혁 등 사진 · 문서 · 통계 · 인터뷰 활용



02 기존 기록물 현황 조사 및 목록화 작성

시대 · 공간 · 주제 · 대상별 자료현황 목록 + 기관별 보유자료 현황조사 및 목록

연구자료, 역사자료, 생산자료, 생활자료 문헌조사

→ 고지도, 건축도면, 논문, 발행물, 영상, 신문기사, 사진 등

이해관계자 등 참여주체 활동 및 역할 파악

→ 강제징용자, 캠프마켓 근무자, 지역주민, 유관기관단체 등 인터뷰

국내외 기관 협조를 통한 자료 파악(전문가 자문)

→ 국가기록원, 박물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일본 방위성 등



03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및 로드맵 제안

비전, 목표, 추진전략, 로드맵, 디지털 플랫폼 구축방안, 특화형 콘텐츠(GLAM) 활용방안

특수성과 차별성 도출, 세부추진방안 마련

→ 아카이브 구축 대상 및 구현형태 구체화, 중장기적 역할 제안

사례분석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방안 설계

→ 아카이브 기획 → 수집 → 해석 → 활용 단계별 로드맵 구축

교육, 연구, 전시, 관광, 문화콘텐츠 발굴제시

→ 전시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복합적 활용 제안

[그림 3] 과업의 내용

[그림 4] 과업의 이해

2. 내용의 구성

계획수립 방향

-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장소의 역사성 및 정보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가치 계승 실현을 목적으로 함.
- 단계별로 진행되는 아카이브 구축 과정(기획-수집-해석-활용)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계획 수립 이후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부지 반환 이후 이해관계자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여 아카이브를 통한 지역 상생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5] 아카이브 계획 수립의 방향

세부 내용

- 기존 기록물 현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의 특성을 분석하도록 함. 이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캠프마켓 및 아카이브 관련 경험자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 방안을 도출해야 함.
-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외부 여건 및 상황을 분석하여야 함.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이 진행한 사례를 파악하여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캠프마켓 기록물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아카이브 구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상징성 기반의 가치와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함.
-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부지반환기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은 기록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집 대상 및 수집 범위 등을 고려한 수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기록 수집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함.
- 기록물의 훼손과 소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변환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과 연계하여 아카이브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10년의 과정 동안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고, 인천시 및 전담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과제 및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3. 과업의 진행

연구체계 구축

-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캠프마켓의 시대 상황과 연혁을 분석하고 공간별 특성에 따라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아카이브 사례 및 미군 부대 반환 이후 공간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략적 방향을 모색함.

기록물 연구조사 및 목록화

-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확인된 수집 기록물, 잠재적 수집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분류체계를 통해 목록화 작업을 수행함.
- 국내외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건축물 도면과 사진을 조사함.
- 기록물이 생산된 시점이나 생산 주체 등 세부적으로 현황을 수행하여 자료를 토대로 분류 체계를 확정하고, 메타데이터를 설정함

생활사 구술조사 및 기록화

- 기존 구술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추가 및 시범 구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술자 인터뷰를 실행하여 녹취록을 정리하고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직접적 경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논문 및 발간물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누락되었거나 보완해야 하는 사항을 도출하여, 구술조사 방향성을 제안함.

영역별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전문가 및 캠프마켓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수집을 수행할 수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함.
- 관련 연구를 수행한 기관 및 개인을 방문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수집된 기록물 상호교류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업을 고민함.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작성

- 본 과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캠프마켓 아카이브 전략을 바탕으로 한 단위사업별 실행방안을 제안함.
- 특히 캠프마켓 기록 수집·관리·생산·활용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며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마련함.
-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이 글램(GLAM)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적 콘텐츠를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6] 과업의 추진 일정

4. 계획수립 방법

4.1 문헌 조사

유관 기관에서 수집한 소장자료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생산한 연구자 파악

- 공공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관별 자료 파악 : 미군, 국방부 인천시 이관 자료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무기,부자재,도면) / 부평역사박물관의 소장유물과 부평문화원 발간물 등 / 국가 차원의 기록 전문기관⁴⁾ 소장품
- 인근지역주민, 기록전문가, 활동가, 연구자 등 개인이 소유하거나 생산한 기록 : 도서, 학술논문, 발간물, 신문기사 등 / 사진, 영상, 유품 등 개인 소장품 등

4.2 현장 관찰

지역밀착형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참여형 조사분석 작업 수행

- 소실된 자료 및 현장자료 조사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장소 기반의 아카이브로서 현재 훼손, 소실되는 장소를 면밀히 포착해야 함.
 - 문서, 그림, 도면과 사진 등의 현장을 기록한 영상 자료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공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부지의 토양오염정화 자료 검토를 통해 오염정화에 대한 논의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사라진 공간 및 장소에 대한 흔적을 현장에서 발견하고자 함

4) 국내 기록 관련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영상자료원 등이 있으며, 국외 관련 기관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캠프마켓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협력적 관계 설정 방안이 필요함.
 - 미군 부대 반환을 위해 노력한 지역 사회 활동 과정을 파악하고, 부지 반환과 활용을 두고 건축자산에 대한 원형 보존과 철거를 둘러싼 이슈 파악 필요

4.3 구술조사

과거의 장소적 특징 및 사회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 이해관계자들의 집단기억 수집 : 오랜 시간이 흘러 해당 지역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아져서 당시 경험을 전달하는 대상을 만날 수 없게 됨.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미군 부대 근무자(미군, 한국군, 직원 등), 지역 거주민
 - 시대 상황에 따른 삶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기록하여 당대의 생활사 이해 가능
- 아카이브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캠프마켓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추적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기관·단체와 일반 시민에 주목하여 기록 생성.
 -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확인(지식과 정보 전달)
 - 미군 부대와 공생하며 살아왔던 부평구 일대 지역 사회 구성원
 - 부지 반환을 둘러싼 주민참여의 노력과 그 과정에 대한 의미 부여

4.4 사례검토

미군 부대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고 전문적 아카이브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사례

- 미군 부대 이전 후 공원화 사례
 - 캠프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 / 공군폭격훈련장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 용산공원
- 아카이브 가치 구현 및 정착 사례
 -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화 작업 5.18 아카이브 / 주민들의 삶과 증평 개청 운동의 기록 증평아카이브 / 기억해야 하는 한국의 역사 기록 관련 박물관 등



[그림 7] 과업 수행 방법

02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현황분석 및 진단

제1절 캠프마켓 현황 및 특징

제2절 기록물 통합 목록화

제3절 파악된 기록물 및 목록 분석

제2장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현황분석 및 진단

제1절 캠프마켓 현황 및 특징

1. 시대별 전개 과정 및 이슈 도출

인천육군조병창 - 애스컴시티 - 캠프마켓 - 미군부대 반환의 변천과정

* 일본군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던 부평연습장 부지는 1940년 12월 총기를 제조하던 인천육군조병창으로 편성되었고, 1945년 8월 20일 기준 97%가 조선인 징용자와 학도병으로 끌려온 이들이 노동을 했다. 미군은 1945년 9월 2일 조병창을 점령하여 제24 군수지원사령부(ASCOM 24)라고 명명했다⁵⁾.

- 대상지 일대는 대한제국기 근대식 농업회사 목양사가 운영⁶⁾했던 곳이지만,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점령하면서 군사훈련을 위한 부평연습장⁷⁾으로 활용되다 일제가 주변 땅을 매입하면서 전쟁물자를 공급하는 인천육군조병창⁸⁾으로 확장됨.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쟁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조직으로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가 인천육군조병창에 주둔하면서 애스컴시티로 명명함.
- 1970년 초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되며 애스컴시티 규모 및 기능 축소로 물자처리반, 영창시설, 제빵공급저장 및 일부 저장시설 등의 역할만 수행하는 캠프마켓만 남게 됨.
- 1996년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을 계기로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시민운동이 시작되었고,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반환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년 SOFA 200차 합동위원회에서 반환 합의에 이르렀음⁸⁾. 그 이후 인천광역시는 일부 부지를 반환받았고 현재 남은 땅에 대한 반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두된 이슈

- 부평 지역 일대는 식민지 군사시설이었던 인천육군조병창을 시작으로 미군이 그 공간을 이어받아서 활용했고, 한국군이 잠시 넘겨받았다가 다시 미군이 주둔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 인천육군조병창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된 조선 노동자들이 무기를 생산하고,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물건을 옮기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혹독한 작업을 수행하였던 국내 강제 동원의 대표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음.
- 1949년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미군의 철수로 잠시 한국정부에 귀속되기도 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1년에는 UN연합군이 주둔하였고 그 이후 미군이 반영구적인 주둔지로 활용하게 되었음⁹⁾.

5) 전갑생, 「한국전쟁기 인천의 미군기지와 전쟁포로수용소」, 황해문화, 2016, p.204.

6) 이성규, 「부평땅은 송병준이 1925년에 판 땅, 전우용 박사 민영환 소유 땅 송병준이 강탈 의혹 자료공개」, 오마이뉴스, 2013.12.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0720.

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p.12.

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p.6.

- 1960년대 애스컴시티 인근에는 1,700여 명의 미군 위안부가 살았고, 산하에는 121후송병원을 비롯해 20여 개 부대가 있었으며, 인근 지역에서 일하는 한국인 종업원만 8,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함. 이에 따라 기지촌이 활성화되었고 술집, 사진관, 양복점 등의 미군 생활지원 시설이 다양하게 존재했음¹⁰⁾.
- 그러면서 이곳은 해외 음악의 국내 유입의 통로이자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애스컴시티의 영내·외 미군클럽들은 각종 장르음악을 유입시켜 한국 대중음악의 질적,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음¹¹⁾.
- 이와 같은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으로 이어져 온 공간은 그동안의 고립으로 인해 가치가 그대로 보존된 전쟁유적이 되었음. 대륙침략전쟁의 병참기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고, 그로 인한 국내 강제 동원의 피해를 증명하는 현장이 되었으며 일본이 남긴 흔적은 건축적 자산이 됨.
-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곳에 머물던 이들이 남긴 일상적 서사는 공간을 통해 인지할 수 없는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긍정 혹은 부정적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대상지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음. 그간 있었던 미군 부대 반환 요구의 경우는 행정적 절차 이행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완벽한 토양오염정화, 역사적 건축물 보존·철거, 공원 조성 시 입지시설 등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갈등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2. 역사적 변천에 따른 공간 특성 파악

조선의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부평¹²⁾

- 조선시대 부평은 넓은 땅과 함께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진 군사적 요충지이자 부유한 땅으로¹³⁾, 육로와 해로가 함께 발달해 교역에도 유리한 입지에 있었음.
- 부평지방은 고려시대 1378년 왜구의 침입을 받은 바 있으며, 임진왜란 때 1592년 5월 19일 부평을 점령해 근거지로 삼은 역사가 있음¹⁴⁾.
- 인천과 부평 부근 해역은 1866년 프랑스, 1871년 미국의 침공에 이어 1875년 일본 운양호(운요호)의 침공을 받는 등 외세의 침략이 계속되었고, 이후 일제에 의해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가 체결됨¹⁵⁾.
- 개항 후 굴포천을 수로로 개발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¹⁶⁾, 현 부평구 부평동에 해당하는 대정리 일대에 경인선 철도 개통 및 부평역 신설함¹⁷⁾.

9)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미군기지와 부평사람들 이야기」,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특별전, 2020, p.134

10)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미군기지와 부평사람들 이야기」,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특별전, 2020, p. 158

11)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미군기지와 부평사람들 이야기」,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특별전, 2020, p. 164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사」, 1997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의 역사」, 2007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2007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제1권 부평의 환경과 역사, 인물」, 2021.

13) 부평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 2022. : 군사적으로는 요충지이나 척박한 땅이며, 버려진 평야였음. 옛날 부평은 지금의 계양구, 부평구, 부천시를 포함한 전부였으나, 그러나 현재의 부평은 그 중 극히 일부이며 당시에는 그다지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현재 계양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사」, 1997, p.130

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사」, 1997, pp. 137-144

16)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제1권 부평의 환경과 역사, 인물」, 2021. p. 121

* 대한매일신보(1908.12.2.)에는 민영환 일가가 낸 '광고'에서 부평 산곡동 땅은 민영환 집안이 운영하던 농업근대회사 목양사 농장으로 나와 있음.

조선 최초의 근대 농업회사 목양사

- 부평 산곡동의 미군 부대 터는 민영환이 국내 최초의 근대 농업회사인 목양사를 운영*하던 곳이었음¹⁸⁾. 하지만 민영환의 식객이었던 송병준이 목양사 부지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강탈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¹⁹⁾
 - 전우용 박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송병준과 친일단체 일진회가 권력을 이용해 많은 사람의 재산을 뺏은 만큼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음²⁰⁾
 - 송병준 후손이 캠프마켓을 포함한 이 일대 땅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²¹⁾」을 제기하였으나 2005년 11월 23일 패소판결이 나서 국가 소유로 인정됨
- 당시 송병준이 소유했던 땅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 군용지로 넘어간 것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

일제강점기 부평 군용지와 부평연습장

- 인천육군조병창의 토지확보는 부평연습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부평 지역 내 일본의 군용지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²²⁾.
 -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공문은 「용산 부대를 위한 부평 부근 소연습장(小演習場) 매수의 건」이 유일하며, 이를 통해 조병창의 실체를 추적할 수 있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연습장이 부평연습장, 조병창 부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여지가 있음
- 일본군은 부평 소연습장 조성을 통해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조병창이 이곳에 만들어진 것은 부평 연습장의 존재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일제강점기 이 땅은 「조선총독부의 군용지 확보, 경성 부대의 군사훈련장 활용, 소연습장 조성, 인천육군조병창 건설」로 전개되는 양상이 나타남
 - 인천육군조병창이 등장하기 이전 부평에는 이미 20년이 넘는 동안 부평연습장 혹은 부평소연습장 등의 군사 훈련장이 조성되어 훈련장소로 이용됨²³⁾

대규모 무기를 생산하는 군사시설, 인천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

-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조선 병참 기지화 정책실행을 위하여 부평의 분지에 대규모 병기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대량의 무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함.
 - 부평에서 만든 병기는 조병창 내부까지 연결된 철도를 통해 인천항으로 이송되어 중국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분지 지형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미군 항공기 공습을 피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도 있었다고 함²⁴⁾
- 1939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 총검공장과 기능자양성소 건물 공사를 완성하면서 무기 생산에 들어갔고, 1941년 5월 5일 인천육군조병창이라는 공식 명칭을 달고 문을 열었음²⁵⁾.

* 육군조병창은 일본 열도에는 도쿄 제1·제2, 사가미(相模),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고쿠라(小倉) 등지에 설치되었고, 일본 본토 외에 만주의 남만(南滿)과 한반도에 조성되었다.

17)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제1권 부평의 환경과 역사, 인물」, 2021, p. 130

18) 최영화,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방향 연구」,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2021, p. 34

19) 이성규, 「부평땅은 송병준이 1925년에 판 땅, 전우용 박사 민영환 소유 땅 송병준이 강탈 의혹 자료공개」, 오마이뉴스, 2013.12.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0720

20) 서유상, 「송병준 후손 땅 찾기 소송사건 시비 - 시민의 힘으로 찾은 부평 미군기지땅, 친일파 후손에 넘겨야 한다?」, 민족21, 2004.

21) 송병준이 소유였던 이 땅이 일본군 병참기지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강제적으로 국가 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3만여 평 중 2956평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p. 13.

2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p. 19.

24)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시티」, 2021, p. 97

- 본부를 비롯해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경성감독반, 부산감독반, 성진감독반 등을 통해 소총, 총검, 소총탄환, 포탄, 군도 등 무기를 생산했음.
-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기 어려울 때는 히로나카상공, 미쓰비시(삼릉·三菱) 제강, 도쿄제강 등 인근 군수공장에 하도급으로 진행함.
- 그로 인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많은 노동력이 유입되어, 대규모의 노무자 주택을 만들었으며, 미쓰비시제강은 부평2동에 미쓰비시 출사택을 조성함.
- 조병창 주변은 점점 거대한 공업단지로 변모하였음.
- 미군에 의한 일본 본토의 공습이 격화되자, 도쿄제1육군조병창 실폐공장의 일부를 인천육군조병창에 옮겨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함봉산 일대에 지하공장(지하시설) 건립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에 대한 현장은 현재까지 30여 개가 확인되고 있음²⁶⁾.
- 해방 직후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일본군은 인천육군조병창에 있는 무기와 재료를 파괴하거나 매장하는 작업을 했고, 이때 조병창 관련 자료도 대부분 소각, 소실되었을 것으로 짐작됨²⁷⁾.

주한 미군 복합단지 애스컴시티(ASCOM CITY)

- 1945년 제24군수지원사령부는 부평에 있던 일본육군조병창을 점령하여 그대로 군수기지로 활용하였음. 주요 미군 부대들이 본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서 애스컴시티(ASCOM City)로 명명하게 됨.
- 대한민국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군은 1949년 6월 철수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군사고문단만 남게 되었고²⁸⁾, 그 이후 한국군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다시 미군이 주둔하게 됨.
- 휴전 협정 체결 이후 해병대 제1사단을 지원하는 해병대 지원사령부(Marine Support Command)가 메인 구역으로 들어왔고, 제121 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 제6 의무창(6th Medical Depot)이 설치되었음²⁹⁾.
- 1955년 3월 애스컴시티에 병참 업무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제55 병참창(55th Quartermaster Depot)을 이동시켰고, 그 이후 애스컴시티 지역사령부(ASCOM City Area Command)가 설립되어 기본골격이 완성됨.
 - 제130 병참중대가 맡았던 베이커리(Bakery) 임무가 애스컴시티에서 시작된 것은 1956년이고, 제55 병참창은 제295, 293, 130, 508, 540, 564, 505, 537, 539 병참중대 등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받으면서 애스컴시티에서의 업무를 시작함³⁰⁾
- 애스컴시티 지역은 캠프마켓(Camp Market), 캠프헤이즈(Camp Hayes)³¹⁾,

[1955년부터 1956년 주둔 부대]
 1재무출납부(1st Finance Disbursing Section) / 55병참창(55th Quartermaster Depot) / 70수송대대(70th Transportation Battalion) / 74병기대대(74th Ordnance Battalion) / 6의무보급창(6th Medical Depot) / 121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 / 181통신중대(181st Signal Company(Depot)) / 185공병대대(185th Engineer Battalion) / 304통신대대(304th Signal Battalion) / 565공병대대(565th Engineer Battalion) / 630공병중대(630th Engineer Company) / 8057부대(8057th AU) / 인천보충대(Inchon Replacement Depot) / 728헌병대 D중대(Company D, 728th Military Police Battalion) / 68방공포대대(68th Antiaircraft Artillery Gun Battalion) / 8216부대화학창(8216th AU Chemical Depot)

25)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시티」, 2021, p. 15

26) 2022년 3월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 지하시설물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하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 지하호 등)의 존재여부 및 보존상태 등을 조사하고자함.

27)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호, 2016, p.4

28)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역사,쟁점,전망)」, 한울, 2003, p. 50

29)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미군기지와 부평사람들 이야기」,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특별전, 2020, p. 137

30)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미군기지와 부평사람들 이야기」,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특별전, 2020, p. 137

31) 캠프헤이즈는 부영공원 근처라고 할 수 있으며 제6 의무보급창과 121 후송병원이 있던 곳이다. 당시 의료시설이 부족한 시절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에 부평미군기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지금의 부영공원 자리에는 6.25전쟁중 반공포로수용소가 설치된 곳이기도 함.

캠프그란트(Camp Grant)³²⁾, 캠프타일러(Camp Tyler), 캠프아담스(Camp Adams)³³⁾, 캠프 해리슨(Camp Harrison), 캠프 테일러(Camp Taylor) 등 7개 구역으로 부대가 분할되어 공간을 점유하였음.

- 각 부대의 내외부에는 군사시설과 미군의 생활을 위한 식당, 클럽³⁴⁾, PX, 병원, 도서관, 극장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부평의 경제기반이 됨³⁵⁾. 미군을 위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됐고, 풍부한 일자리와 물자를 쫓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부평으로 모여들. 이로 인해 신촌, 백마장, 삼릉, 관동조, 다다구미 등으로 부르는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었음³⁶⁾.
- 오랜 시간 각기 다른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기지촌 문화가 탄생했음. 미국 대중문화가 전파되며 한국 대중음악의 현대화가 이뤄졌으며, 당시 기지촌 사람들의 모습은 소설과 시 등 문학작품으로도 기록됨.
- 1971년 제121 후송병원의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주요 시설과 부대들이 이전되면서 기지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1973년 애스컴시티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캠프마켓만 남게 됨.

미군 보급기지의 상징 캠프마켓(Camp Market)

- 캠프마켓은 부평 일대 지역경제와 주민 생계를 지탱하던 애스컴시티의 중심시설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군수기지 역할을 맡아왔음.
- 1973년 애스컴시티가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자로 생활하던 많은 사람이 부평을 떠나게 됨.
- 캠프마켓에는 일부시설만 남게 됐고, 오랜 시간 높은 철조망과 담장으로 지역 사회와 격리된 상태로 존재함.

부지반환 이후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 모색

-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반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년 SOFA 200차 합동위원회에서 반환 합의를 진행함. 그 이후 인천광역시는 일부 부지를 반환받았고 현재 남은 땅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고 있음.
- 2012년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가 발족해 10여 년간 활동을 이어왔으며, 2019년 캠프마켓 A, B구역 반환이 이루어졌고 시민 소통 차원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원화 추진이 본격화하고, 그 일환으로 인포센터(캠프마켓 오늘&내일)가 조성되어 운영 중임.
- 캠프마켓 완전 반환과 연계하여 기존 로드맵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분야별로 보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9월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변경안을 수립함.

32) 캠프 그란트는 현재의 3보급단 인근지역으로 당시 활주로가 있었고, 부평역에서 이어지는 철로가 연결되어 있었음.

33) 캠프 아담스의 인근에는 미군 교도소(Stockade)가 위치하며 6.25전쟁 이전에 군법회의가 운영되기도 함.

34) 미군기지 내 장교 클럽(Officers Club), 하사 관 클럽(NCO Club), 사병 클럽(EM Club) 등 계급에 따라 이용하는 클럽이 운영됨.

35)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4권 인천육군조병창광 애스컴시티」, 2021, p. 269

36)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미군기지와 부평사람들 이야기」,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특별전, 2020, p. 141

3. 시대 상황에 따른 연혁 구분

* 본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4(시대변화에 따른 주요 사건 및 이슈 발생목록) 정리되어 있음.

- 7개 자료³⁷⁾의 연표 및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325개 세부 항목*을 도출함.
- 연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12개의 시기를 구분함. 연표는 캠프마켓 관련 역사적 내용과 전체 한국사 관련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큰 흐름 속에서 부평의 역사를 보고자 시도했음.
- 연표는 1894년 일본군의 인천 시찰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부대 반환 이후의 활용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표 1〉 시기 구분 및 연표 정리 (일부)

대한제국기 목양사(1900-1909)	
대한제국기	대한제국 문신 민영환이 부평 산곡동 땅에 근대 농업회사 목양사 운영
1905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민영환 자결
1906	민영환 식객 송병준(친일반민족행위자)이 현재의 캠프마켓 부지와 주변 토지 430만 평 강탈
1908	대한매일신보에 민영환 일가가 송병준을 탄원하는 광고 게재
1909	민영환 일가는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일제강점기 육군연습장(1910-1939)	
1916	조선총독부가 군용지로 부평지역 60만 평의 토지 확보
-	경성부대(용산보병 78연대) 경인선 부평 부근 지역 사격연습 훈련장으로 활용
1922	부평연습장은 연합 훈련 장소로 사용(훈련 중 민가 강제 수용)
1923	부평연습장 매수 논의 시작, 조병창 건설 목적 부평연습장 중심 주변 토지 확보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1939-1945)	
1939	부평연습장 부지가 고쿠라 공창 제조소의 조선공창(가칭) 부지로 선정
1939	토지 매수 예산 허가 이후 1년 6개월 동안 조병창 건설 진행
1941	인천육군조병창 개창(총검공장, 기능자양성소 등 제반시설 완공)
1943	군수회사법 공포를 통해 조선총독부와 민간기업 협력 강화
1944	제1차 학도동원 작업장 개시(360명 학생 입창식 진행)
1945	인천육군조병창 증설 계획 수립 : 도쿄제1육군조병창 함봉산 일대에 이설함(지하공장 건립)
ASCOM 24 임시주둔기(1945-1948)	
1945	일본항복 직후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시로 인천과 서울 항공사진 촬영
1945	인천항을 통해 상륙한 미군이 조병창 부지 점령하여 미군기지로 전환
1945	미육군 24군수지원사령부가 주둔하며 기존 인천육군조병창 시설물 조사 실시
1946	사령부 본부, 화학 2개/공병대 21개/의료부대 10개/헌병대 3개/보급부대 11개/병참 26개/통신부대 8개/수송부대 5개 중대 주둔
1947	유엔총회에서 점령군의 완전 철수협약과 미군 철수 계획 수립
한국군 주둔기(1949-1950)	
1948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수립
1948	인천육군조병창, 조선유지화학, 유항상공 등의 시설 활용 '국군 조병창' 창건 계획 발표
1949	미군 철수 이후 주한미군군사고문단(KMAG)과 영내 미군 클럽 잔류
1949	미군은 주둔시설 한국 정부 이관
1949	부평육군군 의학교 제1기 위생간호장교후보생 졸업식 거행
1950	인천육군조병창 건물 수리 이후 제2조병창 개편 시도

37) 인천광역시 캠프마켓과 내부자료(업무편람), 인천시립박물관,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부평구청,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2021,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미군기지와 부평사람들 이야기」,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특별전, 2020,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2007, 민족 21, 「민족21」 2004년 7월호 (통권 제40호), 2004, 최영환,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방향 연구」, 인천연구원, 2021

한국전쟁기(1950-1953)	
1950	한국전쟁 발발
1950	1950년 9월 중순까지 북한군 애스컴시티 점령
1950	인천상륙작전 이후 UN연합군 애스컴시티 탈환하여 주둔
1950	부평전투가 발발하여 애스컴시티 대규모 야간폭격 전개
1951	인천지역에 있던 미군이 부산항으로 후퇴하고 북한군이 애스컴시티 재점령
1951	1.4후퇴로 물러났던 국군과 미군이 인천을 다시 탈환하여 부평 지역에 재주둔
1953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 명령을 내려 전국 각지 탈출 시도 반공포로수용소(부평 제10포로수용소) 560여 명의 탈출 감행하고 860명 잔류
1953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에 화약공장 설치 결정 보도
애스컴시티 재편성기(1953-1970)	
1953	정전 협정 이후 미군 병력 지원 거점 역할 → 군수품 주요보급창(Ordnance Main Army Depot) 중심으로 병참기지화 진행
1955	7개 보급창 기지 통합 이후 병참시 및 군수시(애스컴시티) 명명
1955	상이군인 협동농장 화랑농장 건물 신축
1963	애스컴시티 7개 구역 명명(Camp Market, Camp Hayes, Camp Grant, Camp Tyler, Camp Adams, Camp Harrison, Camp Taylor)
애스컴시티 해체기(1971-1973)	
1970	닉슨 독트린 발표 후 그 여파로 한국 내 미군기지 축소
1971	제121 후송병원 용산기지로 305 병동 규모 신축 이전
1973	애스컴시티 내 대부분 시설 폐쇄
1973	미 제20 일반지원단(The 20 th General Support Group) 해체 이후 보급 및 운영 작전 중단 선언
캠프마켓 잔존기(1973-2021)	
-	재산처리소(PDO), 55헌병중대, 빵 공장 등 시설 및 기능이 잔류함. [A구역] 군수재활용품센터(DRMO), 수송대기 탄약고, 저장시설 [B구역] 체력단련센터, 야외수영장, 공동식당, 휴양센터, 사병 및 장교 숙소, 차량정비 공장, 다목적 행정시설 [D구역] 소방서, 저장시설, 행정시설, 매점, 창고, 인쇄소, 탄약고, 하사관급 주택, 빵 공장('21년에 이전)
미군철수 부지반환 운동기(1996-2001)	
1996	부평역 앞 5.18광주민중화동기념식에서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 시작선언
1996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발족
1997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약칭 '부공추') 발족
2001	부평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간 따이기 행사 개최
부지반환기(2002-2020)	
2002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 근거 마련
200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2011	DRMO(Defenc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수품재활용사무소) 폐쇄 이후 김천 이전
2011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2013	인천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관리·처분 협약 체결
201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근린공원 → 문화공원
2019	SOFA합동위원회, 캠프마켓 1단계(A, B구역) 반환 결정
2020	B구역 임시 개방 및 담장 일부 철거
2020	B구역 개방행사(야구장, 수영장, 극장 등 시민에게 개방)
부지개방 이후 활용기(2021-2022)	
2021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 계획수립
2021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2021	캠프마켓 홈페이지 개설
2021	캠프마켓 인포센터(오늘&내일) 개소 및 개방 기념행사
2022	인천 시민 시장 대토론회 개최
2022	캠프마켓 공식 홈페이지 개설
2022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 수립

제2절 기록물 통합 목록화

1. 목적 및 방향성

통합목록 작성을 통한 추후 기록화 작업의 토대 마련

-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은 다양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의 위치 및 맥락정보 파악이 필요함.
- 때로는 시대적 요구 및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서 기록화 작업이 중복되거나 발굴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수집·발굴된 목록을 상호 공유하여 원하는 자료를 더 편리하게 찾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줄일 필요성이 있음.
- 기록물 원본 자료(1차 자료)를 토대로 연구 및 창작 등 적극적인 활용(2차 자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캠프마켓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쟁사 등의 연구를 수행할 때 수집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음.

분석의 방향성 / 관련 기록물 현황 파악을 통한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 기록화 주체·대상·시기 등 조사 수집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위해 기록 관련된 활동에 따른 성과물을 직접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함.
 - 문서, 간행물, 보고서, 도서, 잡지, 신문, 박물관 등 기록물 파악
- 연구·취미·생활 등 목적의 생산공유 방식을 진단하고자 함.
 -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 활동 및 소유 주체 파악하고, 인천시, 부평구, 시민단체,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 기록화 관련 문헌자료 분석
- 기록물 유형·형태·소유 등 보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시대별 사건에 따른 생활환경 및 공간 변화의 상황 구분하고자 함.
 - 청일전쟁-태평양전쟁-한국전쟁 등의 시대별 상황에 따라 인천육군조병창-에스컴시티-캠프마켓-문화공원이라는 공간으로 변화 양상 진단



[그림 8] 현황 파악의 목적

2. 목록화 방법 및 대상

기(既)작성된 목록 수집

- 기증, 사본수집, 위탁, 구입 등의 방식으로 기록물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기록물의 소장 정보를 파악하여 수집하는 방법임.
- 유관기관 혹은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 기록물 소장자(처), 주소 및 연락처, 기록물 내용·형태 등을 우선으로 수집함.
- 웹에 공개하지 않은 기관 내부적으로 목록을 보유한 경우, 방문 및 유선 연락을 통해 목록을 확보함.
 - 직접 방문 및 유선 연락 후 목록수집 대상 기록물의 소장자(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기록물 내용·형태, 소장자(처)의 수집에 관한 의견 등 종합 정보를 수집함

기록물 직접 조사 및 수집

- 직접 수집 및 목록 작성
 -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목록이 없는 경우, 직접 기록물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목록화를 진행함
 -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행본 형태의 기록물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 것은 구매함. 판매하지 않는 비영리단행본은 기증을 받음
- 작성된 연표를 토대로 시기별 주요 사건,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함.
 - 기파악된 단행본 중 참고문헌 목록에서 관련된 자료를 목록화함
 - 웹 및 다양한 타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자료 검색을 진행함(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³⁸⁾, 한국사데이터베이스³⁹⁾ 등)
- 웹상에서 기록이미지 원본수집
 - 웹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기록이미지는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불가한 이미지는 캡처하여 수집함
 - 수집된 기록이미지의 파일명은 기록물 목록의 일련번호와 일치시킴

목록화 대상 주요 기관 및 단체

- 그간 아카이브 작업을 수행했고,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인천시 관련기관, 부평구 관련기관, 국가 관련기관, 언론매체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유한 소장품, 연구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와 특정주제에 대해 집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38) <https://nl.go.kr/newspaper/>

39) <https://db.history.go.kr/>

〈표 2〉 목록화 대상 주요 기관 및 단체

구분	해당기관	비고
인천시 산하기관	인천시 캠프마켓과,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 인천문화재단, 인천연구원	
부평구 산하기관	부평구, 부평구 문화재단,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	
중앙부처 산하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문화재청*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신문에 한정되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언론매체	경향신문, 경기매일신문, 굿모닝인천,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인천신보, 중앙일보	

*디지털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

주요 기관 특징

- 목록화한 기록물 중 많은 기록물을 소장하고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파악함. 해당기관은 캠프마켓 기록화 작업을 통해 생산한 성과물과 경험을 공유하였음. 면담을 진행한 기관은 인천시립박물관,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임.

〈표 3〉 면담 기관별 기본정보

기관명	인천시립박물관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
연혁/설립연도	1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	1998년 설립	2007년 3월 29일 개관
운영주체	인천시 산하 시립박물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법인	
역할/주체	인천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	부평향토 문화를 증진시키며 부평구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키는 목적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지역 주민에게 정주의식을 함양
웹페이지	www.incheon.go.kr/museum/	https://portal.icbp.go.kr/bpcc/	https://portal.icbp.go.kr/bphm/

주요 기관 면담 시 의견

- 향후 연구 및 활용에 도움이 되는 목록화 필요 대상을 언급함.
 -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외자료(인천시립박물관), 대중일보(부평역사박물관)
- 추가 조사지역 및 인터뷰 대상자를 언급함.
 - D구역과 부평공원 지하시설(부평문화원), 2단계 반환구역 건축물(인천시립박물관)
 - 캠프마켓 관련 미군(부평역사박물관), 조병창 및 캠프마켓 주제 연구자(부평문화원)
- 각 기관마다 연구 및 활용사업시 관심을 갖는 주제가 있음
 - 인천시립박물관 : 부평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어를 일시적으로 진행함

- 부평문화원 : 부평지역 지하 시설 주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고 있음. 지하호 투어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관심을 끌게 되어 조사연구사업까지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지하호 투어를 진행 예정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하 시설 조사용역을 지원함
- 부평역사박물관 : 캠프마켓 인근의 다양한 동네를 지속적으로 연구조사 및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수집 관련 의견
 - 인천시립박물관 : 인천시로부터 이관 받은 박물류 및 카드도면류를 소장하고 있음. 부평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일시적으로 진행함. 필요시 박물관을 거치지 않은 채 인천시가 직접 수집/유물구입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부평문화원 : 미국국립문서관리청(NARA) 지하시설 관련 도면이 있을 것으로 추측
 - 부평역사박물관 :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부평 및 캠프마켓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많은 수집품을 보유하고 있음. 매년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
 - 그간의 구술 경험을 통해서 단기간 다수인원 작업의 어려움 전달
- 인천시립박물관과 부평역사박물관은 내부적으로 보유한 목록을 공유받음.

〈표 4〉 기관별 특성 및 의견

기관명	주요 보유자료	운영 프로그램	담당자 주요의견
인천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마켓 1단계 구역, 건축물 도면 및 이력카드 - 인천시 캠프마켓과 (舊 부대이전개발과)로부터 이관받음 • '조병창: 끝나지 않은 역사' 전시 관련 자료 - 전시로 인해 생산된 도록 및 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마켓 내 기록관 건립시 인천시립박물관 전문적 지원 필요함 • 1단계 반환구역 외 구역들 건축물 조사 필요함 • 해외기록물 관련하여 국가편찬위 및 국외 자료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부평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시설 관련 자료 - 지하시설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며 생산된 일련의 자료 • 부평사 - 지속적으로 1997년, 2007년, 2021년에 부평사를 발간함. 각 연도별로 자료가 상이하여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지역 지하 시설 주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고 있음. 지하호 투어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관심을 끌게 되어 조사연구사업까지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지하호 투어를 진행 예정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하 시설 조사용역을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시설 종류가 다양할 수 있으니 내외부 공간 전문적 조사 필요함 • D구역 및 부평공원 지하공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함 •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함
부평역사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보고서 -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 신촌,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 화랑농장, 도교제강 사택 관련 조사보고서. 매년 부평 내 지역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음 • 구술자료 - 전체 구술 내용 중 홈페이지 내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음 • 캠프마켓 관련 유물 - 외국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것도 상당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부평 및 캠프마켓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많은 수집품을 보유하고 있음. 매년 조병창 및 캠프마켓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일보 등 신문기사를 목록화 필요성 제시함 • 캠프마켓, 에스컴시티 관련 구술조사의 경우 노동자로 있었던 한국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군대상 인터뷰는 추가적으로 필요함

3. 목록 기술 요소 설정

도출을 위한 검토사항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기술 규칙’을 검토하고 캠프마켓 기록물 및 현재 목록화 상황에 맞는 요소를 선정함. 선정된 요소는 아래 *표시를 함
 - 식별영역(참조코드*, 제목*, 일자*, 기술계층, 기술단위의 규모와 유형*)
 - 배경영역(생산자명*, 행정연혁/개인이력, 기록물 이력*,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 내용과 구조 영역(범위와 내용, 평가/폐기/처리 일정 정보, 추가수집 예상 기록물, 정리체계, 색인어*)
 - 접근과 이용환경(접근환경, 이용환경, 자료의 언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조건, 검색도구)
 - 관련 자료(원본의 존재와 위치, 사본의 존재와 위치, 관련 기술단위, 출판물 설명)
 - 추가 설명*
 - 기술 통제(기술담당자,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기술 규칙’에 명시된 명칭을 수정 및 세분화하여 캠프마켓 목록 기술요소를 구성함.
 - ‘기술단위의 규모와 유형’, ‘색인어’는 캠프마켓 기록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
 - ‘기록물 이력’은 세부항목 중 일부 선택 적용

기술요소 항목

- 검토사항을 토대로 ‘캠프마켓 기록물 목록 기술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캠프마켓 기록 목록 중 필수 및 선택요소로 구별함.
 - 필수요소는 의무적으로 기입해야하는 요소로 ‘식별번호’, ‘제목’, ‘수량’, ‘크기/규모’, ‘생산연도’, ‘생산자’, ‘소유자’, ‘기록유형’, ‘공개조건’, ‘위치’, ‘전자파일’이 해당
 - 선택요소는 기입이 가능하거나 필요시 기입하는 요소로서 ‘주제/기능’, ‘시기’, ‘공간’, ‘조직/인물’, ‘아카이스트 주기’가 해당
- 목록 항목별 기술을 1차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기술이 필요함.
 - 1차 완료 항목 : 식별번호, 제목, 생산연도, 생산자, 소유자, 기록유형, 주제/기능, 시기, 전자파일, 아카이스트 주기
 - 추가 기술필요 항목 : 수량, 크기/규모, 공간, 인물/조직, 공개조건, 위치

〈표 5〉 캠프마켓 기록물 목록 기술 요소

항목	설명	기술방식	현황
식별번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확인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함	완료
제목	기록의 명칭	제목 또는 기록의 내용에 한자가 있는 경우 한글로 표기	완료
제목(원어)	기록의 명칭에 대한 타국어 표기	한자, 일어, 영어로 병기	완료
수량	기록 건의 수량		추가필요
크기/규모	기록 원본의 물리적 크기		추가필요
생산연도	기록의 생산연도	YYYYMMDD (파악불가의 경우 '미상'으로 표기)	완료
생산자	기록의 생산자(혹은 생산처)		완료
소유자	기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혹은 개인		완료
기록유형	기록의 물리적 형태	(일반문서류, 사진그림류, 영상음성류, 도서간행물류, 카드도면류, 박물류, 전자기록물류) 중 선택	완료
주제/기능	기록의 내용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능	(정치/행정, 사회/생활, 경제/산업, 교육/문화/예술, 복지/환경, 군사 일반행정, 군사 인물, 군사 물품/장비/보급, 군사 운송/교통, 군사 건축/토목, 군사 의료/위생/복지, 군사 전투, 군사 전투지원) 중 선택	완료
시기	기록의 내용과 관련된 시기 혹은 기록이 생산된 시기	(대한제국기 목양사, 일제강점기 육군연습장,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ASCOM 24 임시주둔기, 한국군 주둔기, 한국전쟁기, ASCOM CITY 재편성기, ASCOM CITY 해체기, CAMP MARKET 잔존기, 미군철수 부지반환 운동기, 부지반환기, 부지개방 이후 활용기) 중 선택	완료
공간	기록의 내용과 관련된 공간		추가필요
조직/인물	기록의 내용과 관련된 조직/인물		추가필요
공개조건	기록열람 정책에 따라 소장자(처)의 의사에 따라 결정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중 선택	추가필요
위치	소장처이름 및 위치		추가필요
전자파일	전자파일 연결여부	연결링크 기입	완료
아키비스트주기	기록에 대한 아키비스트의메모		완료

목록 작성 및 기술시 한계점

- 한문, 영문으로 생산되고 손글씨로 생산된 기록의 경우, 해석이 불가하여 기록 명칭을 기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최대한 많은 기록물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존재하는 모든 기록물을 목록화하지는 못함. 기록에 대한 배경정보 부족으로 기술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불가피하게 목록화한 개별 건 구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음. 일부는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어서 한 건으로 선정한 반면, 일부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한 건으로 수량이 산정됨.
- 목록화된 자료에는 원본인 1차 자료와 이를 인용하거나 해석한 2차 자료로 구분되는데, 같은 자료를 중복하여 보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목록의 항목 중 '주제', '시기'의 경우, 기초연구를 통해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하였으나 목록화한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 개입될 수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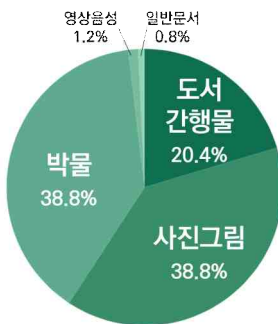
제3절 파악된 기록물 및 목록 분석

1. 기록물 형태

- 〈부록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목록화 기록물(975건) 중 박물류와 사진그림류가 81.2%로 대다수이며, 인천시 소장자료의 경우 박물류와 사진그림류가 대략 90%를 차지함. 이는 기존 박물 중심의 수집 정책 때문으로 추측됨.
- 수집계획 수립 시 기록물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한 수집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거로서의 가치⁴⁰⁾가 있는 공공문서, 녹취록, 보도자료 등의 일반문서류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함.

〈표 6〉 기록 형태별 분석

구분	세부유형	수량(건)	비율(%)
박물류	금속, 도자, 목재, 섬유, 유리 등 다양한 재질	490	50.3
사진그림류	행사 및 전경 사진	301	30.9
도서간행물류	학술지, 연구보고서, 논문, 소설, 만화	164	16.8
영상음성류	동영상, 녹음파일, 테이프, 영화필름	10	1.0
일반문서류	공문서, 녹취록, 보도자료	8	0.8
전자기록물류	DB, 웹기록물	1	0.1
카드도면류	건축도면, 관리카드	1	0.1
총계		975	100



기록물 형태별 분포 현황
(인천시 산하기관 보유자료 210건 중)

2. 생산 시기

〈1차/2차 자료의 구분〉

1차 자료	2차 자료
원자료 저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수집된 데이터	원자료를 설명하는 자료 주로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생산한 자료
일기, 편지, 각서, 신문기사, 사진 등	논문, 에세이, 예술비평 등

- ‘캠프마켓 잔존기’(23.3%),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11.4%), ‘애스컴 시티 재편성기’(12.1%) 시기의 기록물이 다수를 차지함.
-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시기를 타겟팅하여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과 부족한 시기를 타겟팅하여 고르게 수집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가장 많은 기록물이 목록화된 시기인 ‘캠프마켓 잔존기’의 경우, 단행본 등 1차 사료를 가공한 2차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함.
- 해당 시기의 경우, 원본인 1차 사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40) 증거로서의 가치. 기록학용어사전 참고하여 작성.

〈표 7〉 시기별 분석

구분	해당연도	수량(건)	비율(%)
대한제국기 목양사	1900 - 1909	2	0.2%
일제강점기 육군연습장	1910 - 1939	20	2.1%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1939 - 1945	111	11.4%
ASCOM 24 임시주둔기	1945 - 1948	66	6.8%
한국군 주둔기	1949 - 1950	-	-
한국전쟁기	1950 - 1953	20	2.1%
에스컴시티 재편성기	1953 - 1970	118	12.1%
에스컴시티 해체기	1971 - 1973	10	1.0%
캠프마켓 잔존기	1973 - 2021	227	23.3%
미군철수 부지반환 운동기	1996 - 2001	-	-
부지반환기	2002 - 2020	-	-
부지개방 이후 활용기	2021 - 2022	25	2.6%
미상	연도파악 불가	376	38.6%
합계		975	100.0%

3. 소장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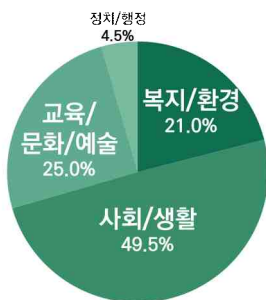
- 인천시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은 목록화한 975건 중 210건으로 21.5%임. 인천시 외 타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록물은 504건(51.7%)으로 그 중 부평구 산하기관이 보유한 기록은 454건으로 목록화한 기록물 전체 중 46.6%를 차지함.
- 전체 수량 중 인천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물은 적은 편이며, 활용 시 협의가 필요한 기록이 상당수임.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수집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속적인 타 기관 및 개인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함. 특히, 상당수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평구 산하기관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함.
- 개인 및 민간단체가 소유한 기록은 180건(18.5%), 언론사가 보유한 기록물은 45건(4.6%)임. 해당 소유주체들은 공공기관과 다른 수집 및 네트워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8〉 소장처별 분석

구분		해당 소유주체	수량(건)	비율(%)
공공기관 (인천시 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 소속부서(캠프마켓과 등) 인천시립박물관(인천도시역사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 인천문화재단 	210	21.5
공공기관	부평구 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구 소속부서(홍보담당관 등) 부평구 문화재단,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시사편찬위원회 	454	46.6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문화재청 	50	5.1
개인 및 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구자, 사진가, 군인 지역학교(박문여고, 동산중고, 인천기계공고, 인천여고 등), 지역교회, 시민단체 	180	18.5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언론 (경기매일신문, 굿모닝인천, OBS경인TV, 대중일보) 전국언론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사) 	45	4.6
미상			36	3.7
합계			9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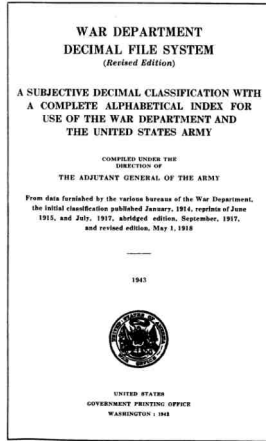
4. 관련 주제

- 목록화한 전체 기록물(975건) 중 69.6%가 군사 관련 주제이며, ‘사회/생활’, ‘교육/문화/예술’ 등 군사 외 주제는 23.0%를 차지함.
- 기록물이 군사 관련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수집계획 수립이 필요함. 집중된 주제를 추가 수집하여 더 특화할지, 부족한 주제를 수집하여 전체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함.
- 군사 관련 외 주제의 경우, ‘사회/생활’ 주제가 다수를 차지하며 해당 주제는 박물관 등 집중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이 다수를 소유함.
- 이와 같이 민간이 소유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지속해서 수집하여 다양한 특징을 갖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음.



기록물 주제 분포 현황
(군사 외 주제 200건 중)

〈주제분류시 참고자료〉



WAR DEPARTMENT DECIMAL FILE SYSTEM (The Adjutant General of the ARMY, 194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제 분류체계

〈표 9〉 주제별 분석

구분	세부유형	수량(건)	비율(%)	
정치/행정	정치, 법률, 행정, 사법, 외교	9	0.9	23.0
사회/생활	의/식/주생활, 여성, 사회운동, 풍습	99	10.2	
복지/환경	치안, 보건의료, 환경, 위생	42	4.3	
교육/문화/예술	교육, 체육, 음악, 영화, 문학, 언론	50	5.1	
경제/산업	기계, 제조, 물류, 기업, 금융	24	2.5	
군사	전투	2	0.2	69.6
	전투지원	22	2.3	
	일반행정	51	5.2	
	인물	75	7.7	
	의료/위생/복지	23	2.4	
	운송/교통	6	0.6	
	물품/장비/보급	245	25.1	
	건축/토목	254	26.1	
미상		74	7.6	7.6
합계		975	100.0	100.0

03

캠프마켓 아카이브 방향 설정

제1절 추진방안

제2절 개념 정립

제3절 필요성 및 활용방안

제4절 아카이브 최신 경향 분석

제5절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비전

제3장 캠프마켓 아카이브 방향 설정

제1절 추진방안

1. 계획수립 방향 도출

기존 기록물 현황분석을 통한 이해 도모

- 캠프마켓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기관(단체) 및 개인에 산재되어 있음.
- 기존 기록물의 유형, 내용과 더불어 생산 및 수집 주체와 관련 장소를 파악하여 기록화 작업과의 연계성을 마련해야 함.

지역 상황 및 요구사항 고려

- 캠프마켓 반환 부지 활용을 둘러싼 완벽한 오염정화를 위한 건물 철거 이슈,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의 유산적 인식 제고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정책적 상황과 주민 인식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원 가능성을 판단함.

아카이브 실효성 제고 노력

- 아카이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 조직, 인력, 공간, 제도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안함.

아카이브 활용방안 모색

- 전시, 체험, 열람, 검색 등의 기능을 갖춘 플랫폼의 통합서비스가 필요함.
- 박제된 기록물의 집합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지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도모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캠프마켓이라는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한 ‘주제형 아카이브’로서 장소와 연계한 아카이브의 활용이 요구됨.

2. 계획수립 내용

지속가능한 사업실행 및 실천적 운영 정착화

- 목적과 명분 없는 형식적 과정을 지양
- 행정기관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한 효율성 부여
- 캠프마켓 공원화 과정의 상징성 부여
- 다양한 차원의 해석과 참여 기반 마련

시간, 장소, 사건 중심의 효율적 기록화 작업 수행

- 산발적으로 분포된 기록물 자료에 대한 통합화 도모
- 사진, 영상, 구술 등 문서가 아닌 특별한 형태의 자료 수집보관
-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
-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연구자와의 협력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

- 역사적 상징성과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거점 공간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대중적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 도모
-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활용도 증대 도모

제2절 개념정립

1. 캠프마켓 아카이브 개념

아카이브와 아카이빙의 개념 확장

- 아카이브(Archive)는 기록학적 정의에 따라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남겨진 영구 기록물을 의미하는데, 현대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영구기록물을 보존하는 장소까지 의미함. 아카이빙(Archiving)은 기록의 수집·평가·선별·분류·정리·기술·보존·서비스의 전 과정을 의미함.
- 최근 아카이빙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이고 거시적인 단위를 탈피하여 풀뿌리 문화, 하위문화, 작은 단위의 영역에서의 아카이빙이 전개되고 있음.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2019년 최초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서울기록관을 개관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기록 체제를 벗어나,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기록 문화가 제시되고 있는 시점임.

장소와 일상 기반의 아카이브

- 민간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 기억’, ‘일상 기록’, ‘일상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빙’ 등 일상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가 대두되고 있음.
- 최근의 일상 아카이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토대로 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상적 기록을 포함함.
- 일상 아카이빙에서는 개인의 기억이 모여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며, 집단적 기억에 의해 개인의 기억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작용을 주목할 수 있음.

개인적 기억은 주로 장소에 기반한 기억인 장소기억(Place Memory)으로 나타나는데, 장소기억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노스탤지어(Nostalgia)’나,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등을 볼 수 있음. 일상적인 기억을 기록하고 이들 기록을 아카이빙함으로써 장소기억을 생산·재생산할 수 있음.

- 장소 기반의 아카이브 사례는 주로 지역 문화콘텐츠 아카이브와 도시공간 아카이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도시공간 아카이브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도시를 사유하는 방식에 기인하며, 아카이브를 통해 건물·공간·기념물과 대상들이 도시 환경을 구성하고 이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장소’와 ‘일상’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라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기록물이 장소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소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주민의 삶과 의식주의 공간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함.

아카이브의 대상으로서 캠프마켓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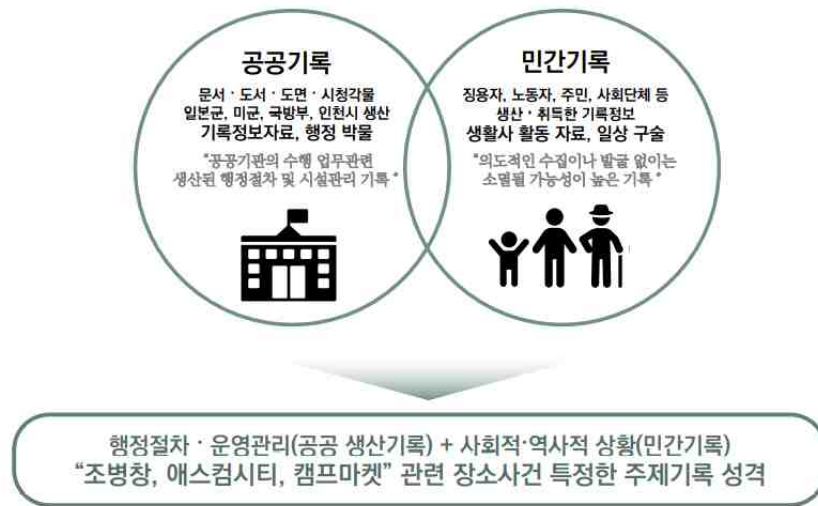
- 본 과업에서 다루는 기록물은 캠프마켓과 관련되어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 및 민간기록물을 의미함.
- 행정절차와 운영관리를 통해 생산된 공공기록과,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민간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과 이후의 문화공원에 이르는 장소 및 사건이라는 특정한 주제기록의 성격을 가짐.

공공기록

- ‘공공기록’은 공공기관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행정절차 및 시설관리 기록이며, 문서·도서·도면·시청각물 등 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국방부·인천시·일본군·미군 등 유관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정보자료 및 행정박물 등을 포함함.

민간기록

- ‘민간기록’은 징용자, 노동자, 주민, 사회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로서 생활사 활동자료와 일상 구술을 포함하며, 자료 생산 주체의 특성상 의도적인 수집이나 발굴이 되지 않을 경우,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기록을 의미함.



[그림 9] 캠프마켓 기록물의 의미

2.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의미

[주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 공공기관(인천시, 부평구), 관련 전문기관과 더불어 사회단체, 지역주민, 전문연구자 등과 기록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구축됨.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공공 아카이브이지만, 캠프마켓을 주제로 한 ‘주제 아카이브’로서 캠프마켓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와 기억을 담아야 함. 따라서 수집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요구됨.

[대상] 시간, 공간, 사건, 사람

- 시간적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미군 부지가 반환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는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그리고 캠프마켓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하며,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함.
-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인물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통 시민들의 행위와 기억까지 포함하여, 국가적 기록 혹은 거시적 기록을 탈피하여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 전환에 기여함.

[목적] 공간에 특별한 의미 부여

- 캠프마켓 반환 이후, 그 공간을 둘러싼 장소적 특징을 기반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열어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과거에 경험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물질적 감각을 연상시키는 장소를 통해 형성된 기억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으며, 장소를 통해 생동감 있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장소기억을 전달하는 물질적 매개로 작동하며, 캠프마켓의 가치와 의미의 지속을 야기함.

[방법] 기록의 수집, 보존, 활용

- 기록의 생산, 수집, 보존, 활용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행정 기능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사람 중심의 일상 아카이브로의 변화를 추동함.
- 캠프마켓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박물, 이야기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 아카이브는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로서, 동시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미래로 전승하는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캠프마켓의 가치와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구성하여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도모함.

제3절 필요성 및 활용방안

1. 캠프마켓 아카이브 특성 도출*

국가와 도시의 역사적 변화과정이 담긴 ‘시대성’

- 일제강점기부터 미군 부대 반환까지 한국의 근현대사 흔적이 깃든 현장이며, 그 당시 시대적 이슈에 따라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청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등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일제강점기부터 미군 기지 주둔의 80여 년 시간을 담고 있으며, 최근 반환 논의가 진행되며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됨. 시대적 양상은 늘 변화해왔지만 그 맥락은 이어져 옴
- 캠프마켓 기록물은 한국 근현대 시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적 자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장소성’

-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노역의 아픈 기억, 해방 이후 냉전과 분단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금단의 땅으로, 현재에도 당시의 모습 남아있어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소임.
- 부대 내 건축물과 공간환경 자산들은 세대를 넘어 과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진 역사적 장소가 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 가는 공원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미래의 장소가 될 수 있음.

* 아카이브는 일차적 가치(행정적 가치, 재정적 가치, 법률적 가치)와 이차적 가치(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캠프마켓은 근현대사의 아픔을 내재한 괴리된 공간으로서 현대적인 재해석이 요구되며, 무한의 가능성을 내재한 장소이기에 본 과업에서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역사성, 장소성, 정보성, 확장성이라는 네 가지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사실 기반의 축적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성’

-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구축된 정보는 생산 당시의 목적을 넘어 다양한 이용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정보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음. 이는 그간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가치에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캠프마켓 기록은 당시 사건과 상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자료 역할도 하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정보가 되어 확장적 관점을 가질 수 있음.
-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과 공간적 특징을 새롭게 인지하는 기회를 제공함.

새롭게 창출되는 역사문화자원의 ‘확장성’

- 알려지지 않은 보통 시민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생산·수집하고, 여러 기관과 개인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발굴 및 취합하는 등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일상적 삶의 흔적을 담아내는 저장소의 기능을 수행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격동하는 한국 근현대사의 변화를 담은 기록물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교육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장성을 부여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행할 수 있음.



[그림 10]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가치

2.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필요성

[과거의 흔적 기억] 체계적 기록물 수집·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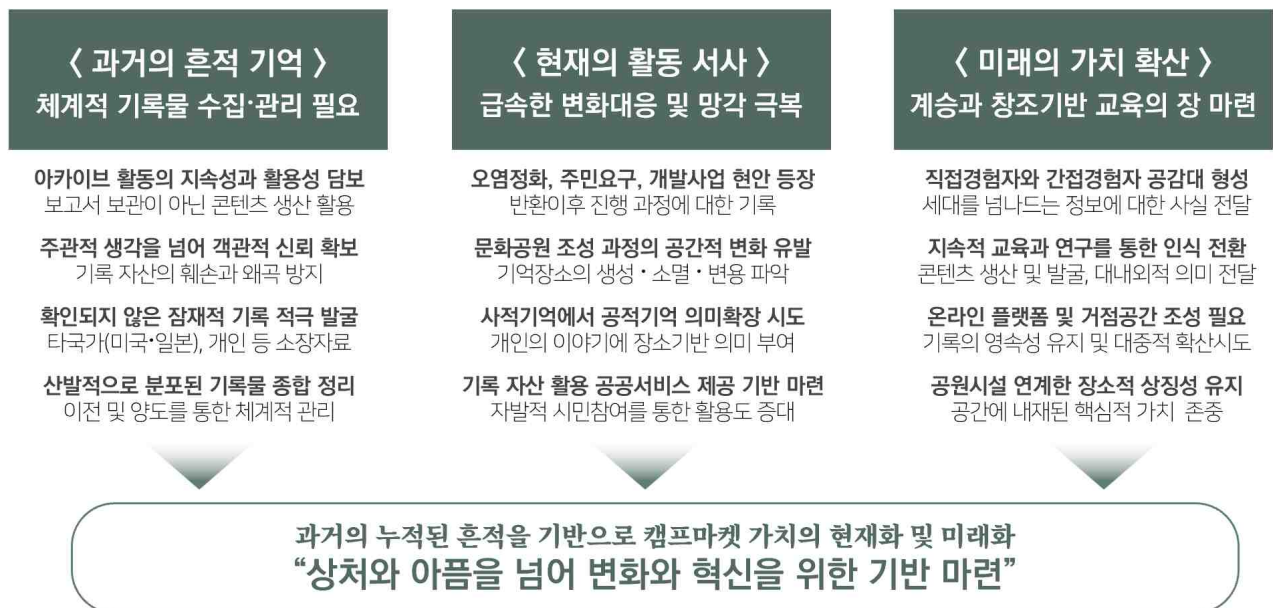
- 아카이브 활동의 지속성과 활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보관을 넘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관적 생각을 넘어 객관적 신뢰를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됨.
- 사진, 영상, 문헌 등 공신력 있는 기록자료를 활용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시대적 요구, 개인적 관심 등 선택적 기록화 작업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별 기록 방식을 전개해야 하고, 이와 연계하여 산발적으로 분포된 기록물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해야 함.

[현재의 활동 서사] 급속한 변화대응 및 망각 극복

- 부지 반환 이후 오염정화, 인근개발 등 현안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공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현재 기록이 필요함.
- 캠프마켓 공간에서 발생한 삶의 이야기는 사적 기억에서 공적 기억으로의 의미가 확장되어야 하고 이는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됨.

[미래의 가치 확산] 계승과 창조기반 교육의 장 마련

- 캠프마켓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발굴하여 대내외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기록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고 대중적인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및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시설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그림 11]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필요성 및 지향점

제4절 아카이브 최신 경향 분석

1.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대두

1.1 디지털 아카이브 확대

-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정보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디지털 정보의 선택, 구분, 목록, 저장, 보존, 접근, 관리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임.
- 아날로그 방식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원자료는 보존이 용이한 수장고에 보관하고, 이용자에게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원자료의 보존과 사용의 편의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음.

-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언제·어디서·누구나 쉽게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고, 전시 및 교육적 활용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음.

1.2 문화영역과의 통합적 연계성 형성

- 최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서 소장한 지식정보 특성과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증대 등으로 인하여 통합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이를 미술관(Galleries),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첫 글자를 합성하여 글램(GLAM)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유사 문화기관의 기능이 다차원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각 기관을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위치시키는 것 이상으로 이들 기관의 인력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1.3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 증대

- 인류는 기억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였고, 전승된 기록은 후대에 축적되고 활용되며 기록문화가 구성되었고,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켜옴. 기록물의 아카이브를 통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넘어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부각할 수 있음.
- 캠프마켓 부지는 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그리고 반환에 이르는 현재까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노동자, 거주민 등의 수많은 주체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동시에 새로운 기억이 생성되는 공간임.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수집·생산·기록함으로써 기록 공동체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



[그림 12] 아카이브 최신 경향 분석

2. 기록물의 기능 및 역할 전환

- 과거 기록물은 소멸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후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고, 이는 사라져가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상징성을 지켜가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음.
 - 수장고, 기록관 등을 통한 영구적 기록물 보존 목적
- 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없으므로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지식과 정보의 교류 목적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
 - 개방형 수장고, 전시관, 박물관 등 보이는 기록물 전환 시도
- 최근에는 더 나아가 함께 만들어 가고 다양한 차원의 교육적 콘텐츠와 결합하여 공감하는 기록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라키비움(Larchiveum), 글램(GLAM)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음.
 -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적극적 참여와 관계를 통한 복합적 효용성 형성



[그림 13] 기록물의 기능 및 역할 전환

제5절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비전

1. 전제 사항

캠프마켓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적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 형성

- 이 땅은 대한제국기 목양사, 일제강점기 부평연습장 · 인천육군조병창,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임.
- 따라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재확인하고, 지나간 날에 대한 세대간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역사적 기억의 계승과 발전을 이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누적된 역사 · 문화 · 생활을 담는 과정

- 현존하는 장소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역사적 기록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을 이해하는 증거가 됨.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과거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는 지속적 아카이브가 되어야 함.

인류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기록문화유산으로의 잠재적 가능성 발굴

- 해당 지역은 대한제국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캠프마켓과 그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기억을 담고 있는 유무형의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되는 공간임.
- 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훼손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미래 가치로 확산할 수 있음.

2. 비전 : 함께 쓰는 역사, 같이 여는 미래⁴¹⁾

캠프마켓 장소가 전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과정 만들기

- 기록물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보존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가치를 계승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됨.
- 이에 인천연구원(2021)에서는 캠프마켓 기록물이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자원이라는 의미로 「함께 쓰는 역사, 같이 여는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함.
- 이는 아카이브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역사가 더 이상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 즉 아카이브는 기억보존과 역사 재현의 당위성을 마련하게 되어 공존과 상생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복합적 효용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
- 「함께 쓰는 역사, 같이 여는 미래, 캠프마켓 아카이브」
 - 캠프마켓 관련된 기록자원을 조사연구,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아카이브를 통해 인근 경관과 시민 삶의 변화를 담아내고, 과거의 경험 축적과 새롭게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들이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어나간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기록물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인천시와 부평구의 지역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음

3. 3대 추진 목표

집적과 생산의 장 마련

- 흩어져 있는 캠프마켓 기록을 집대성하여 수집·관리하는 집성관이자, 사라져 가는 자료를 기록하여 생산하는 자료 생산처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집, 보존, 관리, 연구,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아카이브가 되어야 함.

41) 인천연구원(2021)의 연구에 따르면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시민참여와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구축되는 열린 아카이브 지향해야 하며, 기록화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다시 쓰고 이를 미래의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함께 쓰는 역사, 같이 여는 미래,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비전으로 설정했음.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향성도 이에 동의하고 기본구상 연구와의 연속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서 도출한 비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했음.

표준화와 실천의 장 구축

-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 및 문화적 차원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영구적 자료 보존과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실천적이고 신뢰성을 가진 아카이브가 되어야 함.

재창조와 공감의 장 형성

- 누구나,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재생산과 창의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적 인식을 높이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함.

4. 5대 추진 전략

체계적 수집·보존·관리

-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탄력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특수 업무의 경우 축적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 활동가 연계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아카이브 기능 및 역할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도록 함.
- 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접근·이용, 훼손될 자료의 보존복원, 자료의 유통과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함.

협력관계 시너지 창출

- 공공기관(인천시 타 부서, 부평구, 국가기관)과 연계 기관(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의 변화를 위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함.
- 개인 연구자와 기관(단체) 등 민간조직 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캠프마켓 기록의 허브이자 거점 역할을 이행해야 함.

통합적 운영관리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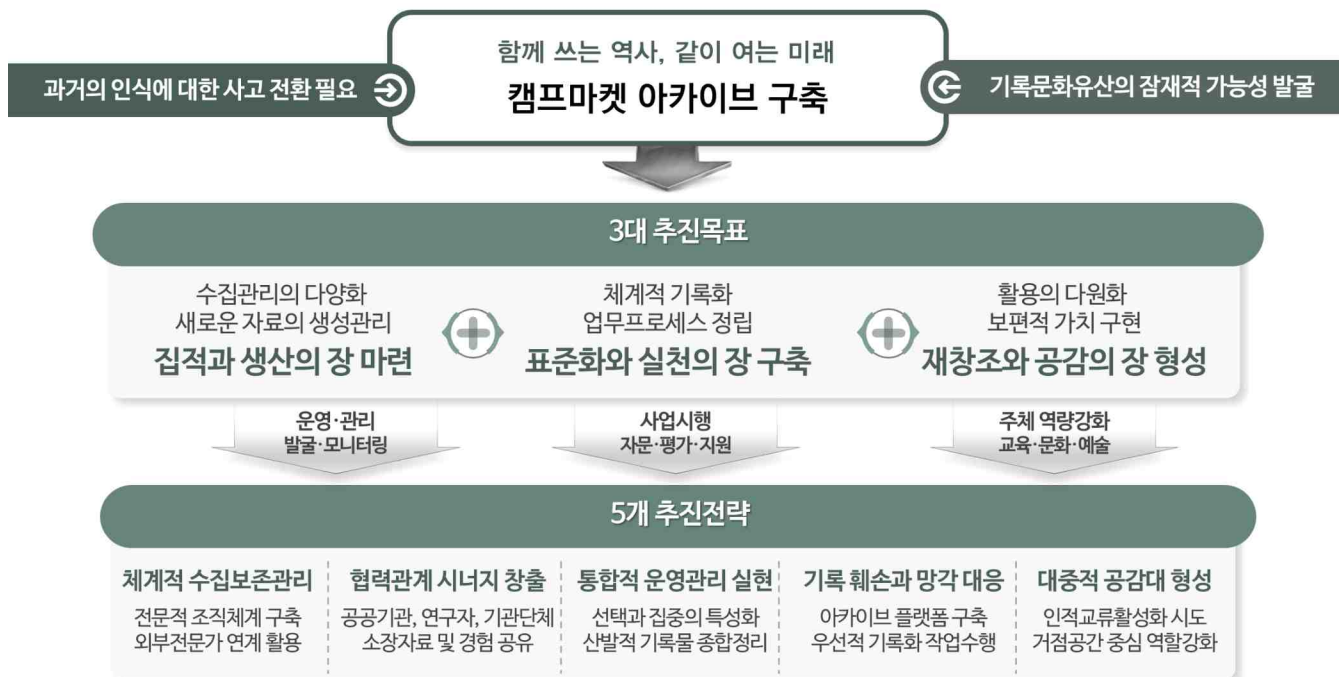
- 중장기적 차원에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운영·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사회적 상황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산발적으로 분포된 기록물 수집·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준을 마련하고, 캠프마켓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

기록 훼손과 망각 대응

- 기록과 자료의 디지털 변환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영구적인 자료 관리를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로의 기록 활용을 구현할 수 있음.
- 과거의 기억 망각과 기록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기록 생성이 중요하며 구술 채록 및 현장 검증 등 우선적 작업을 수행함.

대중적 공감대 형성

-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적 콘텐츠와 결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아카이브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전시, 교육, 체험 등 문화적 활동이 다채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는 향후 조성될 공원과 연계하여 확산될 수 있음.



[그림 14] 캠프마켓 아카이브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5. 미래상

역사적 상징성 보존형 아카이브

- 캠프마켓 일대의 역사와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아카이브로서 한국 근현대사와 부평주민의 생활사를 반영한 아카이브로 정의할 수 있음.
- 캠프마켓 일대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소로써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며, 1990년대 이후 학생, 주민,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부지 반환을 이뤄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역사성을 지님.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반 아카이브

- 기존의 인천시 및 부평구 일대의 기록정보자원 보유·생산기관과 민간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구성함.
- 캠프마켓 직·간접경험자와의 연계 등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아카이브의 원천자료 생성과 지속적 운영관리를 도모함.

참여형 기록 커뮤니티형 아카이브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장소 기반의 역사 아카이브뿐 아니라 일상 아카이브를 추구하며 아카이브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일상을 주민들이 직접 기록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플랫폼(interactive platform)을 마련함.

지역특화 도시 브랜드 확립 아카이브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장소 기반 아카이브로 브랜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인천시와 부평구 일대의 지역사(地域史)와 도시사(都市史)를 캠프마켓 일대의 역사와 일상을 통해 재해석·재맥락화 할 수 있는 기회 도모.

미래지향적 디지털 아카이브

-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더불어 이용자의 쉬운 접근이 가능하고, 디지털화 원문을 공개는 연구·교육·전시 등 활발한 활용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
- 가상 서비스를 통해 캠프마켓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최근 아카이브 동향에 발맞춤과 동시에 장소 기반 아카이브의 새로운 형태를 개척하고 선도함.

지역상생 변화와 혁신 아카이브

- 지역과 단절된 군사용지에서 역사(시간)와 지역(공간)을 잇는 문화자원 허브로의 역할 전환을 통해 혁신을 상징하는 아카이브를 추구함.
- 인천시민 및 부평구민과 인근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



[그림 15]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미래상

04

캠프마켓 기록물의 수집 · 구술 · 생산

제1절 공공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제2절 역사적 사실 확인을 위한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제3절 생활사 조사를 위한 구술 채록

제4절 기록생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제4장 캠프마켓 기록물의 수집 · 구술 · 생산

제1절 공공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1. 개요 및 목적

1.1. 필요성 및 목적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집 방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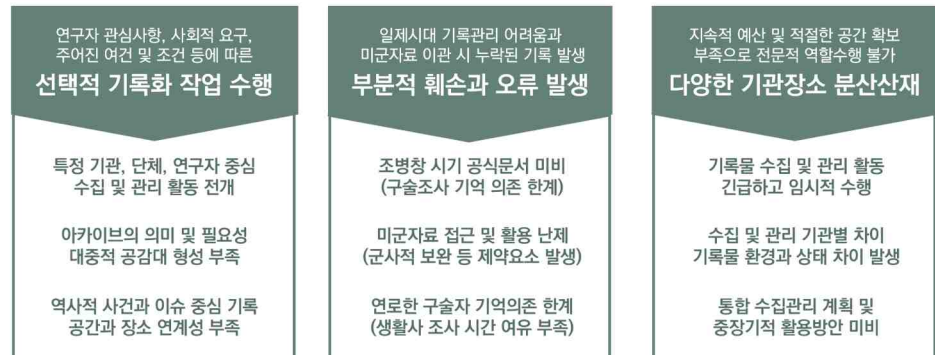
- 연구자 관심 사항, 사회적 요구, 주어진 조건 등 다양한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한 통합적 기록화 작업이 필요함.
- 일제강점기 기록관리의 어려움과 미군 자료 이관 시 누락된 기록이 발생하는 등 부분적 훼손과 오류가 발생함.
- 지속적인 예산 및 적절한 공간 확보 미비로 전문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움. 또한, 관련 기록물들이 다양한 기관 및 장소에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있음.

수집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수집 정책 수립을 통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거나 발굴되지 않은 기록물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캠프마켓 기록 수집의 목적, 범위,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 수집 지침, 제한 사항, 타 기관이나 기록 소장자 협력 방향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함.
- 우선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의 영역을 확인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틀이 되도록 함.

행정기관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전반적 사회상황을 담는 기록물 수집 필요

- 역사적 사건의 전개에 따라 사회적 현상을 담고 있는 기록물은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공공 기록 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하는 민간 기록 수집도 중요함.
- 따라서 행정기록의 영역을 벗어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 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전 영역에서의 기록물 수집이 필요함.
- 특정 사건 및 주제만을 위한 기록 수집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상황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을 마련해야 함.



[그림 16] 수집의 필요성

1.2. 방법

(준비단계) 중장기적 차원의 캠프마켓 기록물 수집 전략 마련

-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목적에 부합한 수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단계임.
- 그간의 기록물 수집 상황 파악을 통해 향후 진행해야 하는 수집 범위, 수집 우선순위, 수집 방법, 관련 법률검토 등 전반적인 수집 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수집단계) 조사연구 사업수행 및 직접 수집작업 실행

- 앞서 파악한 기록자원의 현황을 기준으로 소장처, 기증자 등의 형태를 고려하여 소장자 접촉, 케이스파일 작성, 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함.
-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운반 및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함.

(정리단계)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전문적 보관 수행

- 수집된 기록자원의 물리적 특성, 사회적 의미 파악을 통해 기록물의 분류, 기술, 등록 등을 진행함.
- 수집 이후 지속해서 기증자, 잠재적 소장자, 생산자 정보 등 기록자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표 10〉 수집 단계별 업무

단계	업무	업무내용
수집대상 조사 단계	사전조사	문헌조사, 리드/케이스파일 개발, 리드파일 조직화, 우선 접촉대상 선정, 리드파일 추가조사
	소장자 접촉	소장자 접촉, 현지조사
	조사평가	리드/케이스/수집정보 취합, 평가기준 적용, 수집대상 기록자원 선정, 최종 수집대상 종합정리
수집실행 단계	수집협의	중요 수집대상 결정, 수집절차 및 조건 확인, 수집방식 결정, 비용 및 가격 책정, 수집조건 협의
	수집대상 확정	수집대상 상세 정보취합, 수집평가위원회 선별, 수집확인서 확정
	입수계획 수립 및 실행	입수계획 및 실행, 입수실행, 수집확인서 발행
수집결과 정리 단계	소독 및 상태검사	소독계획 수립, 소독실행, 소독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상태점검 계획 수립, 상태점검 실시
	정리 및 개요목록 작성	정리계획 수립, 물리적/지적 기본정리, 입수 개요목록 작성
	수집결과 보고	수집활동 단계별 결과 취합, 수집결과 보고서 작성

2. 수집 범위

2.1 확인된 기록과 잠재적 기록

작성된 목록을 토대로 확인된 기록과 잠재적 기록 구분

- 크게 확인된 기록과 확인되지 않은(잠재적) 기록으로 구분하여 수집을 진행함
- 확인된 기록(발행물, 연구결과, 이관자료 등)은 생산시점/주체, 소장처, 자료특성을 파악하여 상세분석 및 목록화를 진행함.
 - 공공이 확보한 자료는 인천시, 부평구, 관외기관 등 공공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개인소장, 기관소장, NGO단체가 생산한 자료 등의 민간생산 자료가 있음.
 - 공공확보 자료는 관계자 면담, 공유열람, Raw data 수집 등의 방법으로 민간생산자료는 구술조사, 성과자료 공유, 기증 및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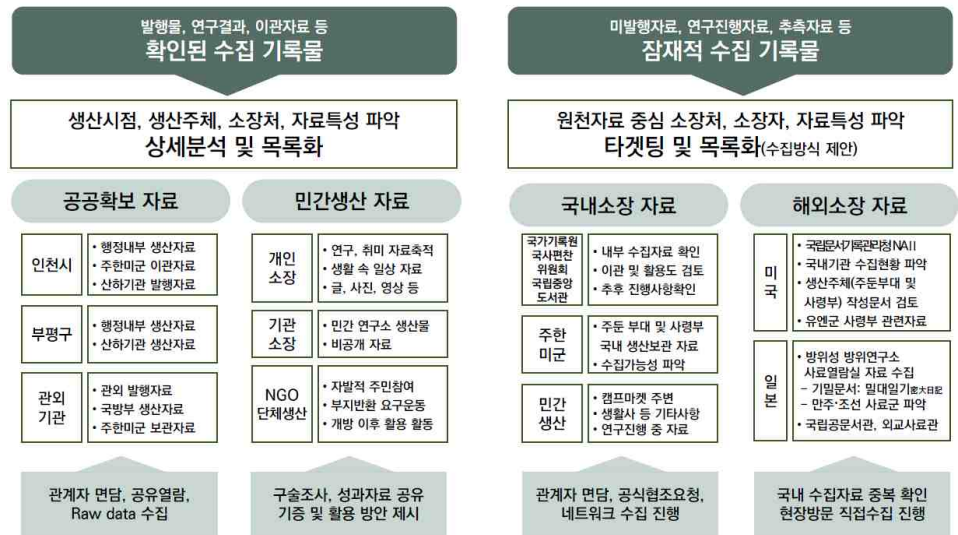
〈표 11〉 확인된 기록(소유 주체별)

구분	주체	관련 자료
공공확보 자료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내부 생산자료 • 주한미군 이관자료 • 산하기관 발행자료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내부 생산자료 • 산하기관 생산자료
	관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외 발행자료 • 국방부 생산자료 • 주한미군 보관자료
민간생산 자료	개인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취미 자료축적 • 생활 속 일상 자료 • 글, 사진, 영상 등
	기관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연구소 생산물 • 비공개 자료
	NGO 단체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주민참여 • 부지반환 요구운동 • 개방 이후 활용 활동

- 잠재적 기록(미발행자료, 연구자료, 추측자료 등)은 원천자료 중심 소장처, 소장자, 자료특성 파악하고 목록화 및 표적화하여 수집방식을 제안함.
 - 국내소장 자료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주한미군, 민간생산자료 등이 있고 해외소장 자료는 미국,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임.
 - 국내소장 자료는 관계자 면담, 공식협조요청, 네트워크 수집으로 진행하고 해외소장 자료는 국내 수집자료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현장방문 및 직접수집을 진행함.

〈표 12〉 잠재적 기록(소유 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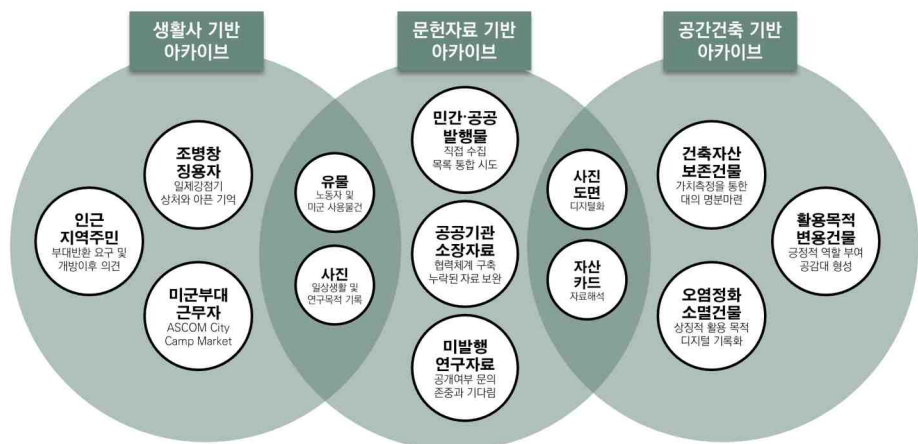
구분	주체	관련 자료
국내소장 자료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수집자료 확인 • 이관 및 활용도 검토 • 추후 진행사항 확인
	주한미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둔 부대 및 사령부 국내 생산보관 자료 • 수집가능성 파악
	관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마켓 주변 • 생활사 등 기타사항 • 연구진행 중 자료
해외소장 자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II⁴²⁾ • 국내기관수집현황파악 • 생산주체(주둔부대 및 사령부)작성문서검토 • 유엔군사령부관련자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성방위연구소 사료열람실 자료 수집 -기밀문서: 밀대일기密大日記 -만주조선 사료군 파악 • 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그림 17] 확인 및 잠재 기록물 수집 전략

생활사, 문헌자료, 공간건축 기록물 3가지 특성 도출

- 생활사 기반 기록물은 조병창 징용자, 미군 부대 근무자, 지역 주민 등 이 땅에 머물던 이들의 일상적 삶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사용하던 물건과 당시의 풍경을 담은 사진을 포함할 수 있음.
- 문헌자료 기반의 기록물은 그간의 행정적 절차에 따른 만들어진 공공기록물,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기 위해 생산한 민간기록물, 전문가들이 연구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된 논문, 보고서 등이 해당함.
- 공간 기반의 기록물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땅의 중요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했던 건물, 도로, 시설 등을 의미하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보존된 건물, 변용된 건물, 그리고 소멸한 건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8] 기록물 유형분석

2.2. 유형별 범위

시간 범위

- 기(既)작성된 연표 및 시기구분을 준수하여 시간적 범위를 설정함. 해방 이전, 미군정기/한국전쟁기, 애스컴시티 시기, 캠프마켓 시기로 나뉘어 범주를 설정함

공간 범위

-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과 인근 지역을 포괄함

주제 범위

- 기존 기록물 통합 목록작업 시 작성한 분류체계를 적용함. 군사관련 주제와 군사 외 일반 주제로 나누어 범위를 설정함.

매체 범위

- 일반문서류, 사진그림류, 영상음성류, 도서간행물류, 카드도면류, 박물류, 전자기록물류로 범위를 설정함.

〈표 13〉 수집 범위

구분	대상	
포괄적 수집 대상	캠프마켓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역사기록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소장가치가 뚜렷한 것	
시간 범위 대상	해방 이전	대한제국기 목양사/ 일제강점기 육군연습장 /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미군정기 한국전쟁기	ASCOM 24 임시주둔기 / 한국군 주둔기/ 한국전쟁기
	애스컴시티 시기	애스컴시티 재편성기 / 애스컴시티 해체기
	캠프마켓 시기	CAMP MARKET 잔존기/ 미군철수 부지반환 운동기 / 부지반환기 / 부지개방 이후 활용기
공간 범위 대상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지역과 주변	
주제 범위 대상	일반	정치/행정, 사회/생활, 경제/산업 교육/문화/예술, 복지/환경
	군사 관련	군사 일반행정, 군사 인물, 군사 물품/장비/보급 군사 운송/교통, 군사 건축/토목 군사 의료/위생/복지, 군사 전투, 군사 전투지원
매체 범위 대상	일반문서류 / 사진그림류 / 영상음성류 / 도서간행물류 / 카드도면류 / 박물류/ 전자기록물류	

3. 수집 기준 및 원칙

3.1. 우선 수집대상 도출 근거

기록물 수집을 위한 객관적 지표

- 합목적성, 대표성, 원본성/진위성, 유일성/희소성, 정확성/완결성, 예술성, 대중성, 활용성, 시급성, 효용성, 협조성 등의 기준항목을 설정함.

〈표 14〉 캠프마켓 관련 기록 수집 우선순위 기준항목

기준항목	세부 내용
합목적성	캠프마켓 아카이브 목적과 부합되는 것
대표성	캠프마켓의 문화 및 역사발전 기여도, 당대의 대표성, 당대 예술사에 끼친 영향력이 높은 것
원본성/진위성	복제본이 아닌 원본과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 진위성을 갖고 있는 것
유일성/희소성	다른 기록을 이해하는데 원본이거나 희소 정도가 높은 것
정확성/완결성	담겨진 내용이 정확하면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완결성이 높은 것
예술성	예술적 완성도와 독창성이 높은 것
대중성	대중적 관심도가 높고 당대 이슈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
활용성	현재 및 미래의 이용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은 것
시급성	지속 정도와 자료 소장자의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집이 시급한 것
효용성	수집·관리의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것
협조성	수집이후, 사후관리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

3.2. 우선 수집대상

선정기준을 토대로 시기/주제/매체별 대상 제안

- 기준항목을 토대로 7가지 선정기준을 선정함.
- 선정기준에 따라 시기, 주제, 매체별로 우선 수집대상을 제안함.

〈표 15〉 선정기준별 우선 수집대상

선정기준 (적용한 기준항목)	우선 수집대상		
	시기별	주제별	매체별
아카이브 목적성과 관련이 높은 자료 (함목적성, 대표성)	• 근현대(1890년 이후)	• 캠프마켓 및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문화, 기억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기록물	• 문서, 그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매체
타수집기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기록과 연계가능한 기록물 (관내 타 수집기관 소장자료 포함) (활용성, 협조성, 효율성)	•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시기 • 애스컴시티 재편성기 시기 (비교적 많이 수집된 시기)	• 군사 관련 • 인근지역 생활사 관련	• 박물관
적기에 수집되지 않을 경우 유실될 위험이 있는 기록물 (시급성, 원본성/진위성)	• 미군정기, 한국전쟁기의 인물	• 군사 관련 주제 • 인근지역 생활사(복지/환경, 사회/생활)	• 건축부재 및 박물관 • 개인 소장의 사진그림류/영상류(시민이 생산/보관하는 기록)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기록물 (활용성, 협조성)	• 인천육군조병창시기 (비교적 연구가 많이 된 시기) •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시기 (연구가 많지 않은 시기)	• 군사 전략, 군사 건축, 군사 의료 • 사회/생활, 경제/산업	• 도면,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건을 다양한 주체와 관점으로 조명하는 기록 (원본성)	• ASCOM 24 임시주둔기, 한국군 주둔기, 한국전쟁기 관련 시민 구술/기록물		• 기존 인터뷰 내용과 연결된 시각 자료(사진, 그림 등)
비교적 조명되지 않았던 기록 (유일성/희소성)	• 한국군 주둔기	• 부지반환기의 인천시민 • 미군 위안부 • 외국기관 노동자 (외기노조)	• 음성류/영상류(구술) • 자필문서 • 증빙서류 등 공공기록물
형식적/구조적으로 특이한 기록 (원본성/진위성, 예술성, 대중성, 정확성/완결성, 원본성/진위성)			• 일반문서류: 자필문서 • 전자기록물류: 웹, SNS

수집 유의사항

• 타 기관과의 중복 수집

- 타 기관에게 납본·구매·기증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입수되고 있는 기록물이 라면 중복 수집을 피해야 한다. 만일 수집된 기록물이 타 기관에서의 체계적인 입수 대상이라면 기증자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인계될 수도 있음. 이를 위해 타 기관과 정기적인 수집사항 정보의 교환이 필요함

- 안정화된 완전성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불안정한 매체를 기반으로 하거나 맥락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불완전한 기록물의 수집은 피해야 함

3.3. 단계별 수집 제안

단계별 수집 대상 설정

- 현재 소실될 가능성이 높거나 타수집기관과 연계가능한 기록물은 1순위, 기존 연구와 연계가능하거나 연구자의 수요가 높은 기록물은 2순위, 비교적 덜 조명되었던 시기/주제/매체별 기록물은 3순위로 선정함.

〈표 16〉 유형별 우선 수집대상

유형	우선 수집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시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미군정기, 한국전쟁기의 인물 • 타수집기관과 연계가능한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시기, 애스컴시티 재편성기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구와 연계가능한 인천육군조병창 시기 • 기존 연구가 비교적 적은 애스컴시티/캠프마켓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덜 조명되었던 한국군 주둔기
주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군사 및 지역생활사 주제 • 타수집기관과 연계가능한 군사 및 지역생활사 관련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요가 높은 군사 관련 주제(군사 전략/건축/의료) • 연구수요가 높은 일반 주제(사회/생활, 경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덜 조명되었던 부지반환기의 시민단체, 미군주둔 시기의 위안부 및 외국기관 노동조합
매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부재 및 박물관, 개인소장 사진그림류 및 영상류 • 타수집기관과 연계가능한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요가 높은 건축도면, 관리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덜 다뤄지고 형식적으로 특이한 음성/영상류, 자필문서, 전자기록물, 공공문서 등

4. 수집 방법

4.1 소장처 특성에 따른 수집방식

- 기록 생산주체 및 소장 주체(개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사업부서별)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수집, 기획 수집, 개인 수집 등 적합한 수집 방법을 설정함.



[그림 19] 소유 주체에 따른 수집 방법 개념도

〈표 17〉 수집방법 및 해당주체

방법	네트워크 수집	기획 수집	개인 수집
해당 주체	관계기관 및 조직	특정 주체 및 주체	관련 개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연관되어 있는 조직/기관 네트워크 형성 조직 및 기관이 보유하는 기록자원 및 목록 수집, 공유 활동 공유기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연관되어 있는 조직/기관 네트워크 형성 조직 및 기관이 보유하는 기록자원 및 목록 수집, 공유 활동 공유기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벤트 및 서비스 포털 활용 일반시민과 활동가 직접 기증/등록 유도 기증자 표기 및 증서 등 예우 진행

- 기록유형의 특성에 따라 실물수집, 링크수집, 목록수집의 방식으로 수집함.
 -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사물은 최대한 실물 수집을 고려함
 - SNS 및 기관포털 등의 온라인 자료는 링크 수집 방식을 진행함
 - 목록을 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의 경우는 기록정보가 담긴 목록 수집을 진행함



[그림 20] 기록유형에 따른 수집 방식

4.2 소유권 관련 입수 방법

- 소장처의 특성 및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입수방법을 적용해야함. 입수 방법별 기록 소유권, 보관권,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인천시의 상황에 맞는 방법 고려가 필요함.
 - 자료공유 : 인천시 소속 외 타 수집기관 소장자료가 많은 상황시 고려해야할 방법
 - 생산/구술 : 물리적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기록생산이 필요한 시점임. 특정시기에 대한 유일한 경험자 및 연로한 구술자의 경우 구술 채록을 우선 진행함
 - 구입 : 개인 소장자료가 많은 캠프마켓 관련 기록의 특성상 고려해야할 방법임

〈표 18〉 상황별 입수 방법

	기증	위탁	이관/인수	자료공유	생산/구술	구입
설명	보상 없이 법적/물리적 보관권 이전 '자발적 기증', '권유 기증'	소유권 양도없이 물리적 이동(책임권한 위임) '위탁계약서 작성'	신뢰기반 기관 간의 협정·협약(법적 강제력 無) '성문화된 협정서'	자료이용 서비스 권한 이양(기관협력 : 저작권 검토) '링크기능 제공'	외부자료 획득방법 직접생산 및 수집 기술조사 시행	합의에 의한 보상 법적, 물리적 보관권 이전 '가격조정, 가치평가'
소유권	확보	미확보		서비스 이용권 확보	확보	확보
보관권	확보	확보	확보	없음	확보	확보
예산/보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사업예산	협의를 통한 보상
적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증 이후 세밀한 법적 절차구현 필요(이용권, 저작권 성문화 진행) 잠재적 기증자 외연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기록관 등 거점공간을 통한 방문자 자발적 기증 유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보관장소가 부족한 단체 및 개인의 경우, 계약을 통한 위탁 권유 가능 위탁계약서 내 처분권한, 관리권한, 이용권한에 내용 포함 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방법론 상호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수집 방지 기관대표자 직접 협의 진행, 정기적인 협약 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관기관의 이용자 유입이 증가하여 이를 통한 자료의 교환과 기증이 뒤따를 수 있음 지역내 인천시 소속 외 타 수집기관 소장자료가 많은 상황시 고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 적극적인 현재 상황의 기록생산이 필요 특정시기 유일한 경험자 및 연료한 구술자의 경우 구술 채록 우선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 절차 수립과 평가위원회 구성 필요(내부규정과 조직환경 고려) 개인소장자료가 많은 캠프마켓 관련 기록의 특성상 중요한 방법

5. 수집 실행 매뉴얼

5.1. 수집대상 조사 단계

사전조사

- 업무 설명
 - 수집업무 담당자가 수집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문서 및 자료를 구비·조사하여 수집실행을 준비하는 업무임
- 업무 목적
 - 수집업무 담당자가 수집활동의 실행에 앞서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확정하기 위한 조사단계임
- 업무 주요내용
 - 문헌조사 :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과 연계된 내용이 실려 있는 문헌의 정보를 분석
 - 리드⁴³⁾·케이스파일⁴⁴⁾·45) 개발 : 수집가치가 높거나 수집가능성이 높은 수집대상을 탐색, 접촉하기 위한 정보 개발, 구체적인 접촉대상과의 관련 진행사항을 항목별로 취합, 정리
 - 리드파일 조직화 : 목록 작성, 관계도 작성, 서식 작성
 - 우선 접촉대상 선정 : 취합/분석/정리된 리드파일과 정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접촉할 리드를 선정, 현실적인 수집 가능성 및 기록의 가치·완전성을 최우선으로

43) 잠재적 수집물의 소장자 또는 정보제공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연혁 등에 관한 정보

44) 특정한 사건, 인물, 단체, 프로젝트별로 관련 사항이나 전후 경과를 축적한 정보

45) 부록9 [서식 01] 참고

로 고려하여 소장자의 제공 가능성이 높은 출처에 우선 접촉, 기록물의 소재와 수집일정,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집대상의 근접도가 높은 자원을 우선 접촉

- 리드 파일 추가 조사 : 문헌조사 보완, 관련자 접촉정보 보완, 이메일 문의 등 구체적 조사 완성

소장자 접촉

• 업무 설명

- 기록물 소장자 접촉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 접촉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소장자 및 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함

• 업무 목적

- 자원 소장자, 리드 소개자 등을 접촉하여 적극적인 수집실행을 준비함

• 업무 주요내용

- 소장자 접촉 : 예비접촉, 사전 조사에서 선정한 우선적인 접촉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향후의 수집 및 접촉 계획을 보충수정, 협상과 현지조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향후의 수집 및 접촉 계획을 보충수정
- 현지조사 : 문헌으로 정리되지 못한 주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실시하고 리드파일 서식 항목에 미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며 문헌상의 오류를 수정, 자원 소장자에 대한 정보 파악, 자원 소장자에게 자원 정보 파악, 자원 소장자에게 자원 입수방식 파악, 자원 소장자에게 자원이 부여하는 가치 파악, 자원소장자 입장에서 기록물에 대한 애착 파악 (향후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연결), 원질서 원칙에 따른 분류방식 파악, 추가적인 계획 확보, 현지조사보고서⁴⁶⁾ 작성

조사평가

• 업무 설명

- 소장자 접촉시 업무담당자가 수집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하는 업무임

• 업무 목적

- 추후 수집의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1차적 판단 근거로 사용됨

• 업무 주요내용

- 리드/케이스/수집대상 정보 취합 : 사전조사 및 소장자 접촉 단계에서 수립한 리드/케이스/수집대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정리함
- 평가기준 적용 : 캠프마켓 관련 평가 기준 항목별로 평점을 매겨 평가, 현실성 있는지 평가, 가치 부여 평가, 유용성 평가
- 수집대상 선정
- 수집대상 종합정리 : 수집대상 평가 내용을 토대로 수집 실행할 대상을 목록화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함, 조사평가서⁴⁷⁾ 작성

46) 부록9 [서식 03] 참고

5.2. 수집실행 단계

수집협의

- 업무 설명
 - 기록물에 대한 소장자 및 문화활동 실연자에게 수집·생산의 절차 및 조건을 설명하고 수집방식 및 수집조건을 협의하는 업무임
- 업무 목적
 - 수집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문화자원 수집물 및 생산물의 실체와 그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 업무 주요내용
 - 중요 수집대상 결정 : 수집 기대효과와 수집 가능성이 높은 기록을 결정, 해당 기록물 소장자와의 수집협의를 우선 진행
 - 수집절차 및 조건설명 : 수집절차의 진행과정과 과정별 참여자와 준비사항을 설명, 수집방식 및 조건별 기대효과, 영향을 설명
 - 수집방식 결정 : 기록물의 직접 수집 또는 기록화 생산 방식 중 결정, 해당 기록물 및 기록활동의 맥락을 드러내는 방식을 분석하여 결정, 수집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기증, 위탁, 촬영, 실측 등 세부 방식 결정
 - 수집조건 협의 : 수집물 또는 생산물의 물적 권한 귀속처를 협의, 등가적 대가의 교환이라는 개념은 지양, 협의사항의 문서화 필수

수집대상 확정

- 업무 설명
 - 수집대상 조사 및 수집협이가 이뤄진 기록자원 중 캠프마켓 아카이브측에서 수집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업무임.
- 업무 목적
 - 수집대상의 상세정보를 확보 또는 작성하여 수집 상세범위를 확정하는데 기여하며, 향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
- 업무 주요내용
 - 수집대상 상세정보 취합 : 수집대상 기록물의 상태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들을 수집대상자에게서 확보 또는 직접 작성, 개별 건정보는 향후 등록시 식별정보로 활용되므로 되도록 확보
 - 수집평가위원회 선별 : 해당 기록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 수집대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기록물의 가치를 선별
 - 수집확인서 확정 : 수집증서와 수집협약서, 수집확인서의 관련 내용 부분을 수정 및 확정, 수집여부가 협의수락된 문화자원의 명확한 대상을 명시

입수계획 수립 및 실행

- 업무 설명
 - 수집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기록물을 입수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업무
- 업무 목적
 - 확정된 기록물을 입수하기 위한 협의와 실행을 진행하고, 수집 대상으로 합의된 기록물을 확보하여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핵심 업무대상으로 규정함
- 업무 주요내용
 - 입수준비 계획 및 협의 : 입수업무 수행을 위해 준비관측과 수집대상자가 일정, 방식 등을 협의하여 계획수립, 입수준비를 위한 상자편성 및 매체수록, 입수환경 점검 실시
 - 입수실행 : 수립된 계획에 맞춰 관련 사항 최종 점검 실시, 차량 적재 및 이동시 입수업무 담당자 동승 원칙
 - 수집확인서 발행 : 합의된 입수대상이 실제로 이송되었는지 확인후 인계인수서 교환, 변경된 사항까지 반영한 수집확인서를 수집대상자에게 발행

5.3. 수집결과 정리

소독 및 상태검사

- 업무 설명
 - 캠프마켓 아카이브가 소장한 기록물에 대해 시간의 경과나,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질의 외형상 변화, 훼손열화 상태를 파악하고 보존처리를 하는 업무
- 업무 목적
 - 기록의 가치 보존, 위험방지, 파손 · 손상 등에 대한 발견 및 최적의 상태로의 가치보존을 위한
- 업무 주요내용
 - 소독계획 수립 : 입수 문화자원의 종류 및 특성 파악, 문화자원별 소독 계획 수립 후 방법 결정
 - 소독 실행 : 정기소독, 상시(비치형) 소독
 - 소독처리 결과보고서⁴⁸⁾ 작성 : 기록물의 소독처리 완료 후 처리결과를 확인, 처리결과 및 향후 소독처리 계획 작성
 - 상태점검 계획 수립 : 상태점검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상태점검계획서⁴⁹⁾ 작성, 상태점검계획을 확인한 후 상태검사 방법 등 파악
 - 상태점검 실시 : 전문가에 의한 기록물의 실태 확인·점검, 훼손상태검사 실시 및 등급화(기록물의 상태 검사 기준(표)를 참조), 기록물별 상태검사조사표 작성

48) 부록9 [서식 04] 참고

49) 부록9 [서식 05] 참고

정리 및 개요목록 작성

- 업무 설명
 - 캠프마켓 아카이브 내에 입수된 기록자원 내의 문건, 시청각류, 박물류, 도서 등의 유형을 선정하여,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입수대상의 개요정보를 취합 또는 작성하여 배치하는 업무임
- 업무 목적
 - 기록의 기본적인 관리 및 활용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업무 주요내용
 - 정리계획 수립 : 기록물의 정리 계획 수립, 기록물 정리계획서 작성
 - 물리적/지적 기본 정리 : 기록물의 정리 단위 선정, 배치 방법 결정, 수장고 선정, 정리단계의 보존처리 확인, 기록 유형별 정리
 - 입수 개요목록⁵⁰⁾ 작성 : 입수대상의 내용/특성 및 상태를 포괄적으로 기술, 입수 개요목록을 캠프마켓 아카이브 측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을 경우 첨부하여 활용

수집결과 보고

- 업무 설명
 - 개별 수집활동이 완료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업무임
- 업무 목적
 - 실제 수집이 이뤄진 단위별로 수집대상 조사부터 수집결과 정리 단계까지의 주요 진행 사항과 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수집활동의 증빙 및 향후 수집활동의 참고에 기여함
- 업무 주요내용
 - 수집활동 단계별 결과 취합 : 수집활동 단계별 이용 서식의 내용을 확인, 수집결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 확인
 - 수집결과 보고서⁵¹⁾ 작성 : 수집활동 단계별 중요 내용과 수집협약서의 중요 내용을 취합, 수집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도출

50) 부록9 [서식 06] 참고

51) 부록9 [서식 07] 참고

제2절 역사적 사실 확인을 위한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1. 방향 설정

1.1 목적 및 필요성

땅의 용도와 주체의 다양화에 따라 공간적 특성 파악의 어려움 내재

- 캠프마켓 부지는 일본군과 미군 주둔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으로, 일본군의 육군연습장을 시작으로 인천육군조병창이 건립됐고, 그 이후 군수물자와 장비를 보관하는 대규모 병참시설과 미군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함.
- 잠시 한국 정부에 귀속된 적도 있었지만, 한국전쟁 발생 이후 UN연합군이 주둔했고, 정전협정 이후에는 대부분 미군이 공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장소의 형태(확장-축소-해제-폐쇄)와 점유관리 주체(일본-미군-한국군-미군-국방부-인천시)의 변화가 지속해서 이루어진 땅
- 따라서 캠프마켓 대상지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위해서는 국내 자료뿐 아니라 주둔했던 국가들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을 살펴보아야 함.

급변하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맥락적 이해 요구

- 캠프마켓은 일본군, 미군 주둔의 역사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으며, 시대별로 각 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부대의 설치와 해체에 대하여 직접 생산한 공신력 있는 문서를 통해 시기, 장소, 주제, 규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함
- 현재 국내에서 연구된 정보들은 파편화되어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파악은 경험자 구술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지속적 자료발굴 요구
- 땅을 둘러싼 주체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달라진 것은 한국 근현대사의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맥락적 이해도 중요함.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계하여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기관에서 해외 소장 한국 자료 수집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가운데 캠프마켓 관련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한 이후 향후 수집 정책과 서비스 방향을 결정해야 함.
- 미국 국립문서관리청이 관련된 자료 다수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패전 이후 대부분의 기록물을 은폐·폐기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소장 기록물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육군조병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인천육군조병창을 포함한 총 8개 조병창⁵²⁾에 대한 관련 자료의 검토가 중요함.

해외자료를 활용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시도

- 해외 자료 수집 시 사진, 영상 등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자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도록 해야 함.
- 올바른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생산 및 활용은 시민들에게 전달력 강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미군, 국방부 등이 소장하는 있는 비공개 기록물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 콘텐츠화를 통한 대중적 공개를 시행하도록 함.

땅의 용도와 주체의 다양화 공간의 변화과정 파악	급변하는 시대상황 맥락적 이해 요구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적절한 활용 실현	대중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시도
일본군 및 미군 주둔의 역사 기능 및 역할, 설치 ⇒ 해체	파편적 정보, 구술 의존 한계 공신력 있는 자료 필요성 대두	국편 등에서 수집된 해외자료 효율적, 지속적 활용 가능성 마련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 확보를 통한 전달력 강화

[그림 21]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의 필요성

1.2 자료조사 및 수집 과정

(1단계) 국내 소장된 해외 소장 기록물 현황 파악

- 국내 기록물 수집 전문가들은 매년 ‘사료 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수집 지역 및 수집 대상 시기를 결정하고 있음.
- 특히 해외 기록물 직접 수집하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보존처 등은 민간의 수집·조사위원을 위촉하여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사업을 진행함.
- 이에 따라 국내 기관이 이미 수집한 해외자료에 대한 1차 조사 및 정리를 한 이후 해외 소장 자료의 조사 및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등은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정리 진행
 - 이들 기관끼리 중복해서 수집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교차 검토 진행 필요
 - 한국전쟁 영상을 수집하는 한국근현대영상아카이브, 한국영상자료원도 포함 가능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수집한 해외 소장 기록물 중 캠프마켓(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관련 자료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 중요함.

(2단계) 미수집 및 재수집 자료 구분

-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별 해제작업을 수행하여 미수집 혹은 재수집 등 적정성을 판단하여 표적화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음.
 - 문서, 사진, 지도, 영상 등 국내 소장된 해외자료 현황 파악 목록 작성
 - 국내 기관이 수집한 해외 소장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주요 내용 해제작업 수행
 -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목, 기록 매체, 관련성, 자료유형, 우선순위 등 작성

- 국가기록원은 해외조사위원과 민간기록조사위원 위촉
-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외 사료조사위원 11개국 34명 규모로 운영
- 보존처는 국내 10명, 해외 30명 규모 사료수집 위원 시스템 운영
- 국사편찬위원회는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전쟁 및 군사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민간위원인 국외자료수집원 운영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https://www.nl.go.kr/>)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https://www.archives.gov/>)
-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https://www.jacar.go.jp/korean/index.html>)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https://www.ndl.go.jp/ko/index.html>)

52) 일본 내에는 도쿄(東京) 제1, 도쿄 제2, 사가미(相模),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고쿠라(小倉) 조병창 등이 있었고, 해외에 인천육군조병창과 중국 봉천의 남만(南滿) 조병창이 설치되었음

- 수집된 해외 소장 기록물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시회, 책자제작 등 문화콘텐츠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함.
-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의 경우 저화질이거나 흑백으로 스캔 되어 있어, 전시 및 출판 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3단계)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전략 마련

- 캠프마켓 기록물은 주제, 시기, 주제,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생산한 주체(미국, 일본 등)의 기록 전문기관에서 직접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국내 자료 현황 파악을 통해 도출한 미수집, 재수집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 시기, 체류 기간, 조사방법, 지원예산 등 해외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함.
 - 국내 소장 해외 소장 기록물(76건) 가운데 재수집 필요자료 우선적 진행
 - 수집범위 : 시기(1890년 이후 근현대), 대상(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등), 유형(문서, 도면, 지도, 사진, 영상, 음성 등)
- 미국 국립문서관리청(NARA), 일본 국립공문서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함.
 - 해외 소장 기록물은 영국, 대만 등 분산되어 있으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조사 필요
- 역사적 맥락, 검색 키워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역사적으로 수집·활용·보존이 중요한 자료의 경우 우선적으로 진행함.
- 한정된 예산과 기간으로 모든 해외 소장 기록물을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산, 의정부, 평택 등 미군 반환 부지 이슈가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장기적 차원의 자료 수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료 수집 연계 모색

(4단계) 해외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해제번역

-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전담인력이 미국 국립문서관리청,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 현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스캔, 복사, 촬영 등 작업을 진행함.
 - 기록물 유형에 따라 스캐닝, 인코딩, 촬영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하고, 수집 조건으로 해상도(300dpi 이상), 컬러, 포맷(JPG) 등을 명시해야 함
 -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으로 수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연속된 수집이 진행되도록 축적된 경험을 다음 연구자에게 전달
- 조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전시활용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캠프마켓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
- 수집된 자료를 종류별(문서, 사진, 영상 등)로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선별된 중요자료의 경우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국립문서관리청(NARA)
· 일본: 국립공문서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외무성 외교사료관 등
· 영국, 대만 등 2차 세계대전 관련 국가 및 기관 범위 확장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8601 Adelphi Road, College Park, MD
· 일본 국립공문서관
千代田区永田町1-10-1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도쿄관) 千代田区永田町1-10-1
(간사이관) 京都府相楽郡精華町精華台8-1-3



[그림 22] 해외 소장 기록물 조사 및 수집 방법

2.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방법

2.1 해외 전문기관의 이해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⁵³⁾

○ 기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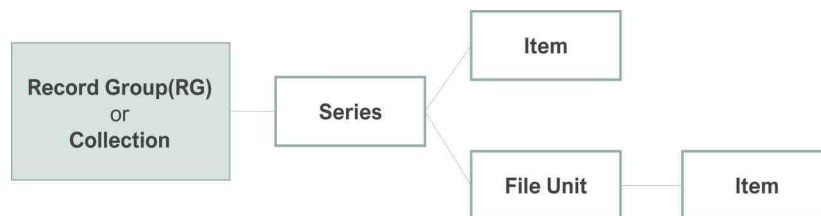
- NARA는 기관 산하에 분관(Research Facility) 16개소, 연방기록센터(Federal Records Center) 18개소, 대통령도서관(Presidential Library) 16개소가 있음.
 - 1900년 이후 미군과 각 부처, 각종 위원회, 개인 기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함
- NARA 산하의 아카이브 기관 중 미군 관련 기록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NARAⅡ(Archives Ⅱ)는 메릴랜드 주(州) 칼리지 파크(College park)에 소재하고 있음.
 - NARAⅠ과 NARAⅡ 모두 군사 관련 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나, 비교적 NARAⅠ은 1900년대 이전, NARAⅡ는 1900년대 이후의 군 관련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군사 관련 문건은 NARAⅡ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하도록 함
- NARAⅡ의 군 관련 기록물의 경우 행정부에서 이관된 기록물, 1900년 이후 생성된 국방부와 전쟁성(現 육군성)의 부서와 부대, 각종 특별 사령부 등을 포함하고 있음. 민간기록물은 1900년 이후 연방 부서와 주의 각 부서 내 국(局)에 의해 생산된 자료들임.
 - NARA Ⅱ는 문서기록 100억 페이지, 도면 등의 이미지 1,200만 장, 사진 2,500만 장, 항공사진 2,400만 장, 영상필름 30만 릴 등의 자료 소장함
- 캠프마켓을 비롯한 한국 내 일본군, 미군기지 관련 부대와 한국정부, 군 자료까지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관련된 역대 미 대통령이나 주요 군 관

53) NARA(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

련 · 정치 관련 인물들의 활동 및 부평을 비롯한 인천 시민의 삶을 추적해볼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문서 구조

- NARA의 문서구조는 ‘복잡한 거미줄’에 비유할 수 있으며, 문서의 구조(hierarchy)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서군(Record Group, 약칭 RG): 생산기관의 원칙 적용 번호이며, 일반적으로 국(局) 또는 독립기관의 기록물들은 RG 001부터 RG 584까지 번호가 매겨짐
 - 시리즈(Series): 부서 또는 주제별로 세분화(유형, 기능, 활동, 주제 구분)
 - 엔트리(Entry): 시리즈에 지정된 일련번호
 - 상자(Box): 폴더와 아이템(건)을 담아 보관한 보존상자
 - 파일/폴더(File/Folder): 기록물철
 - 건(Item): 개별 기록물
- 이외에도 기관에서 기록물에 부여한 NA 식별자(National Archives Identifier; NAI)를 함께 기입하면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며, 특히 최근 NARA에서 온라인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하면서 NAI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림 23]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 구조 도해

2)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防衛省 防衛研究所)

○ 기관 개요

- 메이지(明治; 1867~1912년 일본의 연호) 이후 일본 육해군이 생산한 공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는 크게 육군과 해군으로 나뉨.
- 육군대일기류 41개 자료군, 육군일반사료 8개 자료군, 해군공문비고류 2개 자료군, 해군일반사료 7개 자료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방위연구소는 미국에서 반환된 ‘노획문서⁵⁴⁾’, 전후 후생성 복원국(厚生省 復員局)이 정리 보관하고 있던 자료, 방위연구소 직접 수집 자료, 메이지 시대 이래 舊 육해군 공문서류 등 약 16만 7,000권에 달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이 중 육군 관련 사료는 약 5만 9,000권, 해군 관련 사료가 약 4만 1,000권, 전사 관련 도서가 약 6만 7,000권 규모로 파악됨.
-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는 방위연구소 소장 자료 중 디지털화된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54) 종전 당시 대부분의 자료가 소각되었으며 미국 국무성이 일본의 군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1958년에 일본으로 반환한 바 있으며, 이 자료는 전후(戰後) 후생성 복원국(厚生省 復員局, 현 육군성)이 정리하여 보관하였음

-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다수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9〉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문서군과 주요 내용

문서군	주요내용	비고
육군관계사료	육군성 보존의 육군성대일기류(~1945), 각 전쟁(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작전기록, 육군의 법령, 부대, 인사 등의 군사행정 관련 자료	부대현황, 조병창 관련 자료
해군관계사료	해군성 보존의 공문서류(~1937), 만주사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작전기록, 해군부대, 함선, 기술, 군비군축과 인사행정 기록	부대현황, 인천항 일대 해군 관련 자료

○ 문서 구조

- [육군] 전쟁(무진 · 서남 · 청일 · 러일 · 1차세계대전 · 시베리아출병 · 서진), 중앙(전반 · 전쟁지도 · 작전지도 · 군사행정 · 군대교육 · 부대역사 · 종전처리 · 기관지 · 잡지), 본토, 북동, 오키나와 · 대만, 만주, 중국, 남서, 필리핀, 호주북부, 중부태평양, 남동, 육군항공, 문고 등(육군대일기류(陸軍大日記類) 41분류, 육군일반사료(陸軍一般史料) 8분류).
- [해군] 중앙, 전사, 대동아전쟁, 함선 · 육상부대, 항공부대, 기술, 교육, 참고, 문고 등(해군공문비고류(海軍公文備考類) 2분류, 해군일반사료(海軍一般史料) 7분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메릴랜드 주 칼리지 파크의 국립공문서관 2관
 (National Archives II at College Park, MD NAII)

문서기록 100억 페이지, 도면 등의 이미지 1,200만 장
 사진 2,500만 장, 항공사진 2,400만 장, 영상필름 30만 릴

문서구조

문서군(Record Group, RG)
 • 생산기관의 원칙 적용 번호 : RG001~RG584

시리즈(Series)
 • 부서 또는 주제별 세분화(유형, 기능, 활동, 주제 구분)

엔트리(Entry) 번호 시리즈에 지정된 일련번호

상자(Box) 번호 폴더와 건물 담야 포장된 보존상자

파일/폴더(File/Folder) 상자안에 들어 있는 폴더

건(Item) 문서한장

캠프마켓 관련 문서, 사진, 도면, 영상 등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핵심자료 소장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防衛省 防衛研究所

메이지 시기 이래 일본 육해군의 공문서 보관기관
종전 때 대부분 자료 소각 및 미국 국무성 보관(58년 반환)

미군 반환사료 / 전후 厚生省 復員局이 정리 보관 자료,
 방위연구소가 직접 수집 자료 등 공문서류 등 약 15만책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방위연구소 사료 가운데 CD화된 것 정보제공

문서구조

• 육군 : 전쟁(무진·서남·청일·러일·1차 세계대전·시베리아 출병·서진), 중앙(전반·전쟁지도·작전지도·군사행정·군대교육·부대역사·종전처리·기관지·잡지), 본토, 북동, 오키나와·대만, 만주, 중국, 남서, 필리핀, 호주북부, 중부태평양, 남동, 육군항공, 문고 등
 - 육군대일기류(陸軍大日記類) 41분류
 - 육군일반사료(陸軍一般史料) 8분류

• 해군 : 중앙, 전사, 대동아전쟁, 함선·육상부대, 항공부대, 기술, 교육, 참고, 문고 등
 - 해군공문비고류(海軍公文備考類) 2분류
 - 해군일반사료(海軍一般史料) 7분류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자료 파악
일본 열도 조병창 및 만주 남만육군조병창 자료 파악

[그림 24] 미국 · 일본 소장 자료 현황

2.2 미국 NAII 소장 캠프마켓 자료수집 방법

1) 80년간 지역 사회 주둔한 부대에 대한 이해

- 80년의 기간 동안 해체와 확장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관리 주체가 계속해서 변했으므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캠프마켓 관련 기록 수집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이 땅에 주둔한 부대 및 사령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 따라서 미국 내 캠프마켓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데 있어 시기별로 캠프마켓에 주둔한 부대의 역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당시의 미군 부대 및 사령부를 파악하고 생산 주체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임.
- NARA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카탈로그의 경우, 시리즈(기록물철)와 상자별 대표 명칭만 설명하기 때문에 직접 키워드로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 당시 주둔했던 조직을 인지하고 이들이 작성한 자료(지휘보고서, 정보보고, 작전보고, 특별보고,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함.
 - 24군수기지사령부의 정보·작전·병참·헌병·보급·공병·통신·의료·특별지원 등 조직들은 인천항에 상륙한 뒤 조병창 점령과 관련하여 건물 조사보고서, 구역별 조사보고서, 신규 건물 신축, 부대별 주둔 위치, 기지 주변 사진 등을 지휘보고서 등에 작성함

2) 시기와 주제에 따른 십진분류법 이해하기

- NARA 소장 기록물의 경우 단순 색인어 검색만으로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상기 언급한 복잡한 문서구조와 계열에서 기인하므로, 생산 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생산·정리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함.
 - 부평, 애스컴 24, 애스컴시티, 캠프 애스컴, 캠프마켓 등 색인어 검색 시 확인불가
- 이는 생산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생산하고 정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 미군은 주로 십진분류법을 선택함.
- 미군은 특정 시기(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50년대)에 십진분류 매뉴얼(War Department Decimal File System)을 작성해 문서 분류와 정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1943년에 개정된 십진분류 매뉴얼(War Department Decimal File System, Revised Edition, 1943) 중 캠프마켓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십진분류를 표시하여, 관련 용어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미육군 십진분류 매뉴얼에서 애스컴시티 및 캠프마켓과 직결된 RG 338의 338.5.5 극동미군기록(USAFFE), 338.5.10 미육군 태평양기록(AFPAC), 지도, 338.8 태평양사령부기록 2차 세계대전 이후, 338.9 군대의 기록 1925-1966년 중 미8군단 기록이 있으며 338.10.1 그 외 사령부 기록 중 미8군(1958-1962)과 24군단(1944-1945) 등이 있다. 338.11.10 보급 기록 중에서 건설공병단 본부(Headquarters Engineer Construction Group)의 캠프마켓 주둔지 건물들(camp market buildings) 재건 기록물 56개 아이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0〉 WAR DEPARTMENT DECIMAL FILE SYSTEM(1943) 중 캠프마켓 관련 분류 표시(일부)

300	ADMINISTRATION	400	SUPPLIES, SERVICES, AND EQUIPMENT	500	TRANSPORTATION	600	BUILDINGS AND GROUNDS	700	MEDICINE, HYGIENE, AND SANITATION
310	Business methods and procedure	410	Materials, machines, and hardware	510	Transportation of persons	610	Grounds, drainage	710	Affections, afflictions, diseases, injuries, etc., and remedies therefor
320	Organization of the Army	420	Clothing and equipage	520	Transportation of property or supplies	620	Barracks and quarters	720	Health and prevention of disease
330	Military control	430	Subsistence stores	530	Transportation by land	630	Post buildings	730	Special practices and treatments; schools of healing and medicine
340	Recruitment	440	Medical, surgical, and veterinary instruments, supplies, and equipment	540	Transportation by water	640	-	740	Anatomy and physiology
350	Education	450	Supplies and equipment for transportation, aeronautical supplies, packing supplies, and animals	550	Transportation accounts, contracts, rates, tariffs, tickets, etc.	650	Minor structures		
360	Aviation and aeronautics	460	Other Supplies	560	Army transport service, transports, vessels, and boats	660	Fortifications		
370	Employment, operation, and movement of troops	470	Ammunition, armament, and other similar stores	570	-	670	Plants and systems		
380	War and peace	480	Rentals and service other than personal	580	Transportation by air	680	Reservations		

3)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등 우선순위 자료수집 진행

- NARA는 캠프마켓 관련 문서, 사진, 도면, 영상 등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핵심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 1996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한국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오고 있으나, 해상도와 컬러/흑백 여부 등의 복사 상태와 첨부 파일의 누락 등 현황에 대한 검토 이후 재수집 방향을 제안해야 함.
- 캠프마켓 부지 외부의 인문/환경(기지촌 등)과 기지 내부의 사람들(근무자 및 주둔부대, 강제동원, 고용노동자 등), 사건과 사고, 건물 신축/재건축/해체 등 분야에 따라 자료의 규모는 상이하며, 자료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문서, 사진, 영상(음성), 지도, 도면, 박물 등 고려해야 함.
- 현지 기관에 방문하여 기록물을 사본, 촬영, 스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확인할 수 있음.

2.3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자료수집 방법

1) 방위연구소 소장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문서구조 및 위치 파악

- 일본 생산 자료(문서, 도면, 사진)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확인해줄 다양한 사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육군대일기류 밀대일기(密大日記), 육군일반사료 만주 조선(滿洲-朝鮮) 사료군 확인
 - 밀대일기는 일본 육군성과 파견 부대 간에 오고 간 왕복 문서 및 진중일지 등을 모아놓은 기밀 문서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천육군조병창 조성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활동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육군일반사료는 「육군일반사료 > 만주 > 조선」이라는 하위 시리즈 내 각 부책에 1939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관련 자료가 모여 있음
 - 육군조병창 관련 자료는 설립부터 리모델링, 각종 도면 및 청사진이 정리되어 있으며 용산기지 목록 다음에 이어져 있음

2) 방위연구소 소장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자료 검색

- 열람실 내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와 히라가나 순의 색인 카드가 비치되어 있음. 목록의 경우 외부 검색이 불가하고 열람실 내부에서만 검색할 수 있음. 공개 사료 목록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함.
 - 내부 검색 시스템보다는 색인 카드를 이용하여 기록물을 찾는 것이 자료를 찾는 데 유용하며, 열람실 내 사료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방위성에서 근무한 경력자(군사 편찬 경험자이며 주로 퇴역군인)이므로 사료 검색에 도움을 줌
- 방위연구소 내부망 검색은 각 부책에 관한 기술(description)이 부족하여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위연구소 문서 계층별 구조와 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3) 일본, 만주 등에 설치된 육군조병창 자료를 통한 관련성 검토

- 인천육군조병창은 대규모 강제동원이 일어난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관련 자료는 국내에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일본 본토 밖에 있던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음⁵⁵⁾.
- 인천육군조병창 건립에 대해서는 밀수(密受) 제1371호 문건⁵⁶⁾에 포함된 「조선에서의 제조소 증설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그 이외의 자료는 당시 일본군은 주둔하면서 생산된 자료를 일본으로 가져가지 않고 통째로 소각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건립한 육군조병창은 일본 내에는 도쿄(東京) 제1, 도쿄 제2, 사가미(相模),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고쿠라(小倉) 조병창 등이 있었고, 해외에 인천육군조병창과 중국 봉천의 남만(南滿) 조병창이 설치되었음⁵⁷⁾.
- 이에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자료를 일본 내 조성된 조병창 자료를 통해서 비교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일본 내 소장 자료 조사 때 일본 내 조병창 자료도 함께 찾아보는 것을 제안함.

55) 이상의(2020, p9).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국사편찬위원회-인천도시역사관 공동학술회의.

56)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p. 21.

5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p. 22.

4) 인천육군조병창 우선순위 자료수집 진행

-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기록물이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 이관되어 온라인으로 공개됨. 이에 따라 일부 자료는 직접 검색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공개된 자료를 우선으로 조사 분석하여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기록물의 존재 여부 및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족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함.

2.4 국내 소장 해외 자료 검토

- 국사편찬위원회는 1996년부터 체계적으로 해외 자료를 수집해 왔지만 대부분 흑백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수집한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기록물 뿐 아니라 문서에 첨부된 사진, 지도, 도면 등은 콘텐츠 활용 차원에서 고화질(2000dpi 이상)로 다시 스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 육군 공병대는 1946년에서 1949년 사이 에스컴시티의 건조물 신축·개축 과정, 부동산 등록 및 해제, 건조물 해체 또는 반환 시 각종 도면과 지도,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지만, 국내 수집된 문서 자료들은 첨부 자료(지도, 도면)가 누락
- 문서는 복사와 스캔본으로 구분해 목록화 작업하고 문서 내의 사진이나 지도(도면)의 유무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첨부 자료의 누락 및 훼손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수집을 진행해야 함.

3. 해외 소장 기록물 목록화 및 표적화

3.1 국내 소장 해외자료

1)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토(Record Group, Series)

- NAII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주요 대학에서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캠프마켓을 주제로 조사 수집한 적은 없음.
- <표 21>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NAII 자료 가운데 캠프마켓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과 향후 수집해야 할 시리즈 정리한 자료임
- 본 과업에서는 목록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지만, 추후 해외 기록물 수집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때 각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각 아이템 단위로 해제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 특히 캠프마켓 자료는 용산기지, 미8군, 유엔군사령부 등의 기록물과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사 수집하는 것이 필요

〈표 21〉 국내 소장 캠프마켓 관련 NAⅡ(NARA Ⅱ, Archive Ⅱ) 문서군과 시리즈 현황

RG (Record Group, RG)	시리즈 (Series)		주요 내용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미수집 시리즈	
111 (육군통신대 사령관실)	14	11	국편은 주로 사진 시리즈이고 국중은 통신대 문서들임. 영상(ADC·LC 등 10개 시리즈)과 사진 시리즈 중에서도 전량 수집되지 않았음.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1,482개 아이템 확인 가능함
112 (육군 의무부)	5	2	캠프마켓 내 의무부대 현황(121병원 등)
127 (해병대)			해병1사단 1통신대대 일일지휘보고서 (에스컴시티 통신시설복구와 기지 내 공사 내용 포함)
159 (미 육군 감찰감실)	1		1961~1985년 캠프마켓 등 주둔 부대원들의 비위 사건
165 (전쟁부 일반 및 특별참고)			1945년 11월부터 12월 사이(ASCOM24 임시주둔기) 미군의 적 동산과 기지, 무기 등을 조사하고 폐기·처리하는 활동을 전개한 자료를 포함
218 (합참)	8		유엔군사령부&미8군사령부 일부 문서
242 (해외 노획 컬렉션)	51		캠프마켓 등 문서 노획 일부
263 (CIA)	8(57건)		캠프 에스컴 등 폭격과 기지 현황 자료
286 (국제개발처)	9(1,474건)		부평 일대 원조 일부 자료
306 (USIA)	66	21	캠프마켓 등과 관련된 선전 자료와 영상 및 사진 시리즈
319 (육군 참모부)	49	12	참모총장,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법무감실, 민정·군정처장실 문서 등에서 캠프마켓 등 주둔 부대와 사령부 자료
330 (국방장관실)	17(534건)	11	주로 사진 자료와 밴 플리트 문서
331 (SCAP)	67(2,408건)		연합군최고사령부 문서 중에서 캠프마켓 등 자료
336 (육군수송부대)	1(1건)		캠프마켓 등 수송부 자료
338 (육군 작전, 전술, 보급)	104(5,745건)	68	캠프마켓 등 주둔부대(군단·사단·대대·중대) 부대 역사, 캠프마켓 등 재건과 1955~59년 사이 기지 개선행업 공병대 자료 포함
341 (공군사령부)	6(157건)	5	1950년 8, 9월과 1951년 2월 캠프마켓 등 폭격 문서
342 (공군작전&조직)	5(553건)	7	1950년 8, 9월과 1951년 2월 캠프마켓 등 폭격 문서, 사진(1개 시리즈), 영상(1개 시리즈)
407 (육군 부관부실)	7(9,828건)	10	1945 ~ 1960년 캠프마켓 등 주둔 부대의 지휘보고
469 (대외원조)	90(4,864건)	10	부평 지역 원조 관련 자료
550 (태평양 방면 미 육군문서)	8(4,131건)	22	캠프마켓 등 재건 보고서, 1960~1980년 기지 주둔 부문별 부대 역사, 한미 친선협의회 등
554 (극동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부, UNC)	53(5,739건)	150	미군정기부터 1945~1960년대 24군단, ASCOM24, 에스컴시티, 캠프 에스컴 및 UNC&미8군 각종 문서, 사진 등이며 첩보 및 정보 보고서, 부동산 및 기지 건설, 기지촌 등 다양한 문서가 존재

2)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토(Box, Item)

- 앞서 도출한 자료 가운데 캠프마켓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군은 6개(RG127, RG165, RG243, RG338, RG550, RG554)로 파악이 되며, 이 가운데에서도 RG554, RG243, RG165는 수집 우선순위 대상임.
-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RG127, RG165, RG243, RG338, RG550, RG554을 상자번호(Box), 건(Item) 분석하며 중요도를 구분하여 국내 소장기록 파악 결과 76건으로 확인됨(부록 5).

〈표 22〉 RG338, RG550, RG127, RG554, RG243, RG165 특성 분석

RG	자료특성 분석	시사점
RG338	미 육군 작전, 기술, 2차 세계대전과 전후 보급조직(1917~1993), 미8군사령부 에스컴시티 재건 관련 문서(1955~1959)	미군조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
RG550	태평양 지역 미육군 문서(1945~1984): 에스컴시티 연혁, 각 부대의 현황, 기지촌 클럽 현황	1960년 이후의 상황 파악
RG127	해병1사단 1통신대대 일일지휘 보고서(에스컴시티의 통신시설복구와 기지 내 공사 내용 포함)	한국전쟁 파괴 현황
RG554	극동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부, 유엔군사령부(1945~1960): 1945년 미 육군 인천조병창 점령, 시설물 현황 및 부동산 자료, 1948년 이후 미군철수 부동산 현황	1944~1958년 역사, 건설, 기지운영, 기지외부(기지촌, 대민활동) 자료 파악 가능함. 당시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기지재건, 일제강점기의 흔적 비교 분석이 가능함
RG243	연합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G-2)에서 입수한 1945년 7월 15일 인천항만 사진과 인천 일대 지도 포함(전쟁부 폭격단)	
RG165	전쟁부 군사정보단에서 생산한 조선 내 미 공군의 폭격 목표물을 정리한 문서이며 사진과 지도 포함	

NO	RG	ENTRY	SERIES	BOX	ITEM	생산일	생산자	작성자	장소	해제	쪽수	P-사진, M-지도, D-도면	수집 여부	중요도
1	165	NM84 205	Security Classified Correspondence and Reports Containing Intelligence Data Received to Calculate the Military Potential of Various Countries, 1945 - 1946	801	Japanese Intelligence Targets in the Far East, Korea	1945	전쟁부 군사정보부	전쟁부 군사정보부	인천	이 문서는 전쟁부 군사정보단에서 생산한 조선 내 미공군의 폭격목표물을 정리한 문서이며 사진과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97	M-3, P-4	O	상
2	243	46, I-10	Intelligence Library, 1945 - 1947	1	Target study of Korea, 15 July 1945, Report No. 32-c(1)	1945.7.15	전쟁부 폭격단	전쟁부 폭격단	인천	이 문서는 연합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G-2)에서 입수한 1945년 7월 15일 인천항만 사진과 인천 일대 지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미공군에서 인천항만 일대에 폭격하기 위한 목표물 지도와 사진들이다.	230	M-3, P-4	O	상
3	338	A1-16	Inchon Port Records	1	Organization Planning Files, 1955	1955.12.31	55병참창	JOSEPH LIPICH	ASCOM City	ASCOM City 조직현황, 부대 현황	185		O	상
4	338	A1-133	Eighth U.S. Army, Adjutant General Section: Security-Classified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 1947-53	870	1953 segment: 500 to 601	1953.05.08	EUSA	EUSA	ASCOM City	1953년 5월 ASCOM City 내 주요 건물들의 공사 현황이다.	3		O	상
5	338	A1-184	Eighth U.S. Army, Engineer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 1950-55	1484	322 Organizations & Units, 1955	1955	EUSA	V.P. RAMSD ELL	ASCOM City	이 문서는 1955년 부평기지에 주둔한 부대들을 정리한 것이다.	65		O	상
⋮														
73	550	A1-151	(DoD) USAR Korea Support Command 72-73, Acc. #76-0301	1	Daily Journal File, 1-15 Jan 72	1972	EUSA	EUSA&FEC	ASCOM City	ASCOM CITY 지역의 미군기지촌 클럽 현황 (playboy club, 부평동 284번지) 및 사건 사고	223		O	상
74	550	UD-UP 78-E	General Orders, Project Files, and Other Records, 1955 - 1963	1~7		1955-63	EUSA	EUSA&FEC	ASCOM City	9th Logistical Command, U.S. Army Area Support Command (ASCOM) Area Command (Korea)				상
75	554	A-1 1378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4/1944 - 6/1949	134	602 (Special Binder) Release of USAFIK Property to Korean Government 1949 to 602.1 Release of Real Property ("Z" Area, Camp Ascom) 1948	1949-1951	24군단	EUSA&FEC	ASCOM City	1945년 이후 ASCOM 기지 재편, 새롭게 2,715부대와 663개의 독립적으로 건설, 저장고 1,094,400갤런 규모 신축				상
76	554	A-1 1392	Property Records, 1945 - 6/1949	261	Camp Ascom ("AA" Area) 1948 to Camp Ascom ("Z" Area) 1948	1945 - 6/1949	24군단	EUSA&FEC	ASCOM City	부평 기지 부동산 문서 및 도면	10		도면 미수집	상

[그림 25] 캠프마켓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일부 (부록 5 참고)

3) 국내 미수집 자료 검토 (RG338 / RG554)

RG338 핵심적인 부대사(Unit Histories, 1943~1967, Entry UD 37042), RG407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 1941~1960, Entry NM3 429) 등은 1943년부터 1967년까지 미 육군에 소속된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의 역사와 지휘보고서와 공수, 장갑, 포병, 기병대, 화학, 공병, 금융, 보병, 노동, 기계화, 의료 군정, 군사 첩보, 헌병, 우편, 병참, 보급, 통신, 특수서비스, 교통, 수송 등 부문별 부대들이 시기-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별도 색인 보조도구를 활용해 찾을 수 있음. 현재 온라인 카탈로그는 35,536건 탑재되어 있고 국내 거의 수집되지 않음.

- 앞서 국내 소장자료 가운데 캠프마켓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관련성이 높은 6개 문서군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수집 자료를 파악함.
- 특히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RG338과 RG554를 살펴보았음
 - RG338은 주한미군군사고문단 부관부 문서(KMAG, Adjutant General), 미8군 문서(Records of Eighth Army), UNCACK(UN Civil Assistant Command, Korea), KACK(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n Communications Zone 자료(Korean Communications Zone, 1952~53) 등 포함
 - RG554는 맥아더가 지휘한 세 개의 사령부(극동군사령부(FEC), 연합군총사령부(SCAP), 유엔군사령부(UNC))가 생산한 문서들, RG 338에서 이관된 주한미군 군사고문단(KMAG) 자료 등이 포함
- RG338(123건), RG554(116건) 미수집 및 재수집 자료 현황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는 <부록 6>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음.
- 추가적으로 RG338의 338.5.5 극동미군기록(USAFPE), 338.5.10 미육군 태평양기록(AFPAC), 지도, 338.8 태평양사령부기록 2차 세계대전 이후, 338.9 군대의 기록 1925~1966년 중 미8군단 기록이 있으며 338.10.1, 그 외 사령부 기록 중 미8군(1958~62)과 24군단(1944~45) 등이 있음. 338.11.10 보급 기록 중에서 건설공병단 본부(Headquarters Engineer Construction Group)의 캠프마켓 주둔지 건물들(camp market buildings) 재건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음.

순번	RG	Series	Entry 번호	상자 번호	날짜	생산기관	가입제재 번호	시리즈 해제	url	관련도
1	338	Command Reports, 12/1/1951 - 12/31/1955	A-1 104	Boxes 6-8	12/1/1951 - 12/31/1955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orces Far East, Eighth U.S. Army,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1, 2/19/1953-6/30/1957 (Most Recent)	566386	이 시리즈는 미8군 인사참모부(G-1) 지휘보고서이며 한국전쟁과 그 여파에 관한 일지(daily journals)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보고서에는 보고기간 중 한국에서 수여되는 병역, 인원, 교체분 아니라 불리, 전투요원 고사, 장교 승진, 전장 일무, 훈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담겨 있다. 또한 각 국적의 인과 관계 목록과 합산될 총계 외에 미군, 유엔군 및 한국군의 총 전력을 최대한 집계하고 있다. 월별 일지가 첨부되어 있다.	https://catalog.archives.gov/id/566386	상
2	338	Consolidated Personnel Daily Summaries	A-1 106	Boxes 20-24	8/4/1950 - 12/30/1953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orces Far East, Eighth U.S. Army,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1, 2/19/1953-6/30/1957 (Most Recent)	566392	이 시리즈는 미8군인사참모부(G-1)의 한국전쟁 관련 인사 요약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군 부대의 군단, 시단별로 정리된 국문본을 첨부하고 있으며 유엔군 전체 병력의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catalog.archives.gov/id/566392	중
3	338	Daily Personnel Status Reports	A-1 107	Box 25	11/11/1950 - 12/30/1953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orces Far East, Eighth U.S. Army,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1, 2/19/1953-6/30/1957 (Most Recent)	566420	이 시리즈는 인사참모부(G-1)의 매일 인사 현황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일지에는 장교와 사병 모두를 위한 교체와 전근을 포함해 실제 인원 통계를 담고 있다.	https://catalog.archives.gov/id/566420	중
4	338	Eighth U.S. Army,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1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General Records, 1950	A-1 109	27	7/13/1950 - 12/25/1950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orces Far East, Eighth U.S. Army,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1, 2/19/1953-6/30/1957 (Most Recent)	566423	이 시리즈는 6·25전쟁 1년 동안의 미8군 참모총장실 G-1 일지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파일에는 월별 위계 중장이 친인척 재배정을 요청하는 가족 구성원의 삶에 응답하는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은 교전 중인 군인, 교체된 군인, 미군과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과 같은 많은 비전투원 관련 인사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https://catalog.archives.gov/id/566423	하
⋮										
237	554	General Correspondence	A1 44, A1 44A	Boxes 1-84	1946 - 1952	Department of Defense, Far East Command,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Administration Division, 1/1/1947-1/1/1953 (Most Recent)	1145599	이 시리즈는 부대 조직, 장비 및 훈련에 관한 메모, 서신, 승인, 무선 메시지, 보고서 및 기타 기록, 부대 훈련 및 배치 계획의 준비 및 조정, 훈련 현장 및 기타 사항으로 구성된다. 기록 중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소련에 관한 무선 메시지, 정보 요약 및 기타 기록(091 파일), 1951년 11월-4월 극동사령관(CINCPAC), 연합군 최고사령관(FEC) 등이 있다.	https://catalog.archives.gov/id/1145599	상
238	554	General Correspondence	A1 136, A1 136A	Boxes 1-6	1945 - 1953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orces Far East, Medical Section, (11/1/1952 - 6/30/1957) (Most Recent)	1174179	이 시리즈는 국공의 공중 보건 활동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메모, 편지, 보충, 보고서 및 기타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활동과 관련된 기록으로, 한국 민간요구에 대한 국제적응(CRIK) (400 파일), 일본과 한국의 마약류 거래, 일본 법률 분석 (444.1 파일), 페니실린 및 항생제 공급 요청(444.2 파일) 일본 및 한국의 공공보건 및 복지에 관한 다양한 간행물 (461 파일) 등이다.	https://catalog.archives.gov/id/1174179	중
239	554	General Correspondence	A1 79	Boxes 1-1060	1/1/1947 - 1952	Department of Defense, Far East Command, Adjutant General Section, Operations Division, 1/1/1947-1/1/1953 (Most Recent)	1170298	이 시리즈는 FEC, SCAP, UNC의 행정,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메모, 편지, 보고서, 승인, 라디오 메시지 및 기타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은 작전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https://catalog.archives.gov/id/1170298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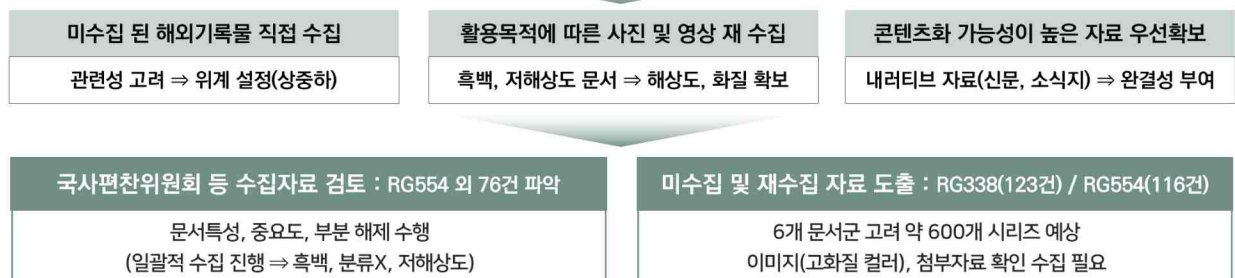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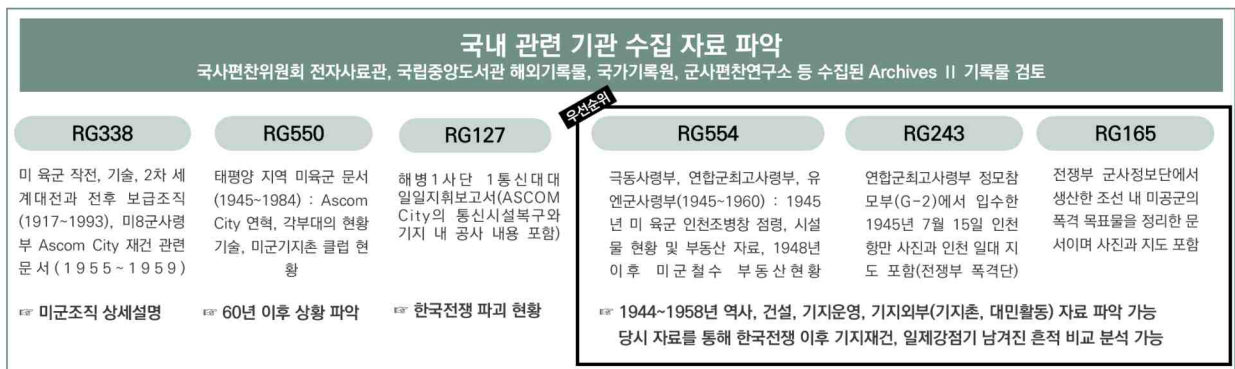
[그림 26] 미국 소장 미수집 기록물 해제(RG338/RG554)

3) 종합진단 및 시사점 도출

-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으로 이어지는 땅의 용도와 주체의 다양화로 국내 자료로 역사적 사건과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현재 국내에서 연구된 정보들로는 역사적 의미와 공간 특성을 확인할 수 없음.
- 이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한국전쟁 이후 미군, 한국군 등에 대한 당시 기록을 소장하는 해외 기관을 방문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함.
- 먼저 타 기관 중복 수집을 피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해외 기록물을 수집한 경험 있는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사전 검토 필요함.
- 미국 국립문서관리청(NARA),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 관련 기록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역사적 맥락과 검색 키워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분석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 기록물 활용적 측면에서 콘텐츠화 가능성이 큰 자료를 우선 확보함*.
- 추후 진행되는 수집 사업에서는 본 과업에서 제안하는 미수집된 기록물을 직접 수집하고,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우선 수집 대상을 파악해야 함.
- 앞서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RG338, RG550, RG127, RG554, RG243, RG165에 캠프마켓 상황을 담은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됨.
 - 특히 RG554, RG243, RG165의 경우는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 필요.
- 본 과업에서 상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RG319(육군 참모부), RG407(육군 부관부실)도 다수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자료 수집 시 우선해서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전시 및 교육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는 내러티브 자료(신문, 소식지)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병행 수집이 필요함.

* 애스컴시티 및 캠프마켓의 구체적인 사건과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군 외에도 부평 지역의 각종 대민사업이나 기지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7] 미국 소장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 제안

4. 해외 소장 기록물 시범 수집

1) 미국 국립문서관리청(NARA)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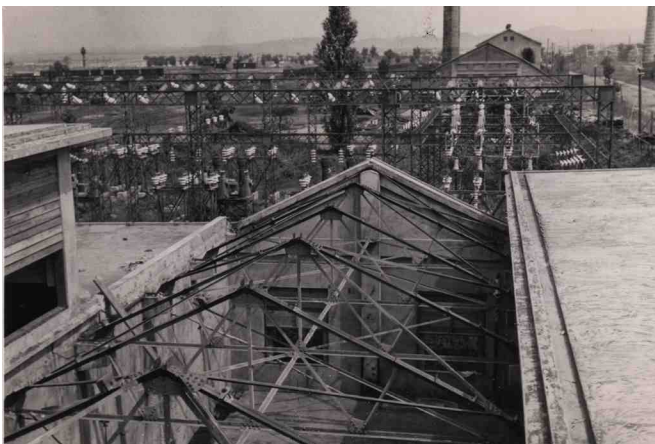
- NARA를 통해서 해상도가 높은 사진, 영상, 문서 등을 시범적으로 수집함.
- 수집자료 : 사진(12장), 영상(1건), 신문(2건), 일반문서(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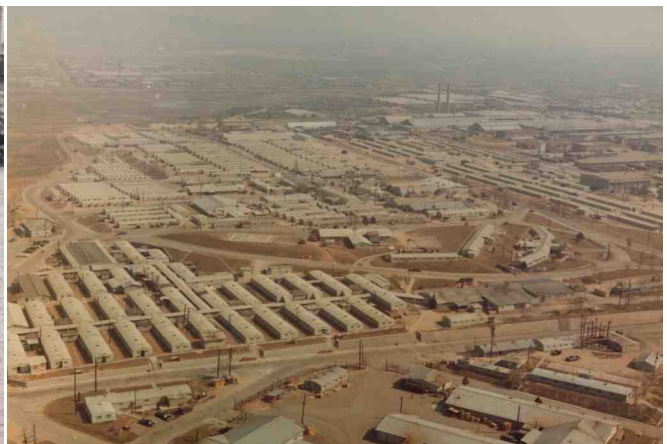
RG80-G-B1339-CV-11#2101 (23.1MB)
1945년 9월 4일 해방 이후 인천육군조병창 일대 촬영



RG319-CE-SC-540088-FOUO (11.1MB)
1957년 5월 22일 55보급창 방공장 일대 촬영



RG 127_UD-UP_B 32 (1.2MB)
1952년 9월 한국전쟁이후 애스컴시티 건물 복원 장면



RG 111-CC-48823-1(6.2MB)
1972년 2월 24일 선임상사 로버트 엘리스가 121병원 일대를 촬영한 사진



RG111-CC-48821 (6.48MB)
1968년 4월 19일 선임상사 로버트 엘리스가 촬영한 사진으로
오수정화조(부평동 65-17번지)의 임호프 탱크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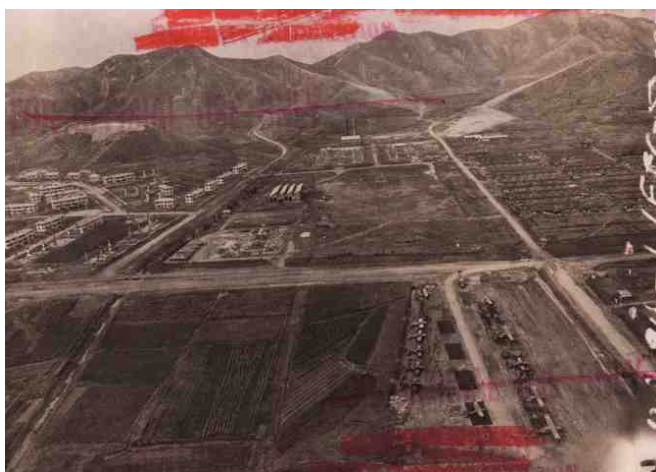
RG111-CC-48822 (5.83MB)
1968년 4월 19일 선임상사 로버트 엘리스가 촬영한 사진으로
보급창, 121후송병원, 주요 시설물 확인 가능.



RG319-CE-SC-540078-FOUO (7.94MB)
1957년 5월 22일 애스컴시티 헬리포트와 121후송병원 일대 촬영



RG319-CE-SC-540077-FOUO (10.1MB)
1957년 5월 22일 A-33 항공기지 촬영



RG111-SC-412706 (7.9MB)
1952년 8월 30일 한국전쟁 이후 산곡동 일대(A-33 항공기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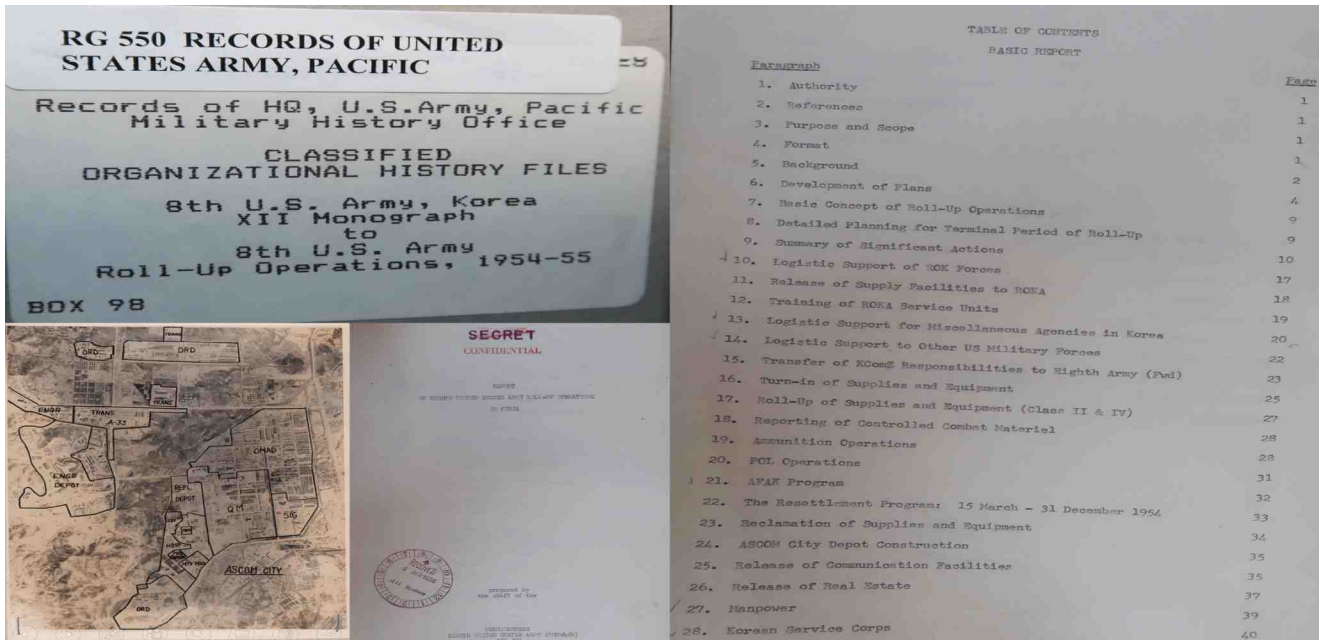
RG111-SC-412707 (7.2MB)
1952년 8월 30일 한국전쟁 이후 산곡동 일대 촬영



RG111-SC-412708 (6.8MB)
1952년 8월 30일 한국전쟁 이후 산곡동 일대 촬영



RG111-SC-412709 (5.9MB)
1952년 8월 30일 한국전쟁 이후 산곡동 일대 촬영



RG 550, EntryA1-1, OrganizationalHistoryFiles, 1959 - 1973, Box97, R8th U.S. Army, Roll-UpOperationsinKorea, Vol. I, II, III, 1954-1955
주한미군기재편 관련 문서 : 1956년 4월 3일 R. J. Butchers 미8군사령관이 작성한 <한국에서 미8군의 철수작전보고> 자료이며, 1954년 4월 4일 미 육군국동군이 극동사령부에 지시한 주한미군의 재편과 철수 작전 등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55년 7월 1일부터 AscomCity 건설 계획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1953년부터 지속적으로 애스컴시티의 재건, 부대배치,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RG 550_UD-UP 78E_B 6, EUSA Newspapers
1963년 6월 3일 미8군사령부 발행 신문

RG 550_UD-UP_B 6, ASCOM LOGGER. (2.19MB)
1958년 10월 27일 애스컴시티 신문 ASCOM LOGGER



RG111 / ADC-5267 / Moving Images Relating to Military Activities, 1947-1964 / 9분44초
LANDING OF US XXIV CORPS, SUIZAN AIRDROME, INCHON, KOREA : 7TH DIVISION LANDING AT KOREA
이 영상은 1945년 9월 8일 24군단과 7보병사단이 인천항에 상륙하는 장면, 인천시청에서 일본군의 항복 서명 장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7사단이 인천육군조병장점령하는 장면을 포함함

WAR DEPARTMENT CORRESPONDENCE FILE

A SUBJECTIVE DECIMAL CLASSIFICATION WITH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AND FILING
WAR DEPARTMENT CORRESPON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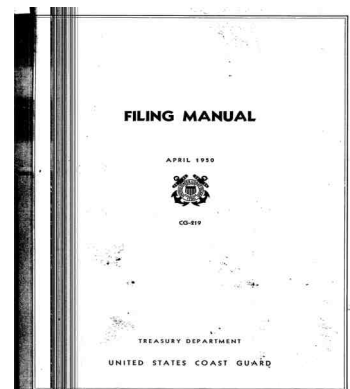
COMPILED UNDER DIRECTION OF THE
SECRETARY OF WAR
FROM DATA FURNISHED BY THE VARIOUS BUREAUS
OF THE DEPARTMENT CONCERNED

By
ROBERT E. PARKER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War
WALTER KEETON
Office of the Adjutant General
H. M. McLAIRY
Office of the Chief Quartermaster Corps
R. E. DENNIS
Office of the Chief of Ordnance

JANUARY, 1944
REPRINT: JUNE, 1944
REPRINT: JULY 18, 1947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7



2)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자료 수집

* [부록8]은 연구진이 수집한 인천 육군조병창 관련 42개(PDF, 85.7MB) 문서 자료이며, 본 자료에 대한 해제작업은 추후 진행되는 과업에서 관련 자료 수집 이후 연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천육군조병창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군을 통해서 <표 23>과 같이 6개 문서를 수집했고, 일부 문서 해제작업 수행함.
- [부록7]을 통해 본 과업에서는 수집이 필요한 15개 목록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일부 자료에 불과하며 추후 해외 기록물 수집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함*
- 국내에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본 과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심도 있는 조사분석 작업이 필요함.

<표 23>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수집자료

NO	문서계열	부책	건	한글번역문	작성 연월일	작성자	레퍼런스	소장기관 청구기호	주요 내용	면수
1	陸軍省大日記 >大日記乙輯	永存書類乙集 第2類 第1冊 昭和11年	演習場廠舎増設工事 実施の件	연습장 창사증설 공사실시건	1937.5.27	朝鮮軍經 理部	C0100 21284 00	陸軍省-大 日記乙輯- S14-2-30	육군인천연습장 창사 증설 문 서	4
2	陸軍省大日記 「陸軍省大日記 乙類」	大日記乙輯永存 書類乙集第2類 第1冊 大正12年	富平附近小演習場敷地 買収の件	부평부근 소연습 장부지 매수 건	1923.10.1 - 1923.12.31	朝鮮軍經 理部	C0301 17875 00	陸軍省-大 日記乙輯- T12-2-20	이 문서는 1923년 1월 이후 용산기지 관할 인천 부평 산 곡과 대정리 토지를 매수해 연습장 조성 관련 자료	8
3	陸軍一般史料 >中央>軍事行政>兵器	隷下部隊長会同 の際の兵器生産 状況報告 昭和20.3	昭和20年3月隷下部 隊長会同の際状況報告 昭和20年3月1日 仁川陸軍造兵廠(1)	1945년 3월 예 하 부대장회 동 제 상 황 보 고 . 1945년 3월 1일 인천조병창(1)	1945.2.3	仁川陸軍 造兵廠	C1401 08491 00	陸軍省-大 日記乙輯- T12-2-20	1945년 3월 인천조병창 예하 부대장회 동제 상황 보고 중 에서 시설 현황과 무기 현황 등을 기술하고 있다.	50
4	陸軍一般史料 >中央>軍事行政>兵器	隷下部隊長会同 の際の兵器生産 状況報告 昭和20.3	昭和20年3月隷下部 隊長会同の際状況報告 昭和20年3月1日 仁川陸軍造兵廠(2)	1945년 3월 예 하 부대장회 동 제 상 황 보 고 . 1945년 3월 1일 인천조병창(2)	1945.2.3	仁川陸軍 造兵廠	C1401 08492 00	陸軍省-大 日記乙輯- T12-2-20	1945년 2월 29일인천조병창 에서 병기생산시설 이설분산 방호실시 요강을 정리한 문서 이다. 이 문서에는 기지 내의 지하설비와 지상 설비 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장소, 적 량, 구조물 등을 기재하고 있 다. 전쟁 말기 인천조병창의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자 료이다.	47
5			昭和20年3月隷下部 隊長会同の際状況報告 昭和20年3月1日 仁川陸軍造兵廠(3)	1945년 3월 예 하 부대장회 동 제 상 황 보 고 . 1945년 3월 1일 인천조병창(3)	1945.2.3	仁川陸軍 造兵廠	C1401 08493 00	陸軍省-大 日記乙輯- T12-2-20	이 문서는 1945년 3월 1일 인천조병창의 실포 소총 이설 분산 방호전개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 약도에는 조선인공 원 단독 합동 숙사지대, 조선 인 여자공원 합동숙사 지대, 저수지 신설, 복재수축장 신 설, 고등관 단독숙사 증설지 대 등 기지 내 주요 시설물 현황을 표시하고 있다.	23
6			第20師團軍備改変 実施概況の件	제20사단군비개 변실시개황의 건	1936.1.5	川岸文三 郎(20사 단장)	C0100 75105 00		이 문서는 함봉산과 한국군 제3보급단 지역에 조성된 지 하시설에 대한 1차 자료로, 동 지하시설이 도쿄제1육군조 병창 실포(실탄)공장의 일부를 이설, 분산시킬 목적으로 조 성했음을 명시한 문서이다.	18

제3절 생활사 조사를 위한 구술 채록

1. 기초조사 및 방향 설정

캠프마켓 구술 조사의 기능 및 역할

-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등 과거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기록자료 확보 차원에서 구술 조사를 해야 함.
 - 인식의 편차도 있고 기억력의 차이도 있지만, 구술은 풍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음. 구술을 통해 전하는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전체 경험임⁵⁸⁾
- 직접 경험한 이야기에서 획득한 정보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의미와 공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구술 조사의 주요 대상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미군 부대 근무자, 지역 주민, 부대 관계자, 유관 기관 구성원, 지역활동가, 연구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
 - 생산된 구술 자료는 학계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활용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장소에 대한 맥락적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됨

공공기관이나 민간 연구자 진행 구술 검토 : 166명 구술자 자료 목록화⁵⁹⁾

- 본 과업에서는 신규 구술자들을 발굴하여 직접적인 구술을 수행하기 이전에, 기존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우선으로 파악하고자 했음.
- 24개의 자료(단행본, 도록, 보고서 등)를 통하여 166명의 인물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작업을 수행함.
 - 주로 당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자료들이며, 녹취록 외에도 구술에 대한 보도자료, 개인 혹은 단체 인터뷰, 현장 연구자들의 해석 등도 포함
- 기존 구술 조사에 대한 검토 이후 증장기적 차원에서의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구술 조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함.

〈표 24〉 기존 구술조사가 수록된 24개 자료

기관/ 연구자명	발행 연도	간행물명	특징
국립민속박물관	2018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인천광역시 민속조사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로, 〈캠프마켓〉의 저자 한만송이 연구를 진행함
부평구	2021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캠프마켓 부지 내 오수정화조가 철거되기 전, 이와 관련된 학술조사와 함께 구술채록을 실시함
부평문화재단	2015	메모리즈 인 부평	구술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2-3페이지 정도로 간결하게 정리해 웹사이트 게재용으로 콘텐츠화한 자료
	2019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 신촌	음악과 관련된 구술자 외에도 신촌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던 구술자, 전 클럽 운영자, 예술활동가 등을 포함하여 큰 맥락에서 신촌을 바라보고자 함
	2020	부평 사운드	미군 주둔과 함께 영내 클럽과 기지촌 클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을 접하거나 밴드 활동을 하는 등 문화적 영향이 컸음. 〈부평사운드〉 시리즈는 '문화도시부평'이 부평 '애스컴의 음악'을 기반으로 인천·부평의 뮤지션들을 인터뷰한 단행본을 발간하고 음반을 발매함.

58) 이상익(2021, p.26).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국사편찬위원회-인천도시역사관 공동학술회의

59) 구술자 중 각기 다른 기관에서 인터뷰를 한 경우 중복값으로 간주하여, 모든 중복값을 제거하였음

부평사 편찬위원회	2021	부평사	2021년에 발간된 부평사 시리즈는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마다 주제를 세분화하고 연구 내용과 인터뷰를 함께 게재하여 부평의 역사를 다각도로 서술함.
부평역사 박물관	2014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조병창, 미군기지, 공장지대로의 흐름과 함께 맥을 같이 해 온 산곡동(구 백마장)내의 근로자 주택을 조사한 보고서. 문헌뿐 아니라 사진,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산곡동의 역사와 조병창, 미군기지, 공장지대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1930년대 후반부터 전략적으로 자리하게 된 사회간접 자본과 군수산업 시설들, 군부대 등의 영향으로 전통시대 주거 공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이주민들의 마을은 신도시 부평을 탄생하게 하였고, 그 중 하나가 부평 신촌 지역임. 군사 도시적 성격이 강한 부평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온 신촌의 옛 모습과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 역점을 둔 자료
	2016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미쓰비시’의 한자 표기인 ‘삼릉(三陵)’이 동네의 별칭으로 붙은 만큼 일제강점기 한반도 강제동원, 관련 군수공장과 사택의 설립은 부평의 역사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삼릉의 형성 과정과 현재까지 삼릉의 모습을 조명함
	2017	부평 - 개관 10주년 기념 연구조사 보고서	지역사 관련 유물 조사 및 학술 연구 조사의 결과물
	2017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	미군기지 인근 지역인 십정동의 생활문화 조사 자료
	2020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역사박물관의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의 전시 도록
	2021	도쿄제강 사택에 담긴 부평의 시간	2020년 도쿄제강 사택, 일명 ‘검정사택’의 철거를 앞두고 사택에 대한 역사적/건축적 가치 제고와 기록을 위하여 학술 조사를 진행함
	2021	“나는 일본군 조병창서 무기 만든 소년” 94세 노인의 증언(2022-04-06)	이상의 교수의 강제동원 구술채록 사업 진행 중 비교적 최근에 찾게 된 강제동원 피해자 문주현 응을 연합뉴스가 인터뷰함
이상의	2016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⁶⁰⁾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가 조선을 대륙병참기지화하면서 인천 조병창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 노무자를 동원한 사실을, 특히 학생동원에 초점을 두어 고찰함 ⁶¹⁾ .
	2019	국민학교 5학년생 윤용관, 인천조병창 지하병거에서 총검을 검사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윤용관 선생의 구술
	2019	지원병을 강요받던 최덕원, 인천육군조병창 군속이 되다	강제동원 피해자 최덕원 선생의 구술
인천녹색연합	2021	부평미군기지 과거,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다	
인천문화재단	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구술 수집 결과보고서	이전에 부대였던 부영공원, 부평공원 내의 지하시설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직접 목격한 구술자를 섭외하여 공간 위주로 구술을 채록함
인천시립박물관	2021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캠프마켓과, 그 이전에 있었던 인천육군조병창의 흔적을 연구함
국사편찬위원회	2019	[구술선집26]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한만송	2014	캠프마켓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한만송 기자가 <부평신문>에서 <시사인천>기자로 10년 동안 취재하면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반환되는 캠프마켓 부지의 역사성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캠프마켓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서술함
황경란	2020	부평 미군 기지촌의 추억	작가인 황경란 선생이 2020년에 ‘부평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는 소병순, 이연옥 부부 인터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미군 기지촌 관련 인터뷰를 르포스타일 형식으로 진행함

60) 이상의(2016). 아시아 ·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6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2136229>

2. 기존 구술 자료 현황 파악

메타데이터 설정을 통한 166명 구술자 특성 파악

- 구술자 개인적 상황, 당시 사회적 여건, 연구자의 목적 등에 따라 구술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 분석을 위하여 구술 자료 통합목록을 작성함.

연번	이름	출생 연도	인물 세부정보	근무지 (직접대상지) 구분	소속	업무	시기구분 (주요 내용)	관련 공간범위	공간 카테고리	공간 키워드	구술의 개략	주제/기능	주요 메모	인터뷰 시기	인터뷰 분량	예상보유자료	관련인물	출처
001	정하섭	1957	3군수 지원사령부 600수송대에서 기동장비 정비 (부영공원 자리에서 19년) 퇴직 후 2018.1~3군수 지원사령부 용역회사 근무 중(인터뷰 당시)		3군수 지원사령부: 3군수 지원사령부 용역회사	정비	일제강점기 인천 육군조병창	직접대상지	부대	부영공원 지하시설	-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과 내부 모습 - 지하시설에 대한 소문과 금괴 찾기 소문	군사 건축/토목		20201106	36장	- 구술자가 그린 부영공원에 지하시설 입구(결과보고서에 실었으나 block 처리된 듯 함.) - 2020년 구술수집 이후 부영공원 지하시설을 함께 답사한 자료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인천문화재단(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구술 수집 결과보고서
002	이한수	1957	기계공작원, 자동차정비공, 공원관리인		88정비대대 부령시설관리공단	기계공작: 공영관리	일제강점기 인천 육군조병창	직접대상지	부대	부영공원 지하시설, 대대본부 지하방격, 88정비대대본부(현 부영공원) 지하시설	-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과 부영공원의 과거 구조 -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과 내부 모습	군사 건축/토목		20201016	21장	- 구술자가 그린 과거 88정비대대의 구조(결과보고서에 실었으나 block 처리된 듯 함.)		인천문화재단(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구술 수집 결과보고서
003	박의양	1949	통신대 근무(엑스컴, 캠프마켓)	ASCOM, CAMP MARKET	엑스컴 통신대: 캠프마켓 통신대	현장 소장	ASCOM CITY 해제기, 캠프마켓 진촌기	직접대상지	부대	캠프마켓(지하시설), 캠프마켓(굴목 두 개 있는 건물, 엑스컴, 사전트 숙소, 인텔, 캠프마켓 부지 6개 지점) 캠프마켓(지하시설), 캠프마켓(굴목 두 개 있는 건물, 엑스컴, 사전트 숙소, 인텔, 캠프마켓 부지 6개 지점) 캠프마켓(지하시설), 캠프마켓(굴목 두 개 있는 건물, 엑스컴, 사전트 숙소, 인텔, 캠프마켓 부지 6개 지점)	군사 건축/토목		20201015	29장	- 2013년 인천시청에 알려진 캠프마켓 지하시설 위치 여섯 - 지도를 군대 + 부영공원 한 군대(004하러 땅굴 이출중 구술자와 함께 일러줌)씩 계단에 + 캠프마켓 근무했던 이야기 자주 내려 - 기간단위로 자료 -> 간담회 갔던 동료 이후 경인일보 기자가 만나서 (미스터 고)고 요청 - 이종훈 - 면담자들과 함께 캠프마켓 구술자 방문함		인천문화재단(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구술 수집 결과보고서	
004	이종훈	1942	인쇄소 기계장비(캠프마켓)	CAMP MARKET	캠프마켓 인쇄소	기계 정비	ASCOM CITY 해제기, 캠프마켓 진촌기	직접대상지	부대	캠프마켓(지하시설), 캠프마켓 내부	사회/생활: 군사 건축/토목							인천문화재단(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구술 수집 결과보고서
005	신오호	1948	배이커 / 수송 업무 담당 (캠프마켓 방 공장)	CAMP MARKET	방 공장	배이커: 수송 업무	해제기: 캠프마켓 진촌기: 부지반환기	직접대상지	공장: 부대		군사 물품/장비/보급/사회/생활							부영구(2021),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165	Leroy E. Shuff	미상	기관총 사수(미 해병 제5연대 2대대 D중대)	ASCOM	미 해병 제5연대 2대대 D중대	기관총 사수	한국전쟁기	직접대상지	부대	엑스컴 시티								부영역사박물관(2020), 엘로우 엑스컴 시티 코비어 캠프마켓
166	문주현	1929	소총 출신 제1(인천육군조병창), 항공기 미리 부분 제작(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조병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소총 출신 제작, 항공기 미리 부분 제작	일제강점기 인천 육군조병창	직접대상지	공장	조병창(제2공정): 기능자양성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20220406		조병창 기능자 양성소에서 촬영한 단체사진 소장(기사에 수록됨)		연행뉴스, 2022-04-06, "나는 일본군 조병창서 무기만든 소년" 94세 노인의 증언	

[그림 28]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자 진행 기존 구술자료 분석 (부록2 참고)

<표 25> 구술 자료 목록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정

메타데이터 항목	설명
이름	구술자의 이름
출생연도	구술자의 출생연도 / 연령
인물 세부정보	구술자의 과거/현재의 직업이나 소속
근무지 구분	부대에서 근무한 경우 엑스컴시티 / 캠프마켓 / 인천육군조병창 구분
소속	인물 세부정보를 더 세세하게 나누어 구술자의 소속을 추출
업무	인물 세부정보를 더 세세하게 나누어 구술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추출
시기 구분	인터뷰 내용과 관련된 시기(시기구분 참조)
관련 공간 범위	직접대상지: 조병창, 미군 부대 등과 연관된 구술자 연계대상지: 기지촌 등 부대 주변 인프라와 연관된 구술자
공간 카테고리	공장, 부대, 사택
공간 키워드	인터뷰 내용의 대상이거나 관련된 공간
구술의 개략	대략적인 구술의 내용
주제/기능	인터뷰 내용의 주제/기능(주제/기능 참조)
주요메모	인터뷰의 내용
인터뷰 시기	인터뷰가 진행된 시기
인터뷰 분량	인터뷰 시간이나 간행물 페이지 수 등
예상보유자료	구술자가 소장하고 있거나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관련인물	구술자가 구술 당시 언급했거나, 인터뷰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
출처	구술 자료의 출처

3. 기존 구술자료 유형화 및 특성 분석

3.1 시기별 구술 내용 분석

- 구술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1939년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부터 현재까지이며, 구술자가 없는 대한제국기 「목양사」와 일제강점기 「부평 육군연습장」 시기는 구술 자료 검토의 범위에서 제외됨.
 -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은 조병창이 가동되기 시작한 1939년부터 해방된 해인 1945년까지의 시기로, 총 166명의 구술자 중 51명이 인천육군조병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술하였음. 구술자는 대부분 강제동원되었던 사람들로, 강제동원 당했던 이유와 조병창에서의 경험, 해방을 맞이했던 날의 조병창 분위기 등을 구술하였음. 조병창 입창 계기에 대해 '해외 징용을 피하려고',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등 자발적으로 지원한 구술자도 포함되어 있으나, 조병창에 입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입창하게 한 것도 강제 동원으로 간주해야 함⁶²⁾
 - 「ASCOM 24 임시주둔기」는 해방 후 미군이 일본의 군사시설을 점령했던 시기로, 본 연구에서 작성한 구술자 목록 중 해당 시기의 구술자는 1명임.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 조병창 부지와 제반시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광복 당시의 분위기,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난방기사로 근무했던 경험에 대해 구술하였음
 - 「한국군 주둔기」는 미군 철수 후 부지가 군의학교, 군 병원, 한국군 주둔지 등의 역할을 했던 시기임. 본 연구에서 작성한 구술자 목록 중 해당 시기의 구술자는 0명으로, 구술 내용보다는 기존의 연구자료와 문헌 등으로 내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
 - 「한국전쟁기」는 미군 및 UN군이 한국전쟁에 참전, 부대 및 제반시설을 북한군으로부터 탈환하여 재주둔/사용했던 시기임. 미군, 카투사, 인근 주민 등 5명의 구술이 목록화되어 있음. 이 중 당시 부평에서 전투를 치렀던 참전군인(Leroy E. Shuff)의 증언은 Wisconsin Veterans Museum에서 2005년에 진행했던 인터뷰임
 - 「애스컴시티 재편성기」는 구술자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클럽 운영자, 뮤지션, 부대 내 근로자, 기지촌 주민 등, 문화, 생활사 관련 구술이 포함됨. 조병창에 강제동원되었던 이들이 그대로 미군 부대 근로자가 되기도 했음. 사택 관련 구술, 미군 위안부, 카투사, 혼혈인 등 다양한 유형의 구술자 및 주제가 포함됨(양키시장, 꿀꿀이죽 등)
 - 「애스컴시티 해체기」와 「캠프마켓 잔존기」는 미군 부대 내 근로자, 부대 인근 주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애스컴시티 재편성기와 유사하나, 구술의 내용에 애스컴시티가 축소된 후의 기지촌 분위기나 한국군(제9공수특전여단)이 주둔했던 시기 등 지역의 변화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부지반환기」는 대부분 부지 반환 운동/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지역 정치인, 황경란(2020)과 한만송(2014), 부평역사박물관(2014), 부평역사박물관(2015), 인천녹색연합(2021), 부평문화재단(2019) 등의 자료에서 부지반환 관련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직접적으로 부지반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한만송(2014)의 단행본 외에는 소략한 편임. 부지반환 이슈에 대한 공무원, 인근 주민 등 다양한 시각의 구술은 부족함

〈표 26〉 시기별 구술자 / 구술 내용 특징

시기 구분	구술 특징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 구술자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 강제동원 이유와 조병창에서의 경험, 해방을 맞이했던 날의 분위기 등을 구술
ASCOM 24 임시주둔기	· 본 연구에서 작성한 구술자 목록 중 해당 시기의 구술자는 1명 ·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 조병창 부지와 제반시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광복 당시의 분위기,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난방기사로 근무했던 경험에 대해 구술하였음.
한국군 주둔기	· 본 연구에서 작성한 구술자 목록 중 해당 시기의 구술자는 0명 · 구술 자료보다는 기존의 연구자료와 문헌 등으로만 내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
한국전쟁기	· 미군, 카투사, 인근 주민 등 5명의 구술이 목록화되어 있음 · 당시 부평에서 전투를 치렀던 참전군인(Leroy E. Shuff)의 증언은 Wisconsin Veterans Museum에서 2005년에 진행했던 인터뷰임.
에스컴시티 재편성기	· 구술자가 가장 많은 시기 · 클럽 운영자, 뮤지션, 부대 내 근로자, 기지촌 주민, 문화, 생활사 관련 구술 다수 · 조병창 강제동원자가 그대로 미군 부대 근로자로 일자리를 얻은 경우도 있음 · 사택 관련 구술, 미군위안부, 카투사, 혼혈인 등 다양한 유형의 구술자 및 다양한 주제(꿀꿀이죽, 양키시장 등)가 포함될 수 있음
에스컴시티 해체기	· 기 구술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부대 내외의 다양한 주제를 다룸.
캠프마켓 잔존기	· 미군 부대 내 근로자, 부대 인근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구술채록 시행 · 미군 철수에 따른 지역의 변화가 서술
부지반환기	· 부지반환 관련 운동 및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구술 진행

3.2 시기별 구술자 특성 분석

- 〈표 27〉은 시기별 구술자 수와 구술자의 출생연도 범위를 정리한 것임
 -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시기의 구술자는 51명, 「에스컴시티 재편성기」의 구술자 수는 55명 등 구술자의 수가 시기별로 편중된 경향이 있음
 - 「ASCOM 24 임시주둔기」와 「한국군 주둔기», 「한국전쟁기」는 구술자 수는 평균 3명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서 구술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ASCOM 24 임시주둔기», 「한국군 주둔기», 「한국전쟁기」의 경우 구술자의 출생 연도가 1920~1930년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해당 시기를 직접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2022년 현재 작고하였거나 고령일 가능성이 매우 큼
 - 「캠프마켓 잔존기」와 「부지반환기」도 「현재」를 기록화하는 차원에서 더 다양한 구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구술 채록이 시행되어야 함

〈표 27〉 시기별 구술자 특성 분석

시기 구분	시기 범위	구술자 수	구술자 출생연도(예측)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1939~1945년	51명	1919~1930년
ASCOM 24 임시주둔기	1946~1948년	1명	1923년
한국군 주둔기	1949~1950년	-	1935년
한국전쟁기	1950년	5명	1929~1936년
에스컴시티 재편성기	1953~1970년	55명	1924~1968년
에스컴시티 해체기	1971~1973년	32명	1929~1968년
캠프마켓 잔존기	1973~2021년	25명	1929~1966년
부지반환기	2002~2020년	20명	1935~1989년

3.3 중복된 구술자 현황

- 여러 자료에 반복적으로 같은 구술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존에 진행되었던 구술 채록 자료의 구술대상자였거나 인용/재인용된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표 28〉 중복된 구술자와 인용 횟수 정리

횟수	성명 및 상세 설명
5회	지영례(조병창 병원 서무과 근무) ⁶³⁾
3회	최덕원(조병창 강제동원) ⁶⁴⁾ , 윤용관(조병창 강제동원) ⁶⁵⁾ , 한정철(애스컴 카투사 근무, 신촌 부일식당 운영) ⁶⁶⁾ , 이연옥(부지반환기 관련 문화예술 활동) ⁶⁷⁾
2회	이종용(애스컴/캠프마켓 근무) ⁶⁸⁾ , 한정순(신촌에서 미용실 운영) ⁶⁹⁾ , 박현호(드러머) ⁷⁰⁾ , 박의양(애스컴/캠프마켓 근무) ⁷¹⁾ , 김도석(신촌에서 사진관 운영) ⁷²⁾ , 이종숙(신촌에서 클럽 운영) ⁷³⁾ , 고OO(전 미군 위안부) ⁷⁴⁾ , 김영식(신촌 토박이) ⁷⁵⁾ , J씨(전 미군 위안부) ⁷⁶⁾ , 소병순(부지반환기 관련 문화예술 활동) ⁷⁷⁾ , 광경전(부지반환운동 참여) ⁷⁸⁾ , 임종우(신촌 토박이, 신촌 문화사업 진행) ⁷⁹⁾ , 양재형(조병창 강제동원) ⁸⁰⁾ , 심일운(NCO클럽 총지배인) ⁸¹⁾ , 정근(미군 부대에서 아리랑 택시 운전) ⁸²⁾ , 이원규(소설가) ⁸³⁾ , 이광희(주미노조) ⁸⁴⁾ , 김삼순(밴드 드러머) ⁸⁵⁾ , 차병락(애스컴 군수물자 출하증 발급) ⁸⁶⁾ , 문택윤(애스컴 근무) ⁸⁷⁾ , Tim Norris(미형무소 경비) ⁸⁸⁾

- 63) 부평문화재단(2015), ‘메모리즈 인 부평’, 인천시립박물관(2021),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부평사편찬위원회(2021), ‘부평사’, 이상의(2012),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국사편찬위원회(2019),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 64) 이상의(2019), ‘지원병을 강요받던 최덕원, 인천육군조병창 군속이 되다’, 부평사편찬위원회(2021), ‘부평사 4권 -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시티’, 국사편찬위원회(2019),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 65) 이상의(2019), ‘국민학교 5학년생 윤용관, 인천조병창 지하벙커에서 총검을 검사하다’, 인천시립박물관(2021),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국사편찬위원회(2019),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 66) 부평문화재단(2015), ‘메모리즈 인 부평’,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한만송(2014), ‘캠프마켓’
- 67) 황경란(2020), ‘부평 미군기지촌의 기억’, 부평문화재단(2019),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 68) 인천문화재단(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구술 수집 결과보고서’, 한만송(2014), ‘캠프마켓’
- 69) 부평문화재단(2019),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 70) 부평역사박물관(2016),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를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 71) 인천문화재단(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구술 수집 결과보고서’, 부평구(2021), ‘캠프마켓 오수정확조’
- 72)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한만송(2014), ‘캠프마켓’
- 73) 부평문화재단(2019),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 74)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국립민속박물관(2018),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 75)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한만송(2014), ‘캠프마켓’
- 76)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국립민속박물관(2018),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 77) 황경란(2020), ‘부평 미군기지촌의 기억’,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 78) 인천녹색연합(2021), ‘부평미군기지 과거,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다’, 한만송(2014), ‘캠프마켓’
- 79) 부평문화재단(2019),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 80) 이상의(2016), ‘아시아 ·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한만송(2014), 캠프마켓
- 81)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국립민속박물관(2018),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 82) 부평문화재단(2015), ‘메모리즈 인 부평’, 국립민속박물관(2018),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 83)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국립민속박물관(2018),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 84) 국립민속박물관(2018),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한만송(2014), ‘캠프마켓’
- 85) 부평문화재단(2019),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 부평사편찬위원회(2021), ‘부평사 2권 - 부평의 문화와 예술’
- 86) 부평사편찬위원회(2021), ‘부평사 5권 - 부평의 마을’, 한만송(2014), ‘캠프마켓’
- 87) 국립민속박물관(2018),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한만송(2014), ‘캠프마켓’
- 88)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2020),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3.4 구술을 통한 공간 현황 파악

인천육군조병창 내부 공간 특성 및 역할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구술자료는 조병창의 기능 및 역할, 노동 실태, 시설 규모, 내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음.
- 강제동원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일본 측의 입장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노령화로 기억의 훼손과 소멸이 진행되고 있어, 구술 자료 확보가 절실함.

〈표 29〉 구술을 통한 공간 현황 파악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공간/역할	설명	구술자
기능자양성소 (기숙사, 공동식당)	조병창 외부에 위치해 있던 조병창 산하 기관. 조병창에 입창할 때 기능자양성소를 거친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뉨. 기능자양성소 출신은 모자의 띠 색이 달랐는데, 이는 일제가 같은 조선인이란도 계급을 나누어 분별시키고자 했던 정책 중 하나임. 기능자양성소는 일과 학업을 함께 가르쳐준다고 학생들을 데려갔지만 나중에는 결국 근로만 하게 되었다고 구술. 기숙사는 '야오바료'라고 불림. 공동식당은 현재 산곡1동 주민센터 주차장 자리임	최병무, 김우식, 장화두, 김상현, 문주현, 남O경, 이은경, 박O재
조병창 제1~3공장	소총 스프링, 총신, 개머리판 등을 생산/조립하던 공장으로, 1~3공장을 묶어 '제1제조소'로 불렸음. 구술자 목록에 1, 2공장 구술자는 있으나 3공장의 경우 구술자가 없음. 구술자들은 당시 하던 업무와 조병창 분위기, 간부나 동료 등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구술함	최병무, 김우식, 최덕원, 왕명근, 문주현, 윤능선
사택	산곡동 근로자 주택, 삼릉 미쓰비시 사택, 검정사택, 일성로(잇세료), 문화주택, 시미즈구미 공사장 숙소, 일본인 관사 등 부명 내 군/기업 관련 사택에 대한 구술 내용이 있음. 주로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시기의 구술이 많음. 미군 부대의 경우에도 사택이 있었으나 관련 구술이 비교적 이루어지지 않음	최병무, 김우식, 최덕원, 왕명근, 문주현, 윤능선
조병창 병원	조병창 강제동원 근로자들이 다칠 경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병창 내에 병원이 있었음. 해방 이후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군 병원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됨.	지영래
기타		오상기, 유만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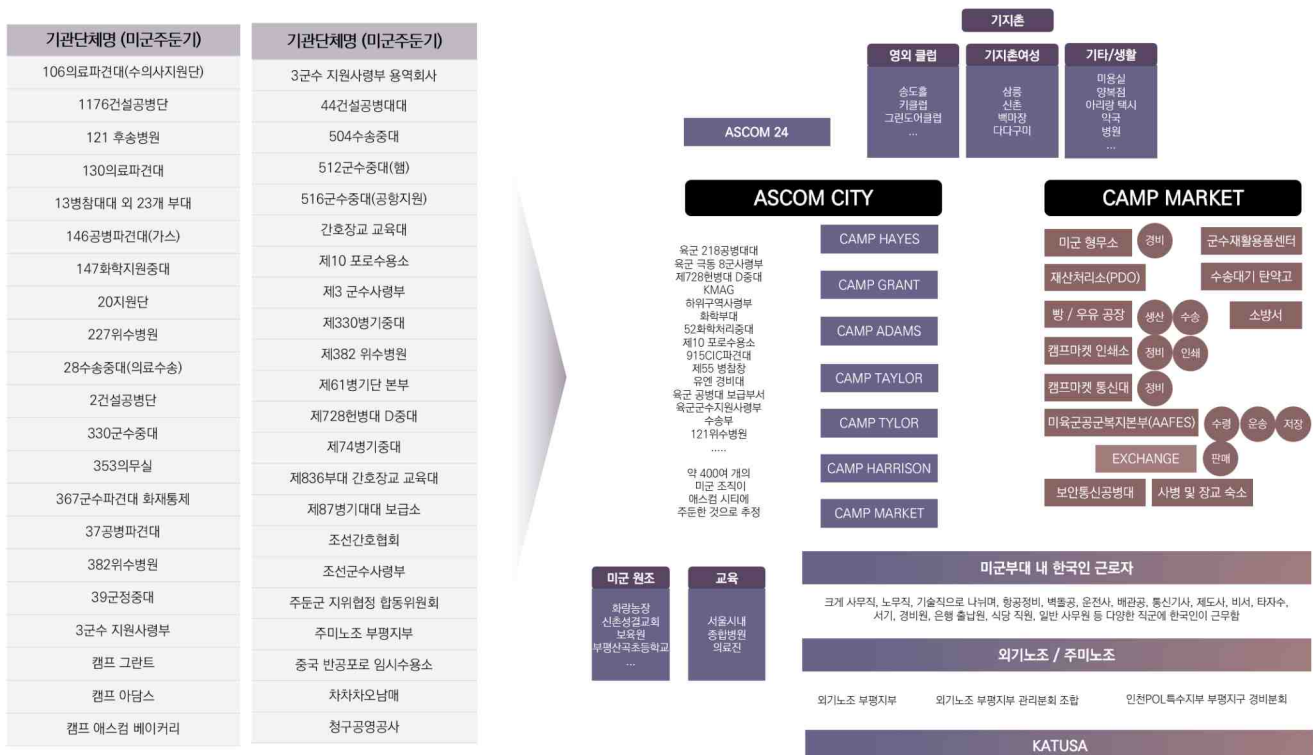
[그림 29] 인천육구조병창 관련 기관단체 및 공간 현황

에스컴시티 내부 공간 특성 및 역할

- 에스컴시티가 존재했던 시기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였다가 캠프마켓만 남게 되면서 기능 및 역할이 축소되었음.
- 당시 근무했던 미군이나 한국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구술 조사를 시행하여 부대 내부의 시설 특성, 기능 및 역할, 사건과 사고 등을 파악하였음.
- 부영공원 내 지하 시설, 부대 외부 기지촌 등을 제외하고는 에스컴시티, 캠프마켓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30〉 구술을 통한 공간 현황 파악 (에스컴시티)

공간/역할	설명	구술자
역할 중심 구술	에스컴시티, 캠프마켓 내에서 군인/카투사/군속 등으로 근무했거나, 밴드 활동을 하며 미군 부대에 자주 출입했던 구술자들을 그룹핑함. 미군 부대 내에는 상당히 다양한 직군이 기능했을 것으로 파악되는 바, 더 많은 직군과 구술자의 확보가 필요함	백성호(제10 포로수용소), Tim Norris(미군 형무소 경비), 정O방(미군 부대 수송부, PX 근무), 김용수(PX 근무, 외기노조 조직부장), 심일운·차영수·윤항기·차경수·이관섭(미군 클럽 관련 활동), 정근(아리랑 택시 운전), 한정철(에스컴에서 카투사로 근무), 최병무(에스컴에서 자동차 수리), 이은경(에스컴 항공정비사), 최종희(미군 부대 내 구두닦이 및 식당일), Thomas D. Casey(레크레이션 책임부사관), Leroy E. Shuff(미 해병 제5연대 2대대 D중대 기관총 사수), 류기범(제512정비중대, 제728헌병대), 허의석·정호석(에스컴에서 카투사로 근무)
부영공원 지하시설	지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지하시설을 직접 목격한 경우를 포함함	정허섭(3군수 지원사령부 600수송대대 근무), 이한수(88정비대대 근무), 박의양(통신대 근무), 이종용(인쇄소 기계정비)
부대 외부	기지촌 내 클럽, 약국, 미용실 등 상업활동을 했거나 기지촌에 거주했던 사람들	차영수, 임종우, 이종숙, 차경수, 한정순, 배원철, 홍수환, 조유형, 이상배, 김영식, 김용선, 김재선, 고모씨, 김철수, 전지용, 박차영
기타	이 지역에 거주했던 기억을 책,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 남기고자 시도한 사람들	Milton Washington(에스컴 근방에 거주했던 혼혈인), 이원규(소설가, 에스컴 및 미군 부대 인근 이야기 서술)



[그림 30] 에스컴시티 관련 기관단체 및 공간 현황

4. 종합 분석

시대변화를 기억하기 위한 구술 시기의 다양화

- 그간 진행된 구술은 주로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강제동원자, 에스컴시티 재편성기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빠진 시기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술대상자 및 구술 시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캠프마켓 시기, 한국전쟁기 전후, 부지반환 이후 등 최근의 시점은 일상적 현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대상지의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의 어려운 현실적 조건 극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요함.

기관단체 조직인물 등 구술대상자의 확대

-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이 됨. 앞서 도출한 기관단체 및 공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그간의 구술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직군, 인물, 사건 등 파악해야 함.
- 무기제조 공장, 병참기지, 군수지원시설 등을 지원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함.

장소기반 구술 접근의 시도 필요

- 지금까지 26명이 중복해서 구술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복적 참여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함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A, B구역이 반환되었고 향후 D구역도 반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구술의 경우는 당사자들과 함께 현장에 머물면서 진행하는 「장소 기반 구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 재검증 및 추가 이슈 등으로 인해 진행되는 반복적 구술은 권장함

* 장소기반 구술은 기억장소를 동행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전달 받음(구술자 참여 의사 중요)

우선순위 구술자 중심 선행 연구 진행

- 구술대상자 나이가 80~90세에 이르고 70여 년 전의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억의 왜곡 및 망각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조병창의 경우는 광복 후 자료 파기로 인해 관련된 자료가 당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구술 자료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5. 제언 사항

기존 구술경험 연계한 통합적 작업수행

- 구술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부평역사박물관은 22개의 자료 중 7개 자료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지역에 대한 배경지식과 구술 채록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구술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구술 채록에 대한 방법론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함. 기존에 구술조사를 수행했던 연구자의 경험을 잘 이어받아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후속 연구를 위한 구술자료 연속적 활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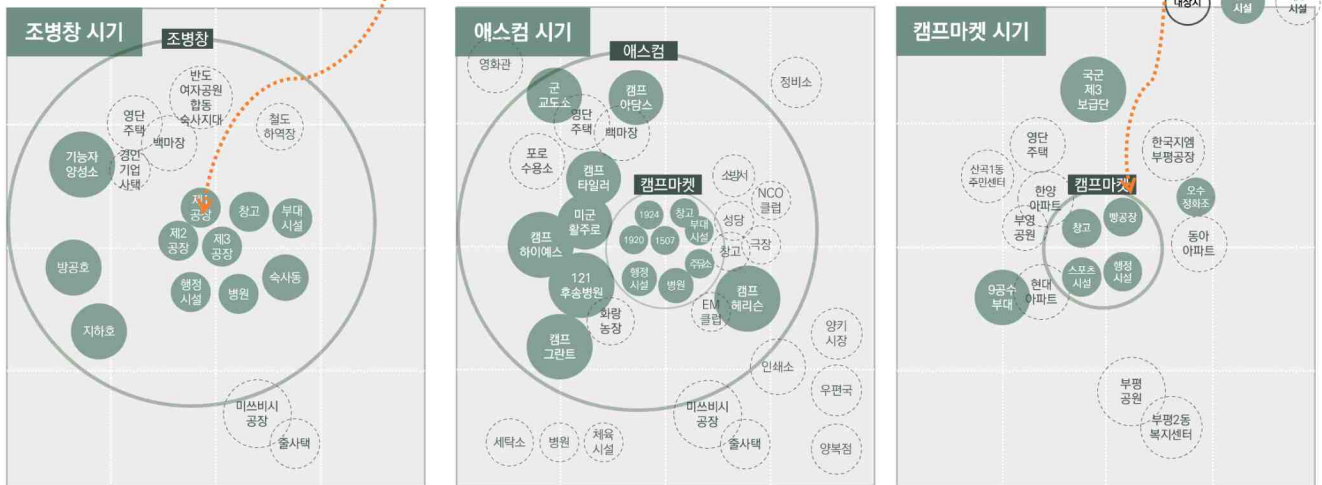
* 전거 레코드란 기록물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선정된 단체, 인물, 사건 등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상세기술하고, 다른 전거 레코드와 연결하여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금까지의 구술 성과품들은 개인신상, 비밀 유지 등으로 인해서 녹취 원문을 게재하지 않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연구성과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구술의 내용 중 공간·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추출하여 전거 레코드* 로 생산·축적·관리하여 장소 기반의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발굴 등으로 확장함

개인면담



집단면담



[그림 31] 구술 자료와 공간 전거레코드 연계

누락된 시기 및 대상에 대한 보완 필요

- 조병창, 에스컴시기, 캠프마켓에는 매우 다양한 기관과 직군이 있었으므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능, 인물, 역사에 관해 다층적 연구가 필요함.
- 현재까지 접촉하지 못하거나 비중을 두지 않았던 미군 근무자, 지역 사회 활동가, 시민참여위원회, 지역주민들도 구술의 대상이 되어야 함.

구술자 선정기준 마련을 통한 구술 대상 구분

- 구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앞서 도출한 사항을 바탕으로 구술작업을 진행하도록 함. 이때 시기 및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되 그룹별 특성을 고려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함.



[그림 32] 구술 대상 선정기준 및 구술 대상 분류

제4절 기록생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1. 건축물 조사분석을 통한 가치 발견

1.1 건축물 조사 및 가치평가

반환된 A, B 구역을 중심으로 건축물 아카이브 작업 수행

- 2019년 12월 한국 정부와 미군의 합동위원회를 통해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 병창과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던 캠프마켓 부지 반환이 결정⁸⁹⁾되었음.
- 이를 계기로 주한 미군 측은 캠프마켓 1단계(A,B구역) 건축 도서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인계했고, 2020년 1월 인천시는 본 건축 도서를 인수하여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도서 전량을 임시 보관하고 있음.
- 보관하고 있는 도면 해제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어 확보한 건축설계도서⁹⁰⁾와 부대자산카드⁹¹⁾를 통해 ‘캠프마켓 건축물 아카이브’ 결과물을 도출함.
- 건축 도면은 토목,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으로 구분되며, 시기별 건축행 위 특징, 시공 상세, 건축 기술력, 건축재료 사용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그 이후 A, B 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정화가 시행되며 일부 건축물의 훼손 되거나 소멸하기도 하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였음.

89) 인천시립박물관(2021), 『캠프마켓 1단계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 p.6

90) 1958년 1월21일부터 2003년 1월 17일까지 미국측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은 총 958매이며 이중 A구역은 총 19동에 대한 419매, B구역은 총 19동 482매이고, 이외 기타로 분류된 2건의 수선프로젝트는 57매 도면으로 구성되어있다(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별책 : 캠프마켓 1단계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 2021, p.12).

91) 부대자산카드(Transfer and Acceptance of Military Real Property)는 총 74점이 전해지며 각 건물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수선, 증개축, 신축을 했는지에 대한 시간순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남은 D구역은 2023년 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캠프마켓 내에서 건축물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앞서 수행한 기록화 및 해제 경험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건축물 조사 작업이 필요함.

국방부 1단계구역(A,B) 반환 ⇒ 인천시립박물관 설계도서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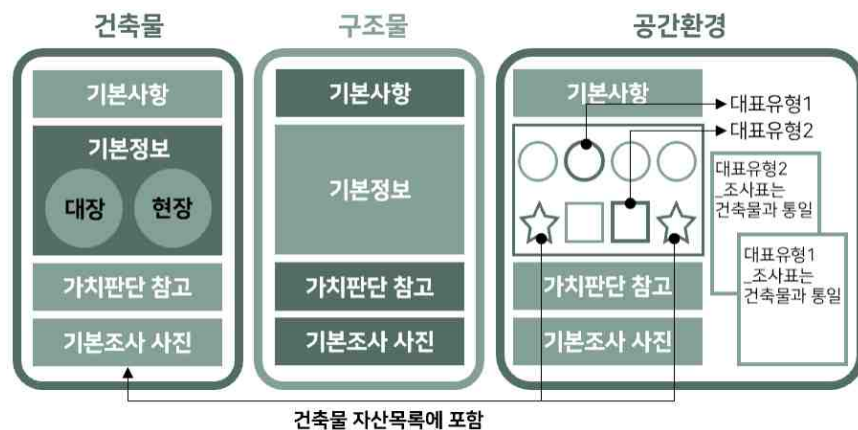
1958년~2003년 생산 958면 도면 / 부대 자산 카드 74건 건축행위 정보



[그림 33] 캠프마켓 1단계 반환에 따른 건축물 기록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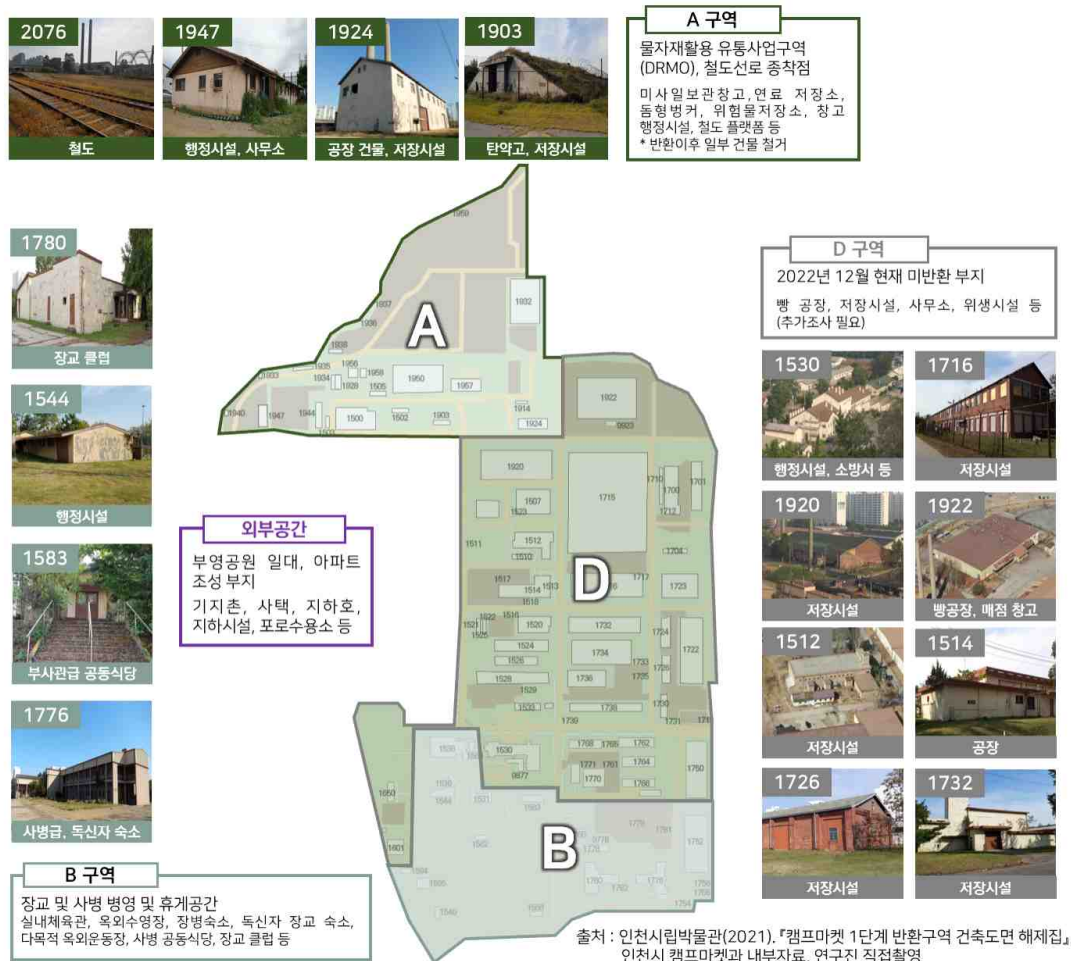
반환 예정인 D구역 중심 건축물 조사분석 및 평가작업 필요성 대두

- 캠프마켓 내 건축물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 경제적,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으로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고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하지만 건축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과 훼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음.
- D구역은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 건축물 자체의 심층조사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이 갖는 역사성(용도, 내용, 변천 등)이 더욱 중요함⁹²⁾.
 - 점, 선, 면 단위 건축자산 구분을 통한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 조사표 작성
 - 관련 연구 및 구조조사 근거 기술적 성과, 역사적 사건 연계하여 분석 진행
- 이와 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서 건물 보존의 당위성을 설정하거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축물의 철거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판단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34] 건축자산 조사 목록 구축 방안

92) 현재 건축물 보존에 대한 이슈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어 이른 시일 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사분석이 시행되어야 함.



[그림 35] 캠프마켓 구역별 주요 건축물 현황

1.2 실측 및 3D스캔

실측도면 작성

- 건조물의 물리적 현황을 건축도면 양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캠프마켓 내 건축물이 토양오염정화 및 공원 조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거 및 훼손될 시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통한 보존 및 재현이 요구됨
- 측정방식
 - 수작업에 의한 측정: 줄자를 활용한 측정. 현장에서 야장 작성 후 CAD로 도면화
 - 광파기, 사진기, 3D스캐너를 활용한 실측. 추후 프로그램으로 측정데이터의 정확성 향상
- 실측조사 단계
 - 먼저 정확한 건물의 형태, 높이, 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광파 측량기를 이용하여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수작업을 통해 치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함
 - 변형의 흔적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에 조사된 문헌과 현황을 비교하고 이들 자료를 통해 건물의 원형을 파악하는 데 참고함
 - 주요 부분의 콘센트 및 조명기구를 일부 해체하여 최대한 내부의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Auto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면화함



수작업에 의한 측정 - 야장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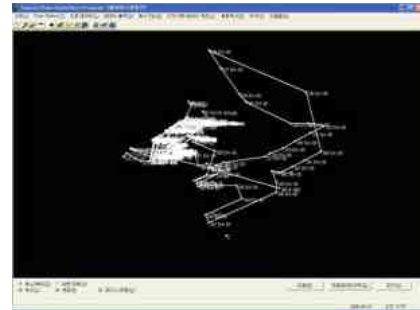
수작업에 의한 측정 - 건물실측



기계를 활용한 측정 - 스캔



광파 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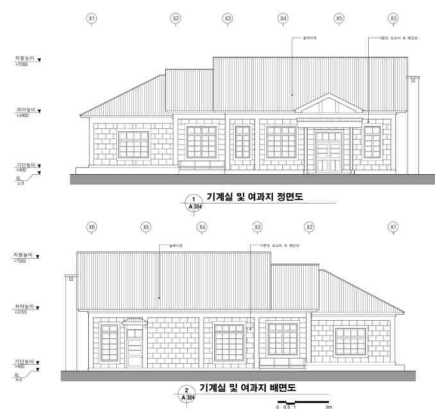


광파측정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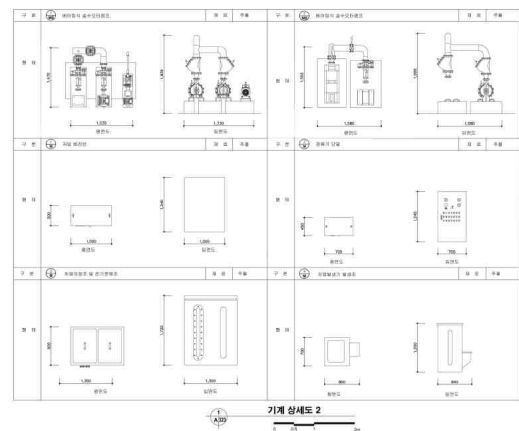
[그림 36] 실측 조사 과정 사진

• 실측대상

- D구역 내 주요건축물: 입면/단면/평면도, 주요 상세도 작성
- 그 외 건축물: 약식도면 작성



입면도 ©문화재청



주요부재 상세도 ©문화재청

[그림 37] 입면도와 주요부재 상세도

3D스캔

〈표 31〉 스캔 방법별 특징

	3D 레이저 스캔	3D 이미지 스캔
결과물		
활용 기계		
설명	레이저 펄스를 송출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형상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	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한 3D 캡처 서비스 Matterport를 이용하여 공간을 스캔하는 방식
생성물	포인트 클라우드	VR 파노라마 영상
장점	-비교적 장거리 데이터 취득이 용이 (LiDAR기반으로 3차원 형상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 -3D 스캔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음.	-고해상도의 360 VR 이미지를 취득 가능 -비교적 간단한 조작으로 스캔 가능 -자동으로 정합되어 데이터 후처리 기간도 줄어 작업 시간이 단축됨.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온라인에서 VR이미지를 볼 수 있음.
단점	완성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 후처리 과정이 필요함.	레이저 스캐닝보다 형상 정보의 정확도는 비교적 낮은 편임(이미지 기반으로 3차원 형상정보를 취득하기 때문).

1.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변화되는 공간과 그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캠프마켓은 중요한 자산이 다수 존재하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공간임.

사진 촬영

- 피사체를 포착하여 렌즈를 통해 감광유제(필름)에 기록하는 작업. 포착한 피사체의 이미지를 렌즈를 통해 디지털화하여 기록하는 과정임.
- 대상
 - 건축물 : 캠프마켓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 변화상
 - 수집물품 : 캠프마켓 내 수집한 물품류
 - 경관 : 캠프마켓 전체 및 구역별 모습
 - 인물 : 과거 근무자/생활자, 행정가, 활동가 등 (구술채록사업과 연계)
 - 행사 : 이벤트, 개장행사, 운영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연계)

- 방법

- 건축물 현황사진의 경우, 조감/4면/주요 디테일 포함하여 촬영
- 경관 사진의 경우,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같은 위치에서 지속적 촬영
- 박물관사진의 경우, 단일색배경과 적절한 조도에서 촬영



[그림 38] 건축물, 박물관, 경관 등의 사진 촬영 방법 예시

- 건축물 조사와 연계한 사진 촬영

- 장기보존을 위한 기록용 사진촬영과 연구 분석을 위한 사진 촬영으로 분리하여 실시함
- 기록용 사진은 대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원판필름을 보관하며 분석용 사진은 슬라이드필름과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함
- 사진 촬영 순서는 외관의 모습으로부터 내부의 모습으로 단계별로 진행함. 특징적인 건축요소 및 디테일들을 기록하기 위한 부분촬영을 병행함
- 부분촬영은 수작업이나 기계측량이 어려운 곳의 건축요소, 구법, 재료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함

동영상 촬영

- 동적인 피사체를 포착하여 피사체 이미지를 필름이나 테이프 기록 디지털화하는 과정임
- 대상
 - 대상지 내 외부 경관 변화과정 기록(시간의 흐름, 계절의 전환)
 - 역사적 건축물의 흔적지역, 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과정의 기록
 - 인터뷰 영상 : 과거 근무자/생활자, 행정가, 활동가 등 (구술채록 사업과 연계)
 - 행사 영상 : 특별 이벤트, 문화예술 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 방법
 - 고정형 타임랩스카메라 설치를 통한 지속적 변화과정 기록

- 촬영 대상 및 장소에 따라 인터뷰 타임과 레코딩 타임 고려 중요
- 흔들림을 억제하는 정교한 촬영에 대한 고민 필요
- 추후 홍보영상 및 전시 콘텐츠 활용 가능성 고려



구술채록영상



건설과정 영상

출처 : 증평기록관, 서울기록원

[그림 39] 동영상 촬영 예시

2. 참여형 기록문화 활동 전개

2.1 참여형 기록 수집

추진 방향

- 지역에서 개인, 단체의 이름으로 자생적이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현황과 그들이 생산하는 기록의 종류, 방식, 보관 형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캠프마켓 아카이브가 풀뿌리 기록 활동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공공/협치/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기록 활동을 식별하고 이후 협력에 기반한 기록화를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추진 절차 및 방법

- 협력대상 선별 : 면담 우선순위 선정하는 과정으로 다음의 기록활동 선별 기준을 고려해서 선별함(〈표 32〉 참조).

〈표 32〉 협력대상 기록 활동 선별기준

연번	선별 기준	사유
01	시민주도형 기록활동	본 사업이 민간의 자생적인 기록활동에 초점을 맞춰 협력에 기반한 기록화를 추진하기 때문임
02	민관 거버넌스	캠프마켓 아카이브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기록화를 추진하므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는 기록활동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03	지속가능성	협력관계를 통한 기록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발성 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기록활동에 초점을 두었음
04	사회적 의미	기록활동 주체와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선시하고자 하였음
05	시급성	빠른 시일 내에 기록화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거나 잊혀질 기록에 초점을 둠
06	주요 시정	캠프마켓 관련 공공아카이브로서 주요 시정과 관련된 시민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시정과 연관된 시민의 삶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였음

- 면담 조사 :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대상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협력·지원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함.
 - 면담을 실시하여 리드파일(lead file)과 케이스파일(case file)을 완성함
 - 면담 시 시민 기록화 키트⁹³⁾를 통해 캠프마켓 아카이브가 본 사업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
 - 사전설문지(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기관/부서별 주요 기록 활동과 기록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여건, 기관/부서의 기록 활동 의지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함

2.2.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지속화 방안 마련

협력네트워크 구성 : 추진 방향

- 기록 활동 주체와의 협력·지원을 통해 기록화를 추진하며,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이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지원함.
- 공공영역의 지역기록화 성과와 협치를 통한 기록활동 성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민간영역의 자생적인 기록활동이 지속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기록활동 주체의 자발성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지향하며, 사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협력 범위를 정하여 상호 연대하고자 함.

협력네트워크 구성 : 추진 절차 및 방법

-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행 절차는 기록활동 발굴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며 “협력 방안 논의 -협약 체결 -협력사항 이행” 3단계로 진행됨.

〈표 33〉 협력네트워크 구축 절차

기록활동 발굴 과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과정		
기록활동 발굴	협력대상 선별	면담(인터뷰)	협력 방안 논의	업무협조 및 협약 체결	협력 사항 이행

- 협력방안 논의
 -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는 기록활동 발굴과정의 면담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됨
 - 기록활동 주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체별 요구사항을 파악함

93) 면담 준비와 진행 이후의 정리를 구상한 인터뷰용 키트를 구상하였다. 업무담당자가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협력네트워크 목록, 리드파일, 케이스파일, 사업소개서 및 사전설문지, 동의서, 업무협약서, 인수인계서 등 7개의 양식으로 구성하였다.

- 기록활동 주체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협조 또는 제공 가능한 협력·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함
- 업무협조 및 협약 체결
 - 공공/협치영역의 주체와는 상호 업무협조 공문 수·발신을 통해서 실시함
 - 민간영역의 주체와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협력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함
- 협력 사항 이행
 -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 지속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을 이행함

협력네트워크 지속 방안

- 목적
 - 협력네트워크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기록화를 목표로 기록활동 주체와 캠프마켓 아카이브, 중간에서 둘을 연결하는 조직으로 구성된 협력·소통망임
- 방법
 - 기록 활동 주체 면담과 협력 방안 논의 결과 도출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가능한 협력·지원 방안을 제시함
 - 요구사항과 협력·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성원 간 협력 내용과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제시함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역할

- 기록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공공/협치/민간영역의 기록활동 성과가 장기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시민에게 서비스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교육 및 컨설팅, 기타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록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협력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협력네트워크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며, 기록활동 주체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기록활동 주체별로 기록활동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속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하여 맞춤형 협력·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 정보교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소통 및 협력 채널 역할
 -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기록활동 주체 간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함
 - 기록활동 주체들의 리드(lead)를 파악하고 리드파일을 작성하여 기록활동 주체들이 상호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함

- 워크숍, 세미나,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기록활동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
- 장기간의 안전한 기록 보존·관리
 - 캠프마켓 아카이브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로, 물리적·전자적 형태의 기록을 장기간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온라인 저장 공간은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해결하되 그 '절차'가 복잡하면 기록활동 주체들이 이용하기 힘들므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을 고도화해야 함
 - 오프라인 저장 공간은 문서고를 통해 해결하되 서고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이관 받아야 함
 - 오프라인 저장 공간 외에 전시 공간 일부는 기록활동 주체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시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참여 기록활동 공간으로 활용해야 함
- 향후 추진 방향
 - 협력을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1차년도에는 기록활동 대상들이 주로 요구하는 온라인 스토리지에 대한 제안, 기록화 활동 단체와의 교육, 매뉴얼,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포럼, 라운드 테이블 등의 기획을 통해 지원방향의 유사성을 담은 협력대상을 모색하는 방법이 가능함
 - 이와 함께 기록물의 물리적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내부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후 연도에는 물리적 수집 기준, 예산,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1차년도 협력대상의 요구사항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음

3.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인식 제고

3.1 생활 속 기록문화 확산

- 참여형 기록 수집 유도(시민기록 수집공모전)
 - 자발적 기록물 기증 유도 : 기증 안내장 발송, 기록물 기증 언론 보도, 기증 공모전 개최 등 생산적 수집 진행
 - 참여유도 이벤트 개최 : 일상생활, 공간기록, 도시경관 등 과거의 옛 기억 자료를 수집하는 행사 진행
 - 포토텔링(Photo+Storytelling) : 촬영된 사진과 연계하여 캠프마켓 관련된 일상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
 - 팩션 스토리텔링(Faction Storytelling) : 역사적 사실에 가상의 이야기를 경험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전달하도록 함
- 생활 속 기록문화 확산(미래세대 교육 콘텐츠 제공)
 - 다양한 교육적 경험 제공 :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기관 역할 수행

- 워크북 기반 체험활동 : 기록학습교구를 활용하여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 기록문화학교 워크숍 : 미래세대 시선과 생각 기록을 통한 동시대적 의미를 재생산하는 활동
- 로컬 아키비스트 프로그램 : 캠프마켓 관련 역사와 일상적 이야기를 직접 기록 화하고 전시하는 기회 제공

3.2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활동

- 캠프마켓의 역사적 가치 및 상징성 기반 인문사회 학술 연구활동 수행함.
 -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미군주둔기 등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 및 발굴된 사료를 통한 전쟁사, 한국사 연구
- 캠프마켓의 공간 및 건축물 활용을 위한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함.
 - 부지반환 이후 공원 결정 과정, 설계 공모를 통한 공간 계획, 건축가·조경가 등 전문가의 사회참여, 시민참여 의견수렴 등 공원 조성을 둘러싼 이슈 연구
- 미군기지 반환 이후 역사성 기반 공간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협력적 기록물 수집, 혁신적 공간변화 등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도시 및 국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담론 생산 가능
 -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기관별 소장자료 공유, 국제교류 학술연구 프로젝트 진행
 - 공동연수, 공동연구, 번역출간 등 대외 교류를 통한 연구 기능의 확장 시도
- 미군 부대 근무자 네트워크 활성화
 - 과거의 추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3.3 브랜드 홍보마케팅 구축

- 기록자산 재해석을 통한 콘텐츠화 :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창의성과 실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감성적 문화상품 개발
- 기록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상처와 아픔의 기억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하여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는 방안 마련
- 특별전시 상품 기획전 개최 : 과거의 공간, 시설, 이야기 등에 의미를 더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회 제공
- 출판물 및 전시도록 제작 배포 :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행물 발간



[그림 40] 참여형 기록문화 활동

05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계획

제1절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해

제2절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능 및 역할

제3절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방안

제5장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계획

제1절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해

1. 개념정립

- 디지털 아카이브는 디지털 기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록보관소에 실체가 보관되어있는 기록물이나 자료 등을 전자적인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한 것임. 디지털로 변환한 각종 자료는 유통과 가공, 보존의 용이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⁹⁴⁾.
-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보존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1) 기록물의 장기보존(관리)과 2)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및 지식의 공유화(서비스)를 목적으로 함.
- 더 나아가 디지털 아카이브는 ‘콘텐츠 아카이브’로 일컬어지며, 아카이브 자체를 서비스이자 콘텐츠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방점은 기록정보콘텐츠 공유와 활용에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원리: 아날로그방식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원자료를 열화현상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항온/항습 시설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이용자에게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의 편의성 보장 및 원자료의 장기적인 보존을 도모함⁹⁵⁾.

2. 잠재적 가능성 및 요구사항

- 캠프마켓 관련 기관으로는 인천시립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문화원, 인천연구원, 국방부, 문화재청 등이 있음.
- ‘연결’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점 중 하나임. 아카이브-(아키비스트)-이용자의 연결도 주요하지만, 이외에도 국가나 기관 간 연결은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각 기관별 사명, 수집 정책, 소장 자료 등이 다르므로,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 각 기관의 소장 자료나 연구조사 결과물의 논조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됨.
- 캠프마켓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주체가 다양함.
 - 이에,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형으로 ‘참여형 아카이브’를 제안함
 - ‘참여형 아카이브’는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록을 제공하던 아카이브의 전통적

94) 광주발전연구원. 2012. 「5.18아카이브 구축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95) 광주발전연구원. 2012. p. 94(김주관 2006. 재인용)

인 역할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를 의미함. 또한 인터넷의 보급, 디지털 아카이브의 보편화로 아카이브는 이용자-(아키비스트)-아카이브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며 ‘탈보관주의’ 아카이브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본 대상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기억하는 사람만이 주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캠프마켓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의견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 형태의 아카이브를 제안함
- 참여형 아카이브는 세 가지 유형 - 적극적 참여, 허브방식 참여, 소극적 참여-으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적극적 참여’는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기록을 생산·소비·소통하는 형태로, 이용자의 참여도가 최대화되는 플랫폼을 의미함. ‘허브방식 참여’는 플랫폼이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기록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으나 제공되는 기록을 열람하고 코멘트를 작성하는 등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의 참여 방식을 의미함. ‘소극적 참여 유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플랫폼(기록관)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기록을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함
- 다만 참여형 아카이브의 경우 정보의 객관성의 문제 등 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참여형 플랫폼의 메커니즘이나 모델, 이용자의 참여방식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논의,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져야 함.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TNA)는 ‘Your Archives’라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2년에 폐쇄함. TNA는 서비스 중단 이유를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니즈의 변화’라고 밝힌 바 있음

물리적인 공간/장소/지역의 범위와 형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함.

- 현실적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콘텐츠로 서비스할 수 있고 캠프마켓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 가상공간(VR)을 운영할 수 있음.
- 역사지리정보시스템(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GIS)을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과거 공간을 복원하여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음.
 -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은 과거의 지역/지리적 정보를 DB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과거의 길, 교통로, 경로, 과거 지역의 토지이용 등 지리적 정보를 ‘복원’함
 -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고지도, 고문헌, 그림, 문화재 등 역사적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를 웹 사이트상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⁹⁶⁾
 -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은 지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도우므로 초·중·고등학생을 타깃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에 유효함
 - 국내 사례로는 1)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⁹⁷⁾와 2) 한국학중앙연구원 HGIS 기반 조선시대 역사지도⁹⁸⁾가 있음

96) 홍명진. 2017. 「일본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의 연구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일본 근세 시대 지역공간 복원방법을 사례로 -」

97) <https://gis-heritage.go.kr/main.do>

98)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7-KFR-1230001>

- 캠프마켓과 관련된 기록물은 지속적으로 생산·수집될 것으로 예상됨.
- 시민 기록물 공모 및 수집, 구술채록,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등의 사업을 통해 생산·수집된 기록물은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보존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내 디지털 자료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될 것으로 파악됨.

〈표 34〉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내 디지털 자료의 4가지 유형

디지털 자료 유형	설명
수집된 기록자료 (구입, 발굴, 기증 등)	기관에서 이관된 자료, 구술 녹취록 및 영상, 개인 소장품, 해외 소장 기록물 등
연계형 소장자료 (개인 작품, 타기관 소장 기록물 등)	인천시립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기타 연구기관의 소장자료
참여형 기록자료 (기증, 기탁, 납본 등)	미군 군무자 및 일반시민 기증자료, 공모전 수집 자료 및 개인의 기억 등
지속적 생산 자료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반환 이후의 활동, 문화공원 조성과정, 도시공간변화기록(골포천 등)

제2절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및 역할

1. 효율적 기록물 관리

-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지역 내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부평역사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부평문화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해야 함.
 - 이러한 기관간 연계는 추후 연구조사와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에 있어 중복 수집을 방지할 수 있음
 - ‘경기도메모리99’의 경우 도내 지역문화의 발굴/조사/연구 및 활용에 있어서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발간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을 매해 개최하였음
 - 캠프마켓 아카이브와 (유관)기관의 기관 협의회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기 유관 기관 외에도 부평구 인근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또는 구축할)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연계도 검토해야 함.
 - 일례로, 미추홀구는 아카이브센터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고 구민의 다양한 구술 채록 영상 등을 게재하고 있음. 모 구술자가 미군 부대에 대해 언급한 내용(“미군이 문학산성 폭파 ... 철조망 때문에 오히려 인천 시민은 가지 못하는 땅이었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미군 부대에 대한 기억은 부평구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됨.
- 연계 기관 및 방식을 확장하여 추후 타 지역의 미군 부대 반환부지 아카이브와의 연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의 문화자원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인 ‘경기도메모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경기도메모리’를 시작하였으며 도내 각종 문화기관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신정아. 2020)

-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관의 소장자료 중 캠프마켓과 관련된 기록물/박물의 목록을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원문보기’를 클릭하면 소장처의 디지털 아카이브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함
- 목록은 기관의 시스템 간 원격으로 동기화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IS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시 이 기능을 포함시키면 효율적인 연계와 관리가 가능함. 실제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기관은 이 기능을 사용하여 기관의 소장자료 내역을 발행하고 있으며, 연계된 기관은 동기화된 목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⁰⁰⁾

2. 기록물 장기 보존

- ‘디지털 아카이빙’과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¹⁰¹⁾.
 - 디지털 아카이빙 : 디지털 정보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저장 활동
 - 디지털 보존 : 데이터의 형태가 안전하게 관리되어 변하지 않고 장기 보존되도록 함
 - 디지털화 :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키는 작업
-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는 본 디지털(born-digital)을 수집하거나, 사본 수집으로 디지털화 작업(digitizing)을 통해 생산된 디지털 기록의 경우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고려해야 함.
-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수집이 예상됨.
 - 종이기록물, 박물류, 사진류, 디지털 기기(카메라, 드론, VR 등)로 생산된 마을 및 경관 아카이브 결과물 등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장기보존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전자기록은 시스템 의존성과 기술의 급변으로 인한 매체 및 소프트웨어의 노후성, 휘발성, 중복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전자기록 생산 단계부터 기록 생산 포맷을 통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기록물의 디지털 변환에 있어 원칙이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디지털 변환 원칙을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안함.

100) 2022-07-20, 전해영(아카이브랩) 자문 내용

101) 장운금.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1 no.4 , 2010년, pp.193 - 203

〈표 35〉 디지털 변환의 원칙

원칙	설명
자료의 유일성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할 수 있고, 미래에도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
정보적 가치	디지털 변환 이후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전달력이 증가될 수 있는 자료
물리적 상태	이용가치가 있으나 마모 및 손상이 발생하여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지원 시스템	디지털 변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이용해 적정한 비용으로 디지털 변환 작업이 가능한 자료
법적 고려사항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 기록의 활용에 문제가 없는 자료

- 기록물 디지털 변환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36〉 디지털 변환의 우선순위

1순위	훼손 및 소멸의 가능성이 높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가 예정되었거나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 캠프마켓(조병창, 애스컴시티)에 대한 기억을 가진 구술자가 연로한 경우 - 보존연한이 지난 기록물(공공기록물 등)
2순위	당시의 맥락 및 정황을 알 수 있는 일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장품, 과거에 생산된 일상적 기록물 -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구술자(직접 경험자) - 후속 연구 및 기록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
3순위	다른 기관 및 단체, 민간인 소장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소장 자료 및 수집된 해외 소장 기록물 - 연구자, 2세대, 생활자 등(간접 경험자) - 반환 이후의 활동 등 현재 시점에서 생산된/되고 있는 기록물

서비스(콘텐츠) 개발

- 내·외부 이용자의 욕구와 이용 목적에 맞추어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내의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함.
- 이용자군에 따라 원하는 기록물의 유형이 다름.
 -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와 시민이 원하는 자료는 다를 것으로 예상됨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장서개발에 있어 대상과 범주를 다섯 개의 단계 - 1: 최소수준, 2: 기본정보수준, 3: 학습교육지원수준, 4: 연구수준, 5: 포괄적수준 - 로 구체화하여 상세지침을 마련하고 있음¹⁰²⁾. 이러한 방식을 아카이브의 서비스에도 적용하여, 이용자별 서비스(검색가이드, 프로그램 등)를 개발해야 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와 같은 주제형 아카이브는 관련 기록물에 대한 집중적인 기록 수집이 가능하므로,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기록에 쉽게 접근하고, 해당 주제와 기록물에 대

102)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18)

한 이용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¹⁰³⁾.

- 온라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 콘텐츠, 2) 플랫폼, 3) 도구 등으로 나누어 아래 표와 같이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음.

〈표 37〉 온라인 플랫폼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행계획

콘텐츠	플랫폼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대상 콘텐츠 수집 및 선별 - 저작권자와의 권리 문제 해결 - 목록화 및 디지털화/변환 작업 - 콘텐츠 제작 - 프로그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플랫폼 제작 - 이용자군별 전용 페이지 제작 (실무자 전용 공간, 연구자 전용 공간, 시민 전용(참여/소통) 공간, 기증자 전용 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그룹별 온라인 - 검색가이드 제작 - 검색도구 개발 - 디지털 원문 뷰어 개발 - 메타데이터 설계

3. 아카이브 시스템 요소

시스템

- 일반적으로 기록관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변환 장비와 보존 및 복원처리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서버 장비는 성능, 안정성, 확장성, 경제성, 연결성 및 대량 데이터 백업, 스토리지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백업정책도 수립되어야 함.
- 수집 예정의 기록물은 다중 출처의 기록물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개체(다중분류)를 지향하고 국제표준기반 데이터 상호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 인천시 내·외부의 모두가 쉽게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과 관련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동향을 반영하여 아카이브 시스템 설계의 방향을 정해야 함.
- 기록, 도서, 웹 기록 등 모든 기록을 입수하고 디지털 객체, 인물, 단체, 사건, 정책, 연표, 관계 정보 등 맥락정보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함.

메타데이터

- 기관별 관리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현황 파악
 - 상기 언급한 (유관)기관과의 목록 동기화 등 자료 연계를 위해서는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 아카이브별 메타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해야 함
- 아카이브 표준 메타데이터 개발
 - 기록 메타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등록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야 하며, 기술규칙 외에 기록유형별로 상세한 등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 및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상호호환성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메타데이터가 개발되어야 함

103) 한희정, 「국내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분석 및 시사점」,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창간호, 2018

기록물 유형

- 캠프마켓은 유관 기관, 이해관계자, 시민 등 주체가 다양하고 네트워크가 복잡다단하며, 네트워크뿐 아니라 캠프마켓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의 1) 참여를 유도하고 2)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 필수적임.
- 시민 기록물 공모 및 수집, 구술채록,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 등의 사업을 통해 생산·수집된 기록물은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보존 전략의 수립을 필요로 함.
- 디지털 아카이빙이 필요한 캠프마켓 관련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8〉 디지털 아카이빙이 필요한 캠프마켓 관련 자료

<p>[유형1] 기 소장자료</p>	<p>반환 이후 공식적으로 이관 생산된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제공 부대 자산 카드, 건축도면 등 • 일부 건축물 철거 이후 보존된 부속물 <p>확인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개인 기록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통합 목록화 작업을 통해 확보된 자료 • 유관기관 등 소장품 가운데 협력 가능 자료
<p>[유형2] 직접수집 자료</p>	<p>국내외 소장 해외 기록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소장 기록물 확인 이후 디지털화 수행 • 해외 소장 기록물 직접 방문 이후 디지털화 수행 <p>수집, 이관, 발굴 사업을 통해 파악된 기록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및 구술사업에 따라 확인된 자료 • 사진, 영상(VR) 등 촬영을 통해 생산된 자료
<p>[유형3] 참여제공 자료</p>	<p>이벤트성 공모전 및 기록화 활동 생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도시경관 등 기억 수집 행사 개최 • 기록문화학교 등 교육활동으로 도출된 자료 <p>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기반 수집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발적으로 게시된 자료 • 협력 관계를 통해 기증되었거나 이관 요청된 자료

제3절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

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식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구축

- 캠프마켓 관련 수집 자료는 문서자료(hwp, pdf, ppt), 사진자료,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의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형 시스템이어야 함.
- 정보생명주기 프레임워크 관점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빙 단계는 생성(creation), 수집(acquisition), 목록/확인(cataloging/identification), 저장(storage), 보존(preservation), 접근(access)을 포함¹⁰⁴⁾하며, 이에 따른 아카이브 업무 지원과 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함.

문화다양성 지식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현적 가치가 있는 핵심 콘텐츠를 기획하여 생산·수집하는 개념의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자료를 보존하고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지식기반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함.

디지털 파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표준포맷 전략 수립

- 유형이 같은 자료라도 각기 포맷이 다른 경우가 있음(문서자료: hwp, pdf, ppt / 사진자료: jpeg, gif, png / 영상자료: wmv, avi, YouTube / 음향자료: mp3, wav, midi).
- 표준포맷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한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업체에 의해 유지된 독점 포맷보다는 국제표준이나 공개된 비 독점적 포맷을 선정하는 것이 상호호환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용이함.
- 이에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음향, 영상, 사진 등의 자료들에 대한 포맷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야만 문화자료의 장기적 보존을 꾀할 수 있음.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조직체계 구축

-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키비스트(혹은 기록관리담당자)와 개발자 및 시스템 엔지니어(혹은 시스템 담당자)가 한 팀을 이룰 필요가 있음.
-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학예사, 건축가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대상 자료의 선정,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수집계획 수립,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함.

104) 장윤금. 2009. (Hodge. 2000 재인용)

다국어 및 웹접근성 지원시스템 구축

-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다국어 서비스, 웹접근성, 웹 호환성, 보안 등과 같은 정보화 제약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저작권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 저작권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저작권관리 체계는 CCL, OPEN, UCI 등의 기능 구현을 통해 저작물 협약 및 이용허락 등과 같은 저작권관리 체계의 확립하고 원본 콘텐츠를 보호를 위한 저작권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함.

정보인프라 구축

-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디지털변환 장비, 보존 및 복원처리 장비, 정보시스템(서버, 스토리지, DB 등), 백업시스템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가정보화 방침에 따라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보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으로 구축해야 하며,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보안 등과 같은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제약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참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¹⁰⁵⁾

〈표 39〉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형식

구 분		파일형식	압축방식	해상도	비 고
텍스트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300ppi	귀중자료, 고문헌, KDCP, 고신문 일반도서, 논문, 연속간행물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비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벳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사진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800-1000ppi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400ppi	아크로벳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지도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벳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고서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300ppi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벳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 원자료의 형태, 열화 등 훼손정도,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파일형식 및 압축,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음

10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별표2]

- 녹음자료

〈표 40〉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형식(녹음자료)

구 분	파일 형식	비트심도	샘플링 주파수
보존용	WAV(무압축)	24bit	48kHz
제공용	MP3(손실압축)	16bit	44.1kHz
	AAC(손실압축)	16.bit	48kHz

※ 원자료의 녹음 상태,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보존·제공용 파일 형식 조정가능

- 영상자료

〈표 4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형식(영상자료)

구 분	파일 형식	코 텍	화 면 비
보존용	MXF(무압축)	MPEG4(영상) / PCM(음성)	D : 4:3 / HD : 16:9
제공용	MPEG-4(손실압축)	H.264(MPEG-4/AVC)(영상) / AAC(음성)	SD : 4:3 / HD : 16:9

※ 원자료의 녹화 상태,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보존·제공용 파일 형식 조정가능

2.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검색

- 일반 검색: 사이트 내 기록자원의 결과를 출력함.
- 통합 검색: 사이트 내부 및 외부의 결과를 출력함.
- 고급 검색: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출력값의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질의응답을 출력할 수 있음.

열람

- 컬렉션 열람 : 특정 주제를 소재로 컬렉션을 만들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시 열람 : 기관 소장 자료 및 외부 소장 자료를 가지고 큐레이션을 거쳐 콘텐츠로 가공함.
- 타임라인 열람 : 생산 또는 수집 시기 단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치기반 열람 : 구술자들이 언급한 장소의 위치를 GPS로 표기하여, 이용자가 해당 위치의 GPS를 통해 구술자의 이야기를 장소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함.

자료수집

- 네트워크 관리 : 유관 기관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함.
- 수집자원 평가 : 기관 및 기증된 기록은 평가선별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기록물평가위원회가 조직될 필요가 있음.
- 기록물 이관 : 평가 완료된 기록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아카이

브 소장 자료로서 관리됨.

- 온라인 기증 관리 : 시민이 직접 기록물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기록화할 수 있으며, 시민이 수집한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동의를 받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 관리

- 컬렉션 관리 : 관리자가 컬렉션을 직접 생성, 수정, 삭제 기능 부여
- 전시 관리 : 전시콘텐츠 기반 특정 아이템 추출
- 타임라인 관리 : 생산시기 메타데이터 연계 기능 부여
- 위치기반 콘텐츠 관리 : 위치좌표 값 입력 지도 연계활용
- 게시물 관리 : 고정페이지, 안내문 등 생성, 수정, 삭제
- App 관리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정보 및 링크 제공

공통

- 시스템 관리 : 백업/복구, 접근권한, 저장매체 등
- 통계 : 통계 정보와 프로세스 수행
- 이용자/그룹 관리 :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 등록 및 관리
- 사용 통계 : 사이트 접속자 수 등 이용현황 통계정보
- 기준값 관리 : 아카이브 업무 수행 기준 정보 관리
- 통계/리포팅 : 소장자료 현황, 업무프로세스 현황 파악

〈표 42〉 디지털 플랫폼의 주요 사례 및 기능 분석

주요 사례	핵심 기능 및 역할
용산레거시 (시민참여형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기지 미군관련 가족생활사, 한국인 종사자 등 인물 중심의 콘텐츠 구축 • 미군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고 기록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활용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 검색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렉토리 검색, 통합 검색 등 상세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 • 주제별/시대별/형태별 분류체계 개발 및 활용, 주제별 컬렉션 구성
서울역사박물관 (콘텐츠 생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사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전시 기획/운영 및 자료집 출간 • 소장유물 및 발간물 온라인 서비스 • 박물관 내부공간에서 문화행사 진행
용산공원갤러리 (폐쇄된 공간VR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 육군 창고, USO(미군위문협회) '18년~'20년까지 시민소통공간 활용 • 당시 전시된 사진, 지도, 문서를 철거 이후에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VR체험관 조성

06

캠프마켓 아카이브 거점 공간구축 계획

제1절 방향 설정

제2절 기능 및 역할

제3절 건립 규모 및 입지 선정

제4절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GLAM) 특성 부여

제6장 캠프마켓 아카이브 거점 공간 구축 계획

제1절 방향 설정

1. 쟁점 사항

토양 오염 정화과정에서 일부 건물 철거 및 훼손 진행

- 반환된 땅의 대한 유류, 중금속, 다이옥신 등 대한 오염 문제가 부각이 되어 인근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에 국방부(소유자)와 한국환경공단(발주처)은 정화 대상 규모 및 정화방식을 확정하고 A, B 구역을 중심으로 토양오염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오염물질 정화과정에서 토양 굴착 및 운반 등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건물을 철거해야 했고, 이에 따른 역사적 공간 훼손 문제가 대두됨.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존건물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갈등 발생

- 토양오염정화과정에서 철거되는 건물을 둘러싸고 「완전한 오염정화 이후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원형 보존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발생함¹⁰⁶⁾.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건물 리모델링 진행

- 미래지향적 공원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공간 및 시설 활용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캠프마켓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에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시설 규모 및 입지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됨.

캠프마켓 내 현 부평 역사박물관 이전·증축 건립에 대한 요구

- 부평구 차원에서 「부평미군기지 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여 현재의 부평역사박물관을 확장·이전하여 부평구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지역 사회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평화박물관 조성을 요구함.
-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 4,866.41㎡), 총사업비 275억원

106) 오염정화 작업의 주체인 국방부 측은 건물을 존치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정화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철거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음.

2. 사례 분석

2.1 미군부대 반환 및 근대산업유산 활용 사례

캠프하야리아 부대 이전 이후 조성된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 캠프하야리아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경마장과 일본 군용지로 이용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되었음. 2002년 부산아시아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조성과정에서 가시화된 평지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조성.
- 2004년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하야리아부지 근린공원이 결정되었으며, 2010년 6개월의 임시 개장 과정을 거쳐 2011년 8월 부산 시민공원 개관됨.
- 역사성·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해 역사관 건립이 추진되어 공원 내 잔존 건축물 24개동 중 장교클럽 1개동을 개·보수하여 역사관으로 건립.
- 공원 기본계획 단계에서 장교클럽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철거가 예정됐으나, ‘하야리아 공원포럼’에서 건축물 존치와 활용을 주장하며 계획이 수정됨.
-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역사관과 공원운영 주체가 분리되었음. 건물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전시 및 운영은 시립박물관에서 담당함.

미2사단 506보병대대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 체험 전시 특화공간

-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군기지 중 한 곳으로 미군이 1953년부터 조성하여 미 육군 506연대가 2004년 8월 철수할때까지 50여년간 주둔했음. 2007년 반환 이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일부 시설을 2013년 역사·문화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개방함.
- DMZ 남방한계선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DMZ체험관과 전시관 등으로 이뤄짐. DMZ체험관은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공간이며, 전시관은 다큐멘타관, 기획전시관, 탄약고 프로젝트, DMZ평화정원, 정비고 프로젝트, 갤러리 그리브스 등으로 구성됨.
- 2017년에는 체육관과 전시관을 리모델링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파주 미래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역사공원으로의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 일시적인 공간활용을 보여주며 확장에 한계를 보임.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활용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54년간 미 공군사령부의 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되었던 쿠니사격장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함¹⁰⁷⁾.
- 공군사격장 폐쇄 전까지 매향리는 폭격에 의한 주택 파괴, 소음에 의한 난청, 포탄 연기 등에 의해 지역주민과 가축,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자리한 곳이었음.

107) 화성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tour.hscity.go.kr/NEW/1tour/history11.jsp>

- 2005년 8월 사격장 폐쇄 후 매향리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고, 소통 공간 확충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021년 8월 공원으로 재단장하였음.
- 현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잔디 마당, 매향정, 파고라, 작가정원, 습지 생태원, 마을숲 산책로, 평화기념관, 평화의 소녀상 등의 시설로 구성됨. 총알 흔적이 남겨진 컨테이너들과 불발탄들을 모아 전시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벽화와 조각품 등을 통해 평화마을로 개편됨.
- 평화역사관은 마을 역사 학습장으로 매향리 평화마을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화성시 시티투어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단체 방문 시 주민이 설명함.

버려진 산업유산의 재탄생 마포 문화비축기지

- 폐(廢)산업시설이었던 마포석유비축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것임.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해 1978년 정부에서 매봉산 인근에 석유비축기지를 조성했음.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며 위험시설로 분류하였고, 2000년 12월 시설을 폐쇄함.
- 2014년에는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바탕으로 산업유산 재생과 석유비축탱크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2017년 개장함¹⁰⁸⁾.
- ‘석유에서 문화로(Oil to Culture)’를 표방하여, 기존의 5개 탱크는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 파빌리온으로 재생하고, 해체된 탱크 철판을 활용해 신축된 1개의 탱크(T6)는 정보교류센터로, 임시 주차장이었던 넓은 야외공간을 문화마당으로 개편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활동 도모.
- 현재 공원관리조직인 서부녹지공원 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적 상징성 및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기획 및 운영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

캠프하리아리 이전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미2사단 506보병대대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매향리 쿠니스격장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버려진 산업유산의 탄생 마포 문화비축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형태)장교클럽 활용 장소성 특화 부분증축 4개 전시실 1,060㎡(수장고 50㎡) ② (기능)역사자료 전시해설기능 중심 전문인력 자원부족으로 지속적 활동 전개미비 ③ (운영)역사관과 공원운영 주체 분리 건물관리(시설공단), 전시운영(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형태)장교숙소 등 원형 보존 활용 DMZ체험관(841㎡), 10개 전시관(2,582㎡) ② (기능)평화안보 체험 및 전시 특화 민통선 숙박시설, 생태문화예술 전시관 ③ (운영)일시적 공간활용 확장 한계 경기관광공사 운영 / 역사공원 조성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형태)우수건축 자산 등록 활용 평화기념관 신축 및 6개 일부 건물 존치 ② (기능)문화예술 향유 복합문화공간 야외조각공원, 메모리얼 광장, 전시관 등 ③ (운영)기념비적 건축물 적정성 판단 평화역사관(주민운영)과의 관계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형태)근대산업유산 재탄생 석유보관탱크 3기 및 일부 사무/시설동 존치 ② (기능)복합문화공간 역할이행 공연장, 전시관, 강연장, 마당 등 ③ (운영)기획 및 운영 전문인력 부족 공원관리조직(서부녹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그림 41] 기존 건축물 활용 사례 분석

2.2 캠프마켓 내 아카이브 공간구축 방향설정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아카이브 공간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본 과업에서는 미군 부대 이전 부지를 복합문화공간 및 공원으로 활용한 세 가지 사례와 폐산업유산인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음. 기존 사례에서는 주요 건축물 및 시설을 보전하여 전시 공간으로 활용함.
- 특히 부산 시민공원의 경우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이 상호토론과 이해 과정을 통해서 보존되어 활용되었음. 캠프마켓 또한 철거 및 철거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 유사하기에 기존 건물 및 시설 활용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부산시민공원은 옛 장교클럽을 활용하고 있으며, 캠프그리브스는 옛 장교 숙소를 중심으로 DMZ체험관 및 10개의 전시관을 활용하고 있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서는 평화기념관을 신축했지만, 공군사격장 시절 주민의 삶에 영향 미친 유물을 전시하는 등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음.

현재 수립 중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연계한 체계적 입지 선정 기준 마련

- 캠프마켓 기본계획(마스터플랜)에서는 캠프마켓과 그 주변 일대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쾌적한 휴식 공간조성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부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정하도록 함.
- 캠프마켓 부지 내의 공간구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 공간의 형태, 공간별 운영 방식 등의 분석을 반영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간 활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상호 협력을 통한 통합적 관계 설정 필요함.

역사성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생산 가능성 발견

- 캠프마켓 아카이브 공간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변혁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과 강제노역의 가슴 아픈 기억 등이 서려 있는 이 땅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기록물로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임.
- 기록물과 장소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캠프마켓 일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대중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시민과 전문가 집단 및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직간접 경험자와 대중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이라는 특별한 모델 구축

- 캠프마켓 일원은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갤러리(GLAM)와 문화공원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함. 특히, 캠프마켓 아카이브라는 장소 기반의 아카이브를 토대로 해당 장소에 만들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짐.

- 기록관과 공원의 이원화된 운영관리를 지양하고, 기록물과 캠프마켓 부지 일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 활용에 있어 캠프마켓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여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의 선도 모델 구축

제2절 기능 및 역할

1. 캠프마켓 아카이브 거점공간의 이해

1.1 기존 시설 대비 연계성 및 차별화 전략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의미

- 미술관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자료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임.
- 박물관은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 등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미술관은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 자료를 다루는 시설임.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유사점과 차이점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유형¹⁰⁹⁾을 살펴보면 다른 시설들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은 유사한 기능(수집·보존·관람·열람)을 수행하고 있고 시설의 등록 기준도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각각 다루고 있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띠다고 볼 수 있음.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를 관리하고, 박물관은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다룸.
- 미술관은 예술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학문적, 예술적 가치 증진 활동을 전개함.

박물관과 기록관, 도서관과 기록관의 비교

- 기록관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억을 연구하기 위해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별·수집하여 보존·관리하는 역할을 핵심으로 하고, 박물관은 자료를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
- 도서관과 기록관은 관리 대상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기록관은 수집과 보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도서관은 자료 및 서비스 제공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차이가 있음.

10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16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기존 수행 기능 이외 새로운 변화 필요성 대두

- 민간 또는 공공에서 소유한 유물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물을 기반으로 한 수집·보존을 넘어 사회와의 관계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기능 및 역할이 전환되고 있음.
- 특히 전시를 통해 한계가 있는 유아, 초입자, 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며,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방문객이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이용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2. 복합문화공간(GLAM) 기능 및 역할

기록물 수집관리를 넘어 복합적 효용성 마련

-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가칭)은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인천시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수집·관리·전시·교육 등)을 기반으로, 부지 내 역사적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함.
-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기능이 복합화된 라키비움(Larchiveum)에 미술관(Gallery) 기능을 더하여 글램(GLAM)이라는 의미가 생성됨.
 - 캠프마켓 아카이브 핵심 역할인 기록수집, 자료관리,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기능 설정
 - 소장된 기록물 활용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대중적 인식개선 시도
 - 기록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은 다양한 세대와 기관단체들의 참여 유도 가능
 - 역사적·예술적·환경적·사회적 이슈 기반으로 가치가 재생산되고 활성화되는 역할 수행

기록물 저장소, 역사문화 연구소, 지식습득 교육장, 문화예술 창작소 등 역할실현

-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거점 공간이 수행해야 하는 기록, 연구, 전시, 교육, 교류 등 역할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혁신적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주제 기록관 :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을 둘러싼 특정 기록물을 전문적·집중적으로 수집·발굴, 전시기획,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함
 - 아카이브 기록물 저장소 : 직접 혹은 유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조사, 수집을 통해 수장고 보완 및 디지털 변환작업을 수행함(온라인 플랫폼 연계)
 - 역사문화 연구소 : 그간 파편적으로 진행된 캠프마켓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대내외적으로 가치와 의미를 확산할 수 있는 역할 수행(연구 결과물 발간)
 - 지식습득 교육장 : 수집 발굴한 기록물과 연구기능으로 재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전문지식을 전파할 기회를 제공함.
 - 문화예술 창작소 : 캠프마켓 기록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재고하는 역할 이행

아카이브 활동을 기반으로 교육, 공연, 전시, 연구 등 활동 수행

- 과거의 역사적 사실 기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과 기억, 부지반환 이후 공원 조성까지의 과정 등 다양한 콘텐츠에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록화 기능 : 기록물 수집 및 발굴, 소장품 보존관리, 자료열람
 - 전시 기능 :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디지털 전시, 전시해설 프로그램
 - 교육 기능 : 전문가/일반인/청소년 프로그램, 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
 - 공연 기능 : 강연회, 문화예술 행사 등의 이벤트 활동 전개
 - 연구 기능 : 개인 연구자 및 공공기관 연구자 협업 세미나, 공론장 개최
 - 기타 : 시민참여 이벤트, 공원 연계형 활동, 역사인식개선 운동, 연구자 네트워크

〈표 43〉 복합문화공간(GLAM) 공간구성 및 실현방안

아카이브 공간 특성도출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 (GLAM 전시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공간구성 및 주요시설	실현방안
주요 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기능 (기록물 지속적 수집,보관,활용) • 교육기능 (기록전문가 양성 및 문화교육활동) • 전시기능 (공공기록과 시민기록 기획전시) • 열람기능 : (온오프라인 기록물 이용자 활용) 	연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센터(연구실, 회의실 등) • 연구자료실(자료보관 및 열람) • 사무 다목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관람객과 동선분리 • 연구자들의 자발적 활동지원 (방문자 연구실 등) • 소장자료의 적극 공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공간(회의실, 사무실, 연구실) • 교육공간(강의실, 체험실) • 열람공간(검색실, 도서관) • 전시공간(기획 및 상설) • 작업공간(기록처리복원) • 보존공간(서고, 수장고) 	전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관(전반적 사항전시) • 역사관, 주제관, 시기별, 이슈별 • 기획전시관(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자료수집에 따른 전시물 교체 및 콘텐츠 보강 • 공간의 변용가능성 고려 가변적 공간 계획 수립(7m이상 천장고 확보)
공간 구성 및 규모		교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교육장 프로그램 운영 • 정보실, 도서관 자료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 콘텐츠 기반 체험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 필요시 주민참여형 일상적 문화활동 연계 운영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엄숍, 카페, 물품보관소 • 휴게실, 소통방, 지역주민자율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상품화 구현), 지역사회 인식개선 변화 • 역사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교류의 장 마련 활성화
도입 프로 그램		수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수장고(기록물 외부공개) • 보존형 수장고(기록물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유지관리 방안마련 (보존처리 및 복원시설) • 시민친화형 기록물 공개 (참여형 기록화 기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 전시해설 • 시민참여형 기록활동 • 기록관리전문가 양성 • 장소성기반 창작 지원 • 강연회, 대담회, 마켓 • 자원봉사자 양성지원 • 시민역량강화프로그램 • 홍보 및 출판활동 	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화장실 • 기계실, 전기실 • 공조실, 하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체계적 공간운영 • 문화공원 시설 연계성 마련 •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 생산

제3절 건립 규모 및 입지 선정

1. 적정규모 검토

1.1 유사 시설 비교분석

역사관, 박물관, 미술관 등 건축규모 및 주요시설 면적 산출

-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교육, 문화, 전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캠프마켓 복합문화공간의 건립 규모를 대략 파악하고자 함¹¹⁰⁾.
- 미군 부대 반환 이후 거점 공간을 조성된 곳은 부산시민공원 역사관이 유일하며 연면적 1,060㎡의 소규모이고, 전시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음.
- 캠프그리브스는 역사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어 기존건축물을 임시로 전시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문화비축기지는 전시 및 교육시설 중심으로 운영됨.
- 서울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박물관 고유 기능인 전시시설에 비중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서울기록원은 아카이브 전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장고, 자료실 등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하였음.
- 서울시립미술관은 아카이브 시설, 전시시설, 교육시설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장고, 전시실, 교육관, 도서관, 휴게실 등 공간구성이 다양함.

1.2 복합문화공간(GLAM) 적정 규모(안)

역사관, 박물관, 미술관 등 건축규모 및 주요시설 면적 산출

- 앞서 도출한 복합문화공간(GLAM)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아카이브 시설, 전시시설,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 규모도 적정해야 함.
- 이에 수장고, 전시실, 교육관, 도서관, 휴게실 등을 적절한 규모와 비율로 구성된 서울시립미술관의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됨. 하지만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공원 내 시설로 조성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절반 정도 수준(6,717㎡)으로 적용하고자 함.

〈표 44〉 유사 기관 건축 규모 및 주요시설 면적

기관명	부산시민공원	캠프그리브스	문화비축기지	서울기록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면적(㎡)							
전체	1,060	16,621	7,256	15,610	20,882	13,434	10,734
아카이브 수장고/자료실/열람실	50	-	-	5,167	5,016	3,193	1,000
전시시설 상설/기획/다목적	1,010	2,582	2,774	987	12,527	4,434	3,539
교육시설 강의실, 다목적실	-	842	1,180	484	1,699	2,497	200
주요공간 구성	수장고, 자료실, 전시실, 사무실	전시실, 작업실	수장고, 공연장, 자료실, 열람실, 강의실, 카페	수장고, 문서고, 작업실, 열람실,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자료실, 전시실, 교육실, 휴게실, 기념품점	수장고, 전시실, 교육관, 도서관, 휴게실	전시실, 세미나실, 강 의실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2021). 용산공원 부지 내 건물을 활용한 아카이브 기반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진 재작성

110) 적정규모를 측정하는 자료는 건축공간연구원(2021)에서 수행한 「용산공원 부지 내 건물을 활용한 아카이브 기반 마련 연구」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작성하여 수행하였음

2. 입지 선정

2.1 입지 선정 방향 및 기준설정

캠프마켓 내 기존건축물 활용을 위한 검토

-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이 의미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을 가장 잘 담아내는 곳에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반환된 지역에 남아있는 건축물 가운데 역사적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2011년 문화재청 지표조사에서 선정한 일제강점기 추정 건축물¹¹¹⁾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했고, 이후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연구진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¹¹²⁾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선정하였음.
- 토양오염정화 과정에서 소멸된 A, B구역의 건축물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공간 활용을 위한 입지선정기준 도출

- 캠프마켓 부지 내 활용 가능한 시설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활용의 적합성, 역사문화적 상징성, 마스터플랜 연계성, 접근성 및 입지성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입지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 기존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 이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하고, 보존된 원형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고, 토양오염정화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낮아야 함.
- 역사적 사건과 일상적 활동을 담은 흔적의 장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적 상징성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제시될 수 있음.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대상지의 경관 형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
- 현재 수립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캠프마켓 공간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므로, 복합문화공간 위치 선정을 위해서는 공원 계획에서 건물의 존치 상태를 확인하고 제시된 공간 활용방안을 수용해야 함.
- 인근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 및 향후 공원 조성 이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의 편리성과 주변부와 연계 활용성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볼 수 있음. 공원 입구,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도 평가에서 필요하고, 대상지 외부 공간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도 평가 요소임.

111) 2011년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육안 관찰과 도보 답사를 통해서 주요 건축물, 기타건축물을 선정하였음. 하지만 단시간의 조사로서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112) 2022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캠프마켓 부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내부시설군의 현재 용도에 따라서 활용성을 검토했음. 건축물의 높이 및 내부공간 면적 등에 따라서 상업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외부공간 등 시설군을 제안함

〈표 45〉 공간 활용을 위한 입지 선정 기준(안)

평가항목(안)	세부기준	내용
공간활용 적합성	규모의 적정성	규모적 특성에 따라 보존 후 차후 활용 가치 있는 것
	공사의 용이성	기능적 가치가 높은 원형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인근토양 오염도	건물 외부공간 오염상태를 기준으로 활용가능성 선정
역사문화적 상징성	가치를 담은 장소성	역사적 사건 및 일상적 활동의 흔적을 담은 장소
	주변환경 관계성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성 고려
마스터플랜 연계성	건물 존치 지속성	공원계획 수립 시 건물의 존재 여부
	계획내용 정합성	공원계획 수립 시 공간의 기능 및 역할 고려
접근성 및 입지성	접근의 편리성	공원 입구 연계성, 보행 접근성, 대중교통 및 차량 접근
	주변부 연계활용성	주변 건물들과 연계활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여부

* 출처 : 국토교통부(2021). 용산공원 건물을 활용한 아카이브 기반 마련 연구
인천광역시(2001),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 관한 연구

2.2 입지 선정(안)¹¹³⁾

공간활용을 위한 입지선정기준 도출

- 앞서 분석한 복합문화공간의 적정규모에 따르면 수장고, 전시실, 교육관, 휴게실 등의 시설로 구성되며 총면적 6,717㎡로 파악되었음.
- 단일 건물로 적정한 규모는 1920이지만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단일 건물 형태로 되어서 복합적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움.
- 개별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다차원적으로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9개를 기준으로 적합성, 상징성, 연계성, 접근성 4개의 항목을 적용하여 진단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함.
- 현재의 건축물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충족을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증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13) 본 과업을 통해 제안되는 아카이브 거점 공간의 입지는 향후 공원 조성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변동될 수 있음.

〈표 46〉 공간 활용을 위한 평가 기준 시범 적용

세부 기준	건물명	면적 (㎡)	년도	특징	평가항목 (● ▲ ×)			
					적합성	상징성	연계성	접근성
A구역	1924	674 (20X45)	1951	다목적 저장시설	▲	●	▲	×
	1903	185 (25X80)	1985	수송 대기 소형 탄약고	×	▲	▲	×
B구역	1776	1,537 (-)	1952	사병급독신자 주택	▲	×	▲	●
D구역	1530	3,332 (-)	1952	원형보존, 유적지 표본조사지 다목적 행정시설(소방서), 본부	●	●	▲	●
	1716	5,431 (36X108)	1952	복층구조벽돌, 군수물자 생산공장	●	●	▲	▲
	1920	6,003 (-)	1952	단층 벽돌조적 건물, 거대한 굴뚝 군수물자 생산공장, 트러스트 지붕	▲	●	▲	▲
	1736	3,428 (-)	1952	정부 출판물 인쇄소	●	▲	▲	▲
	1650	680 (-)	1988	다목적 행정시설	×	▲	▲	×
	1726	548 (13X43)	1952	단층 벽돌구조, 맞배지붕 다목적 저장시설	×	●	▲	▲



[그림 42] 활용 가능한 건축물 현황

제4절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GLAM) 특성 부여

1. 주요 기능 및 역할

수집된 기록물을 해석하고 가치 평가를 통해 새로운 활용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고, 보존된 기록을 가공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추세임. 이에 따라 활용 범위를 전시, 교육, 연구, 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천 자료를 활용하여 각 영역을 상호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전시

- 전시 기능을 통해 아카이브 자료와 관람객의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상설전시는 아카이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전시물을 교체하여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해야 함.
- 기획전시는 전시 목적, 주제, 이벤트 등에 맞추어 전시 공간과 내용을 변화시켜야 하며, 아카이브 관련 학술행사, 연구 및 교육 행사 등과 연계하여 진행.
- 전시를 통해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기록물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증가시켜 아카이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전시를 지향하고,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전시 등 첨단 IT와 미디어를 활용해야 함.

교육

- 캠프마켓의 가치와 의미를 현재화한다는 관점으로 세대 간 계승을 위한 교육 활동이 중시됨. 단순한 지식 정보 제공을 통한 계몽과 주입이 아닌 상호소통의 방식으로 교육해야 함.
- 교육 기능은 일상적 방문자 교육, 프로그램형 시민교육, 실무자 및 전문가 교육, 순회 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상적 방문자 교육에서는 다양한 세대, 직업과 계층의 관람객들이 견학, 학습, 여행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것임. 방문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식과 요구에 부합해야 함.
- 프로그램형 시민교육은 기록물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무자 및 전문가 교육은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임. 아카이브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담당자와 더불어 인천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 진행.
- 순회 교육은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파견 및 출장 교육을 수행하여 아카이브의 역사, 구성, 운영, 활동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수행.

체험

- 아카이브가 단순한 과거형 기억창고 기능을 탈피하고,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 전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기록물의 사실적 전달이 아닌 역사교육과 문화예술 중심의 시민참여형 경험을 전달함. 역사적 현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함.

연구

- 아카이브는 과거 기록물의 보관소 기능을 넘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기록물의 생산과 축적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를 통해 교육, 전시, 교류 등 다른 영역에 새로운 아이디어 및 콘텐츠 제공하며, 아카이브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핵심적 역할을 이행함.

2. 도입시설

연구 공간

* 교육, 연구, 전시, 관광, 문화예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카이브 기반의 GLAM 모델을 구현하고자 함. 이를 위해 문화를 소비하고 누리는 관람객의 욕구를 반영하여, 갤러리, 도서관, 전시관, 박물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캠프마켓 아카이브가 복합문화시설로 자리하도록 시설을 구상해야 함.

-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여 자료의 가치 증대와 역사·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공간임.
- 연구 공간에는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공간인 인포센터, 기록관의 금고라 불리며 소장품을 보관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장고와 자료를 분석 및 연구하는 실험실과 연구실이 포함됨.
- 주요 시설 : 기록 인포센터, 수장고, 실험실, 문헌 연구실, 보존과학실 등



기록 인포센터



수장고



실험실



문헌연구실

[그림 43] 연구실 관련 시설 예시

교육 공간

- 캠프마켓 아카이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상호소통 방식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 및 인식 전환 시행.
-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를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테이블을 설치하고, 캠프마켓에 관한 발간물 등 단행본과 각종 자료로 이뤄진 자료관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캠프마켓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강제동원 등으로 아픔을 겪었던 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서 메모리얼 홀 도입.
- 주요 시설 : 미디어 테이블, 자료관, 역사 박물관, 메모리얼 홀 등



미디어 테이블



자료관



역사 박물관



메모리얼 홀

[그림 44] 교육관 관련 시설 예시

전시 공간

- 전시 공간에서는 캠프마켓의 정체성 확립을 시도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캠프마켓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전달의 장 마련.
- 소장품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캠프마켓 건물의 잔해나 주요 건물을 축소한 미니어처를 전시하는 건물 전시관 등의 상설전시관 및 기획전시관이 포함됨.
- 기증실을 조성하여 기증자를 기념하고 아카이브에 있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개방형 수장고를 운용하여 기록관이 유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매개로서의 정체성을 물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 주요 시설 : 소장품 전시관, 건물 전시관, 기증실, 개방형 수장고 등



소장품 전시관

건물 전시관

기증실

개방형 수장고

[그림 45] 전시관 관련 시설 예시

체험 공간

- 다양한 세대가 아카이브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캠프마켓의 의미와 가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구성함. 소장품 및 콘텐츠와 최신 기술과의 접목을 도모하고, 관객 참여형 체험 시설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문 유도
- 관람객이 작품 안에 들어가 직접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개념인 ‘인터랙티브(interactive) 체험’을 추구하고, 홀로그램과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훼손된 장소와 인물을 예술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관객들의 흥미를 유도함. 캠프마켓 문화공원을 시민이 함께 가꿈으로써 토양오염 인식을 개선함.
- 주요 시설 : 인터랙티브 체험, 홀로그램관, 미디어 파사드 체험, 외부 정원 등



인터랙티브 체험

홀로그램관

미디어 파사드 체험

가드닝을 통한 토양 정화

[그림 46] 전시관 관련 시설 예시

3. 세부 운영 프로그램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아카이브의 의미를 확산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식 창출, 그리고 인식 전환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본 과업에서는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연구, 교육, 전시, 체험 기능의 세부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 프로그램의 예시를 제안함.

3.1. 운영 프로그램의 방향

연구 : 아카이브 활용성 제고

- 연구 기능은 교육, 전시, 체험에 있어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카이브의 지속력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함.
- 연구를 통해 기록물을 생산·축적·순환하는 사이클 형성
 - 기록물의 내용 분석과 사진 재구성
 - 전문가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 아카이브 위상 제고 학술행사
 - 정보·자료의 가공·생산 시민 서비스

교육 : 캠프마켓 가치의 현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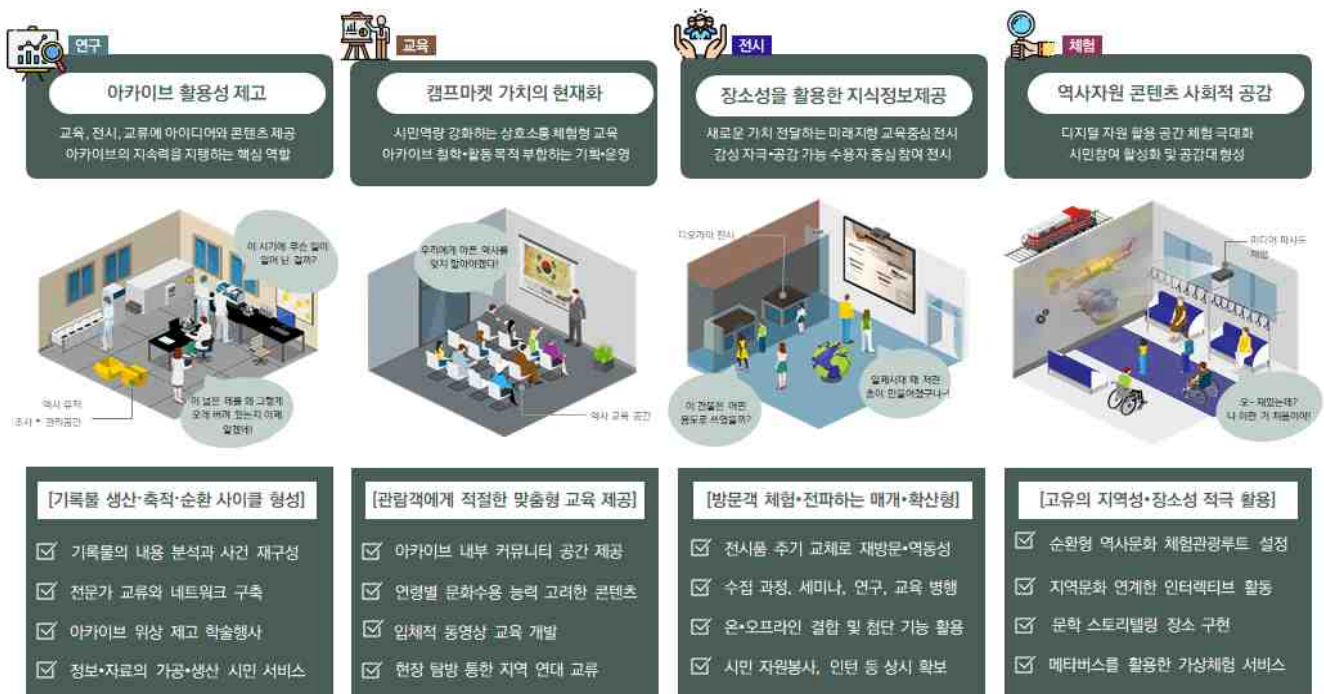
-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상호소통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카이브 철학과 활동 목적과 부합하는 기획과 운영이 요구됨.
- 관람객에게 적절한 맞춤형 교육 제공하도록 함.
 - 아카이브 내부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연령별 문화수용 능력을 고려한 콘텐츠 제공
 - 입체적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현장 탐방을 통한 지역 연대 및 교류

전시 : 장소성을 활용한 지식정보제공

-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미래지향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전시를 기획해야 하며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의 가능성이 높도록 수용자 중심의 참여 전시를 추구함.
- 방문객이 체험하고, 가치를 전파하는 매개·확산형
 - 전시품의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역동성 추구
 - 수집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연구와 교육을 전시와 병행
 - 온·오프라인을 결합하고 첨단 기능을 활용함
 - 시민 자원봉사를 상시 확보하여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현장감 있는 내러티브 제공

체험 : 역사 자원 기반형 콘텐츠 체험을 통한 사회적 공감 확산

-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공간 체험을 극대화하고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함.
- 고유의 지역성·장소성 적극 활용
 - 순환형 역사 문화 체험관광루트 설정
 - 지역문화와 연계한 인터랙티브 활동 도모
 - 캠프마켓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의 스토리텔링 장소를 첨단 기술을 통해 구현
 -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체험 서비스 제공



[그림 47] 운영 프로그램의 방향

4. 아카이브 기반 콘텐츠 활성화 방법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아카이브 현장 워킹 투어, 역사적 가치 담은 장소 구현, 생태·문화적 역사 콘텐츠 발굴, 첨단기술 활용한 경험의 확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아카이브 현장 워킹 투어

-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주제별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캠프마켓 현장과 연구, 교육, 전시 시설과의 연계 도모
- 역사 교육형, 스토리·지역문화 반영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제공
- 장소기억(Place memory)의 테마화 및 활용
 - 설계가와 계획가가 무심히 선택한 잘못된 기억은 왜곡된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이는 장소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카이브를 축적하며, 이를 반영하여 공간에 투영해야 함

- 운영 프로그램 예시

- 근대건축물 대면 역사적 문화체험, 소설 주인공 경험 스토리 투어, 귀로 즐기는 뮤직 투어, 시민교육·콘텐츠 기관 운영

역사적 가치 담은 장소 구현

- 캠프마켓을 중점적으로 활용 가능한 역사자원 및 공공공간과 연결하고, 새로운 공간 프로그램 및 활동을 생산함.
- 지역 자산의 유산적 가치 발굴·활용
 -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통해 드러난 지역 자산의 문화·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함
- 운영 프로그램 예시
 - 전쟁유적의 세계유산화 시도, 플라타너스 자연유산 지정·관리, 문화재청과 경기도의 문화유산 활용사업, 문화·자연유산 경제적 가치 창출

생태·문화적 역사 콘텐츠 발굴

- 생태적으로 역사성을 반영하는 식생을 보전하고 활용하며, 문화적으로는 미군 생활문화시설을 근간으로 한 문화 활동을 조명함.
- 문화·장소 콘텐츠 제작 및 재구조화함.
- 운영 프로그램 예시
 - 클럽문화 발상지 재조명 활동, 대중음악자료원 문화클러스터 조성, 장소콘텐츠 담긴 나무 장소성 상징화, 나무 역사기억 스토리텔링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험의 확장

-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활용하여 사라져 버린 다양한 시간적 층위 구현함.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과거 인물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박물관에 가상현실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세계 주요 박물관들에서 앞다투어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제안하거나, 사이버 박물관의 콘텐츠를 도입하고 있음
 - 세계 유수 박물관에서 도입된 가상현실 기술은 크게 ① 박물관의 공간을 모두 VR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 뮤지엄의 전략 ② 유물의 시대를 가상으로 재현하여 전시 오브제를 재맥락화 ③ 전시 작품 혹은 콘텐츠를 확장시키는 새로운 작품으로서 VR ④ 가상의 작품이나 공간을 재현하는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심지영, 2020). 캠프마켓 아카이브 또한 네 가지 방법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

-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등 시대별 공간의 가상경관 경험 추구
- 운영 프로그램 예시
 - 과거의 역사적 현장 현대적 재조명, 미디어 파사드 공감각적 이미지 구현, 위치 기반 VR·AR 게임 서비스,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 제공



[그림 48] 세부 운영 프로그램

07

운영계획 수립

제1절 운영조직 및 인력 배치 계획

제2절 운영체계 구축

제3절 법제도 검토

제7장 운영계획 수립

제1절 운영조직 및 인력 배치 계획

1. 전담 조직 기본구상

1.1 조직 운영 사례검토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 하야리아 미군부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장소의 의미를 보전하기 위하여 잔존 건축물 24개동 중 장교클럽 1개동 개·보수하여 역사관¹¹⁴⁾ 건립함.
- 공원조성 이전에 수집된 일제강점기와 미군주둔기 역사적 자료, 지역주민 생활사, 부지반환 및 공원조성 과정 등 자료를 전시·해설하고 있음.
- 공원 운영은 「부산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산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시민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함.
 - 시민공원관리팀(11명) : 홍보 및 문화예술, 시설물 대관업무, 고객서비스 평가
 - 시민공원시설팀(15명) :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 시설관리 담당
 - 시민공원위원회 : 공무원, 시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지역주민, 각계전문가 구성
- 역사관의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조례」에 따라 부산시립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예연구사, 행정담당자, 안내자, 자원봉사자 4명 담당자 근무
- 역사관은 공원 내 부속시설로 전시, 교육 중심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아카이브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부지반환 이후 공원조성 이전까지 기록물 수집 업무 진행
 - 공원 조성이후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시관 운영관리 위주 업무 수행
- 시민공원관리팀 문화활동 기획운영 팀과 역사관의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역사적 상징성을 콘텐츠화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표 47〉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운영 탐방프로그램



스토리텔링 투어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운영

공원길 시간여행 주사놀이

출처 :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 부산시

11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21 전국 문화기반 시설총람」 박물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미등록 박물관으로 확인됨('21.1.1기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예정지

- 미군이 주둔해 오던 캠프그리브스가 2007년 반환되기 시작하면서, 34동의 건물 중 10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장교 숙소를 개조하여 민통선 내 최초의 유스호스텔 DMZ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 DMZ안보관광을 중심으로 평화, 안보, 생태를 테마로 청소년 대상 체험과 전시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DMZ정책과에서 역사공원 조성, 전시 기획 및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DMZ체험관 외 기타 시설관리는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함.
 -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등 경기도 주무관 3명
 - 관광인프라 개발, 현장시설관리운영(청소년 지도자, 시설관리 담당) 등 관광공사 운영
 - 역사공원 조성사업 진행이 늦어져 임시 조직의 형태로 공간관리 및 운영 수행
- 민통선 내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공간 이용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 지역 관광자원과 적극적 연계를 시도함.
- 조직적 차원에서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예술작가들의 작품에 부분적으로 캠프그리브스의 과거 기억을 담아내고 있음.

〈표 48〉 캠프그리브스 반환부지 공간 활용



유스호스텔 홍보자료

평화기원 리본달기 프로그램

드라마 촬영지 활용

출처 :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https://blog.naver.com/quejvkbh/220788404923>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주한미군 아카이브 조직

- 2021년 평택시는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¹¹⁵⁾」을 수립한 이후 주한미군의 평택 주둔 및 이전의 역사 자료의 기록물 소실을 방지하고 계승해 나가고자,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용 수장시설 설치 및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증된 역사 기록물들은 향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역사·문화 학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¹¹⁶⁾.
- 2022년 11월 17일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한미군 역사 관련 생산된 결과물을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을 규정함.
 - 조례 제13조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위원회」 운영
 - 수집된 실물자료는 2025년 건립이 예정된 평택박물관에서 영구보존 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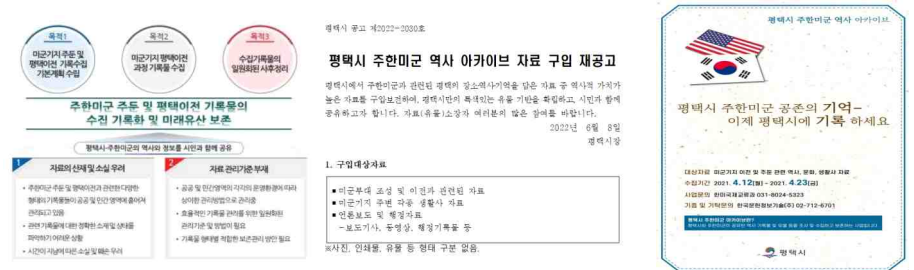
115) 한국문화정보기술(2021).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수집 용역. 평택시청

116) 뉴스투데이(2021.4.15.).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사업관련 기록물 공개 수집.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415500199>

- 현재까지는 아카이브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한미국제교류과 한미협력팀 내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함.
- 아직까지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공고를 통해 수집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평택시와 주한미군과 공유한 역사 기록물 및 유물 등을 직접 조사,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역사 기록물을 상시 수집을 진행하고 있음¹¹⁷⁾

〈표 49〉 평택시 주한미군 아카이브 관련 진행상황



평택시 아카이브 추진배경

2022년 주한미군 자료수집

2021년 주한미군 기억수집

출처 :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415500199>

1.2 시사점 도출

공원 조성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아카이브 활동 조직의 역할 부여 필요

- 부지반환 이후 초기에는 남겨진 자산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와 연계된 기록물을 수집·발굴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공원 조성 이후에는 전시·교육 등 콘텐츠 생산 및 확산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 조직 운영이 수반되어야 함.
- 아카이브 작업이 공원 전시관 조성을 위한 일시적 과정이 아니라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장소적 상징성을 위한 지속적 수집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 주체와 프로그램 기획운영 주체의 연계성 마련

- 공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과 미군부대 역사관을 담당하는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 운영이 아닌 각자의 전문적 영역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함.
- 이에 조직 구성 및 운영 시 분야별 전문가 상호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한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상호보완을 통한 체계적 운영이 요구됨.

117) 2022년 6월 8일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 구입 공고(제2022-2030호)

기록물 수집·보존·관리 이외에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조직 구성

- 기록물의 체계적 조사 및 발굴, 가치 생산 및 재해석, 확산성 콘텐츠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함.
- 이는 정보의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전시, 교육, 이벤트, 출판,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연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거점 공간 개관 이전에 사전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역할 부여

- 2030년 아카이브 센터 조성 일정을 고려하여 기록물 현황, 업무 특성, 주요 역할 등 주어진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 및 인력 배치 고려가 필요함.
-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 업무 조절, 주요업무 영역설정, 유관 기관 협조 지원, 내부 구성원 협력 등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함.

2. 조직체계 및 인력계획

2.1 운영방안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역할 중요

-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수집 관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운영과 연계된 활용 관련 업무도 중요함.
- 인천시, 부평구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연계 방안 마련을 통해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이 필요함.
- 분야별로 전문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며 기록물 수집관리, 기록관 시설 운영, 연구자, 전시 기획, 전산 관리, 시설 운영 등 역할 필요.
- 조직의 구성원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져야 하며, 캠프마켓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반으로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함.

먼저 기본적 업무 중심으로 시작하고 향후 업무 영역 확장에 따른 점진적 확대

- 아카이브 구축 초기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조직을 간소화하여 핵심업무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거점공간 조성 이후 확장하도록 함.
- 조직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은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업무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기본계획에서 설정하는 단계별 업무 특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아카이브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인력을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비 인력과 기간제 고용 등을 고려하며 그 외 전문적 업무는 전문기관 용역으로 진행함.

2.2 주요 직무

캠프마켓 아카이브 업무에 따른 직무 설계

- 아카이브 사업 진행을 위한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은 기본적 업무이며 이에 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행정지원, 시스템 관리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이와 더불어 확장적 차원에서는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콘텐츠 기획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아카이빙 업무 기능은 기획지원, 기록수집, 기록관리, 서비스로 4개의 대 기능과 16개의 세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획지원 : 캠프마켓 아카이브 관련 행정지원 및 전략기획,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이용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업무 수행
 - 기록수집 : 기록물 수집 전략기획, 조사연구를 통한 수집 대상 파악, 수집 실행, 수집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 수행
 - 기록관리 : 수집된 자료를 등록, 분류, 기술, 보존함으로써 기록물에 대하여 지적 관리 체계구축 및 물리적 변환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 및 관리
 - 서비스 : 수집 이후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문가나 시민들 요구에 기반하여 전시, 교육, 체험 등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포괄하는 다양한 매체 활용 서비스 제공
- 16개의 세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함.

기획지원	행정지원	재정, 인력 등 행정 관련 업무	기록관리	자료관리기획	기록물관리 관련 기획, 행정 업무
	전략기획	아카이브 방향성 수립 및 특성화 사업 전략 수립		정리/기술	수집된 기록물 등록, 분류, 정리, 기술 업무
	홍보	대내외적 성과 확산 및 공감대 형성 기반마련		보존	기록물 보존처리를 통한 수장고 배치
	시스템관리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		디지털변환	수집된 기록물 디지털 변환 업무
기록수집	수집전략기획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및 방향성 제시	서비스	서비스기획	타깃층 설정을 통한 기록물 기반 콘텐츠 제공
	조사연구	기록물 수집 및 발굴 관련된 연구조사		검색/사본제공	온/오프라인 열람, 복사 등 서비스 접근성 증대
	수집실행	기록물 직접 수집(이관 및 구입), 구술채록		전시	기록물 공개를 위한 전시 콘텐츠 기획운영
	네트워크 관리	유관기관, 연구자, 시민 등 협력적 관계형성		콘텐츠 개발	교육, 홍보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그림 49] 캠프마켓 아카이브 관련 업무

2.3 조직체계 및 인력 배치

인력 구성 및 역할

- 총괄책임자 : 아카이브 전반을 총괄하며 조직의 경영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소양과 지도력을 갖춰야 함. 또한 캠프마켓 기록물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기능별 업무에 대한 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함.

- 학예연구사(기록물 가치평가 및 수집발굴) : 기록관리학·역사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수집된 기록물의 적정성 진단을 통한 통합적 관리 전문성이 필요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구술기록 및 기록생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적 수집 및 관리 능력을 가져야 함.
- 정보시스템 전문가(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및 관리) : 컴퓨터 전공자로서 개발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록물 관리 및 변환 등 업무를 담당함.
- 학예연구사(수장고 관리 및 소장품 처리) : 기록관리학·역사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수집된 기록물 분류, 기술, 보존 등 업무 진행 전문성이 있어야 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학술조사 및 기록물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캠프마켓 관련 연구사업 및 기록물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함.
- 콘텐츠 서비스 기획 전문가(기록물 활용) : 전시기획 및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기획 전문성을 갖춰야 함.

총괄	기록물 수집 및 관리				기록물 활용	
책임자	학예연구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보시스템 전문가	학예연구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콘텐츠 서비스 기획 전문가
조직경영 및 기획평가 업무	기록물 가치평가 이후 수집발굴 업무	구술기록 및 기록생산 업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수장고 관리운영 소장품 보존처리	학술조사 기획 운영 기록물 유지관리	전시 기획 및 교육 상품개발 및 홍보

[그림 50] 인력 구성 및 역할

단계별 주요 업무 및 인력 배치

- 캠프마켓 로드맵2.0 및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구성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연도별 증원 계획 수립함.
- (2023년) 기존조직 내 전문가 충원 : 현재 캠프마켓과 소통팀에 전문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아카이브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실행력 제고 역할 수행.
 - 내부적으로 조직담당 부서에 아카이브 전문인력(학예사, 임기제 나급) 증원 요청함
 - 전문적 인력 충원을 통한 자료 수집 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 (2024년~2026년) 기존 조직 확장을 통한 전담팀 신설 : 캠프마켓과 내 아카이브를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총괄책임자 1명, 학예연구사 1명, 정보시스템 전문가 1명 등 인적 인프라 강화를 통한 전문적 조직구성 구축
 - 소장자료 장기보존 및 콘텐츠 생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리전문 인력 충원
 - 디지털 기록자원 온라인 서비스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전문가 확보
- (2027년~2030년) 인천시립박물관 내 전담팀 구성 : 수집된 기록물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립박물관 내 캠프마켓 아카이브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기록물관리 및 학술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이는 행정업무 등 경영관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학예인력과 전문요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때 업무의 이관뿐만 아니라 인력증원 및 예산확

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3인 체제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을 충원하여 조직을 운영하도록 함.

- 수집 및 보유하는 소장자료 보존처리 및 자원관리를 위한 준비작업 시행
- 캠프마켓 내 건축물 활용 등 시설물 관련 업무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진행함

- (2031년~) 공원조성 이후 시설관리 부서 연계한 전문조직 설립 : 2031년 개장하는 공원 내 시설로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도록 함.

- 복합문화공간은 아카이브 전문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며 이는 아카이브 기능을 기반으로 전시 공간, 교육장, 수장고,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 등으로 구성됨
- 총인원 7명 : 책임자, 기록물 수집(학예연구사·전문요원), 정보시스템 전문가, 기록물관리(학예연구사·전문요원), 보존관리 전문가, 큐레이터, 기록물 활용 콘텐츠 전문가

※ 관내 유사시설 연면적 기준(2천㎡~5천㎡) 운영인력 5명~10명 인원 예상

- 향후 아카이브의 기능 확대와 국내외 위상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 시도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운영팀, 설비·음향 등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팀 별도 운영

2023년		2024년~2026년		2027년~2030년		2031년 이후	
기존조직 전문가 충원		캠프마켓과 아카이브 전담팀 신설		인천시립박물관 소속 전담팀 구성		공원시설부서 연계 전문조직 설립	
인력구성	인원	인력구성	인원	인력구성	인원	인력구성	인원
기록물수집 (학예연구사, 임기제 나급)	1	총괄책임자 팀장 (학예연구관 가급)	1	총괄책임자 팀장 (학예연구관 가급)	1	총괄책임자 팀장 (학예연구관 가급)	1
		기록물 수집 (학예연구사 나급)	1	기록물 수집 (학예연구사 나급)	1	기록물 수집 (전문요원/학예연구사 나급)	2
		기록물 수집 (정보시스템 전문가 나급)	1	기록물 수집 (정보시스템 전문가 나급)	1	기록물 수집 (정보시스템 전문가 나급)	1
기록물 관리 (학예연구사·전문요원 다급)	1	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다급)	1	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다급)	1	기록물 관리 (학예연구사·전문요원 다급)	2
						기록물 활용 (콘텐츠 서비스 기획전문가 다급)	1
합계	1	합계	3	합계	4	합계	7

[그림 51] 연도별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

<표 50> 관내 유사 시설 운영 인력 분석

연 번	구 분	박물관명	건물 연면적 (㎡)	전시실 면적 (㎡)	수장고 면적 (㎡)	소장 자료	근무 인원	학예인력		행정인력	
								학예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일반 직원
1	공립	강화역사박물관	4,233	1,125	255	9,654	5	4	-	-	1
2	공립	강화자연사박물관	2,712	1,134	200	9,732	5	4	-	-	1
3	공립	검단선사박물관	1,970	1,054	199	4,419	12	2	2	2	6
4	공립	부평역사박물관	3,109	944	135	4,702	8	3	-	-	5
5	공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045	882	87	4,695	7	-	3	1	3
6	공립	영종역사관	2,936	939	196	2,166	7	1	1	-	5
7	공립	인천광역시립박물관	5,830	1,495	345	15,865	33	11	8	7	8
8	공립	한국이민사박물관	4,190	1,224	141	13,833	14	3	2	2	7
9	사립	가천박물관	2,447	553	680	55,800	9	9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제2절 운영체계 구축

1. 전담 조직 운영 형태 검토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 선정기준

- 공공적 위상을 기본으로 하며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신뢰성을 가지고 대내외적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30년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이 개소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개관 이후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인력 공급 능력이 수반되어야 함.
-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이관 및 수집 활동, 공적인 차원에서 관계 기관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활발하게 끌어내는 관계적 능력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아카이브 기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함.
- 지역사회 차원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포용할 수 있으며 부지반환에 대한 염원, 공원 조성 기대 등 시민들의 요구를 추동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운영 주체는 설립 가능성, 아카이브의 성격 및 기능, 지역 내부의 역량, 정책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해야 함.

운영 주체에 따른 운영 방식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물의 운영방식 결정은 사업 및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도구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공공시설물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 목적, 설치시설물 특성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 및 방향성에 따라서 운영방식은 직접운영, 간접운영, 민간위탁운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운영방식은 민간주체의 참여 없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행정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관리의 책임자 및 운영 주체도 공무원으로 구성
 - 시설물을 행정 조직 체계로 흡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게 되며 공익을 목표로 주민 전체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선택
- 간접운영은 정부의 법적 권한과 소유 아래 있지만, 운영관리는 외부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과 최종적 관리책임을 가지면서,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연구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공익성뿐 아니라 일정부의 수익성을 포함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고려됨
- 민간위탁은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등 관련 부문 전문성을 가지는 민간조직에 시설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수행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기능을 민간에게 맡기는 형태이며, 민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적용하는 방식으로 책임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표 51〉 직접운영, 간접운영, 민간위탁운영 방식의 비교

기준	직접운영방식	간접운영방식(공공기관 위탁운영)	간접운영방식(민간위탁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차원의 서비스 공급의 지속적 지원 • 안정적인 예산 지원 및 업무 일관성 부여 • 공공기관 직접 참여로 인한 신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 공급의 창의성, 전문성 마련 • 기존의 조직 전문성 효율적 활용(비용절감) • 전문가 기능 및 역할의 탄력적 운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주도성과 자율성 적극적 활용 가능 • 인력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 시민사회 조직들과의 협력 관계 형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 근무로 인한 역량축적, 연계성 확보 문제 • 행정 중심의 업무 진행 서비스 효율성 부족 • 전문 인력의 책임성, 자율성, 활동성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운영방식 고수로 인한 확장성 한계 • 관리 주체의 관료화에 대한 우려 • 공적 협력 관계 유지의 어려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기관들과의 경쟁 관계 형성 •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한계 • 낮은 공적 위상에 따른 활동의 제약 발생
사례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한미협력팀(주한미군아카이브) 경기도 DMZ정책과(캠프그리브스)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부평역사박물관

캠프마켓 아카이브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운영방식 도출

- 공공서비스 전달의 관점으로 볼 때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경우는 공익성과 특수성의 영역에 위치하여 통합적 운영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에 있어 캠프마켓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특성보다는,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별하게 관련 있는 시민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띠
 - 이에 따라 캠프마켓 아카이브 운영체계는 대중적 확산을 위한 공익성을 가지면서도, 캠프마켓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복합문화공간을 거점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 주체 설정이 중요하며, 운영 방안으로는 1) 직접 운영(인천시 캠프마켓과, 인천시 산하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간접 운영(지방공사, 시설공단, 재단), 3) 민간 위탁 등 있음.
- 이에 따라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인천시 직접 운영, 공공기관 위탁, 재단법인 설립 운영, 완전 민간 위탁 운영 등 4가지 측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전담 조직 운영 대안 분석

인천시 직접 운영 방식

-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캠프마켓과 공무원 1인이 전담하는 형태를 확장하여 직접 관리하는 ‘행정부서형’과 관리형 직제상 본청 소속의 공무원이 당해 시설에 독립적 행정기관을 두어 관리하는 ‘사업소형’이 있음.
- 인천시 캠프마켓과 산하 아카이브 전담 조직(행정부서형) : 관리 책임자 및 운영 주체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조직의 안정성, 정책적 실행력, 공신력 및 위상 제고 등에서 유리함.
 - 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 인천시는 공원이 조성되는 2026년까지는 캠프마켓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음. 대신 지금과 같은 소통팀 내 공무원 1인(순환이동)의 형태가 아니라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아카이브 전담팀으로 조직을 확장할 필요는 있음.
- 인천시 산하 사업소 및 직속 기관 직접 운영(사업소형) : 기존에 존재하는 전문 기관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대신 캠프마켓 아카이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 인천시립박물관 분관 운영 : 지역사회 전반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는 시립박물관은 현재 4개의 분관¹¹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캠프마켓 아카이브 공간을 운영할 수 있음. 동국대 산학협력단(2020)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캠프마켓 내 건물 증개축을 통한 박물관 이전을 고려했으나 반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음¹¹⁹⁾. 이에 따라 캠프마켓이 가지고 있는 인천의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인천시립박물관 분관 차원에서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인천기록원 설립 이후 운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립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인천시 중요기록물을 통합 보존과 수집관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이에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천기록원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기록원 설립 대상지로 캠프마켓 내 부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반환 일정 등의 이유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됨¹²⁰⁾. 지방기록원 설치 의무화가 된 지 15년 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 시점이 불명확하여 캠프마켓 아카이브 운영기관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공공기관 위탁 방식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을 규정함.

118) 송암미술관, 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119)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20).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을 위한 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용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p.41

120) 아카이브웍스(2022). 인천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인천광역시.

- 기존 공공기관(인천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 등)에 운영관리와 관계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임.
 - 인천시설공단 : 2002년 설립되어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진행함. 문화시설 5개소¹²¹⁾와 공원시설 4개소¹²²⁾ 등을 중심으로 시설정비·시설대관·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 : 2014년 설립된 인천시 출연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과 인천시민의 자율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됨. 현재 인천문화예술아카이브, 인천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평화아카이브 라키비움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3개의 공간¹²³⁾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관광공사 : 2015년 설립되어 글로벌 관광허브 실현을 비전으로 송도컨벤시아, 하버파크 호텔 등을 운영하며 관광인프라 구축, 축제이벤트 활성화 사업을 진행함
- 조직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운영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독립적 운영보다는 기존 운영기관의 운영 방식이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시설공단이나 지방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때 초기의 업무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시설관리 차원에서는 유사한 업무 경험이 있으므로 단순 시설 운영이나 관리의 경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획 및 운영 등 기본적 업무 수행, 정책적 성과 도출 등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시설관리 차원에서는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관리·연구 등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차원에서 운영의 효율성은 높지 않을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정책적 목표보다 본래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목표나 행태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공간의 가치와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큼.

재단법인 설립 방식

- 인천시가 직접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캠프마켓 아카이브 공공서비스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검토할 수 있음.
 - 캠프마켓 아카이브 업무는 부지반환 이후 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기반으로 상징성을 지켜가는 기반이 되고, 공원 조성 이후에도 미래세대에게 장소적 특성을 계승하고 확산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아카이브 사업은 일시적 정책실행이 아닌 상시적 정책 영역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로 재단이 설립되면 조직의 경제적 효율성, 생태적 지속성, 사회적 형평성, 지속적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음

121) 인천청소년수련관, 하늘문화센터, 사회복지회관,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인천어린이과학관

122) 인천대공원, 송도공원, 청라공원, 씨사이드파크

123)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 캠프마켓 재단설립의 경우, 아카이브 사업실행과 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가 채용 및 독립적 예산처리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행정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시설관리 전담 조직(시설공단)과 아카이브 전담 조직(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는데 이원화된 조직 운영으로 인해 협력적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하지만 재단의 경우는 인력 및 조직편성, 예산운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조직 내 시설전담팀과 아카이브 전담팀을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가질 수 있어 사업실행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또한 전담 인력이 순환 근무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카이브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고, 인력양성 및 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유리함
 - 운영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인천시가 업무 진행 및 예산운영의 과정을 보고받고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독립적인 재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인천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및 다양한 집단과의 자유로운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함
- 반면, 재단설립 절차의 복잡성이나 재정부담의 가중은 인천시 출연 기관으로의 재단설립이 가지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초기 재단설립 절차의 복잡성이나 재단설립 후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 제정 등 초기업무가 복잡하여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 상황에 따라서는 인천시로부터의 자율성 확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완전 민간 위탁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음
 - 운영비 대부분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아야 하고, 낮은 비율의 지원을 받을 경우 공공성이 저해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성에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음
 - 기록물의 과학적인 보존 및 관리와 활용을 위한 운영비 대부분은 인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영의 지속성과 인력의 안정성이 제한적임
 - 아카이브가 자체 수익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기금 확보 및 운영비 등의 안정적 지원이 관건이 될 수 있음
 - 초기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내부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어 경험이 축적되며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재단 조직 구성원들 관료화될 우려가 있음

민간위탁 방식

-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개념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전달 영역에서 행정에서 가지지 못하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 민간업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은 효율성과 함께 민간조직의 혁신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
- 민간위탁은 적절한 수탁법인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미 캠프마켓 아카

이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을 부평문화원에 위탁하고 있음.

-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은 현재 부평문화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부평역사박물관이 많이 소장하고 있고, 관련된 학술 연구도 오랜 기간 이어져 와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부평구 지역사회 차원에서 누적된 경험과의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위탁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부평역사박물관은 특화된 전문성과 기술력을 전승할 수 있고,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를 통해 캠프마켓 아카이브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¹²⁴⁾
 -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도 민간의 전문역량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문화·전시·연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추진할 수 있음
- 하지만 인천시와 부평구의 정책 방향이 상이하거나 부평역사박물관과의 관계 설정이 모호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직영에 비해 위탁 운영은 공익성이 미흡하여 대외적 공신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위탁 기간의 한정성은 직원들의 신분 불안정을 일으키며 고용 승계를 위한 법적기준이 미비하여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큼.

3. 운영 방식 결정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 적정성 판단

-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 하지만 전문적 역할을 효율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민간자원 연계에도 어려움 있음.
- 간접운영방식 중 공공기관 위탁은 기존의 기반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운영 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절감 효과는 우수함. 하지만 공공기관 소속의 안정된 분위기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민간자원과의 협력적 관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직접관리와 간접관리의 중간 영역인 재단법인의 경우 조직 안정성 등에서 기대효과가 크지만, 초기 설립비용이나 절차의 복잡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인천시에서도 단기적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음.
- 간접운영방식인 민간 위탁의 경우는 검증된 민간주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평문화원 위탁 부평역사박물관이 있지만 인천시와 관계 정립상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124) 부평구청(2022)에서 수행한 「부평미군기지 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 캠프마켓 내 부평역사박물관 이전 이후 민간위탁 운영방식 추진근거 및 강점 언급한 내용 일부를 인용하였음. p120 · p182

〈표 52〉 캠프마켓 전담조직 운영 비교분석

구분	직접관리	간접관리		
	행정 직접운영	공공기관 위탁	재단법인 설립	민간위탁
조직안정성	○	△	△	×
비용효율성	×	○	△	×
민간자원 연계	△	×	△	○
실행가능성	○	○	△	×
종합	△	△	△	×

(○ : 우수 / △ : 보통 / X : 미흡)

※ 자료 : 지방행정연구원(2020)의 「안산공동체 복합시설 타당성 조사연구」 재구성

주요 역할에 따른 탄력적 전담 조직 운영 방식 선택

- 캠프마켓 아카이브 업무는 공익성이 높고, 203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 추진되며, 서비스 대상이 선택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황 및 여건에 따라서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2026년) 인천시 캠프마켓과 직영 :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함. 대신 행정직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캠프마켓과 내 아카이브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해야 함.
 - 인천시가 직접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공급에 집중하는 형태이며, 통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적절한 방식임. 하지만 담당자 역량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하여 공무원에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함
- (2027년~2030년) 인천시 산하기관 인천시립박물관 직영 : 아카이브 관련 전문적 지식과 수집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시립박물관에 기존의 아카이브 전담팀을 이관하여 산하 부서를 조직하여 업무를 수행 함.
 - 공원 조성 이전에 캠프마켓 아카이브 관련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보관하며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함. 특히 공원 조성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복합문화공간(박물관 분관)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2031년~2033년)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 혼용 : 역사적 사건기록화 중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수집·보존·전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원운영관리 및 시설정비는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체 공원은 시설공단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내 아카이브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문화공간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천시 산하 사업소 직접운영방식(인천시립박물관 분관)과 공공기관 위탁 간접 운영방식(인천시설공단)에서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원화 운영을 제안하고, 대신 캠프마켓의 장소적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간의 지속적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함
- (2034년 이후) 인천시 출연 캠프마켓 재단법인 설립 : 초기 설립비용과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방식이지만,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으로 혼용하며 운영 주체가 이원화(박물관과 시설공단)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2단계 운영상황에 따라 장기적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직접운영방식		간접운영방식		민간위탁방식
인천시 캠프마켓과 직영	인천시 산하 사업소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위탁	캠프마켓 재단법인	민간단체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가 직접 관여하여 서비스 공급 • 전담부서(TF팀) 형식 기반 마련 집중 • 전업무 통합적 관리 계획수립 단계 • 담당자 역량에 따른 성과차이 발생 • 소수인원이 다량의 업무 수행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성격, 업무량 고려 별도 역할부여 • 안정적,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용이 • 수요변화 및 자금 운용의 융통성 발휘 • 소속기관 업무성격에 따른 차이 발생 • 운영의 독립성 결여, 독점 체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업무 셋팅 간소화 • 인력 및 시설비용 절감 • 기존 운영노하우 확장 • 비용 절감 우선시 경향 • 특성화 운영 확장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채용 역할 부여 • 특화된 업무 유동적 대응 • 운영과 예산 투명성 확보 • 초기 설립절차의 어려움 • 설립 및 운영 재정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지식인 인력 활용 • 사회적 가치와 의미 전달 • 검증된 기관선정 어려움 • 재정 불안정 불안감 상승 • 운영관리비용 증가
2021~2026년	2027년~2030년	2031년~2033년	2034년 이후	

[그림 52] 캠프마켓 아카이브 단계별 운영체계 제안

제3절 법제도 검토

1. 아카이브 관련 조례 제정 사례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캠프마켓 아카이브 제도적 근거 마련

- 역사적 의미와 흔적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발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대부분 행정기록물과 민간기록물 함께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기록관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됨.
 - 아카이브 사업 및 기록관 운영 등 관련 조례는 지역별 이슈 및 특성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기록물 수집관리를 포함한 기록관 설치 운영,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도시역사문화 수집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중심은 괴산군, 남원시, 송파구, 미추홀구가 있으며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를 위해 조례를 별도로 만든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외 18건으로 파악됨
 - 도시역사문화를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성남시 외 7건 파악됨

〈표 53〉 아카이브 관련 조례 분석

구분	조례명	조성목적 및 기능	제정년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7건 조례)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 근·현대사 기록의 수집·보존 및 전시를 통한 기록관 운영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자치 활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록문화관 설치 운영	2022년
공공 및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를 포함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 보존·활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서울기록원 내 열람, 전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0년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증평의 현재와 과거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 보존하여 활용·유산 기록유산 전승 목적	2022년
	청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청주시 기록물 안전한 보존 및 활용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청주기록원 설치 및 운영	2021년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조례 (19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도 관련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고 수집관리하여 보존·관리·활용 목적	2016년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익산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	2022년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례 (8건 조례)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 목적	2019년
	연천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유산 집대성을 통한 역사문화 도시 정체성 확립	2021년
지역이슈 및 주제 기반 기록물 수집관리 조례 (3건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구축 대상, 범위, 추진방안 수립과 협조체계 구축방안 마련	2021년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기록물 영구보존 및 전시 5·18민주화기록관 관리 및 운영	2022년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주한미군 역사를 조사, 수집, 구축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공유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 활용목적	2022년

- 기존 조례들과 다르게 지역이슈 및 주제를 기반으로 기록물 수집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자료),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 평택시(주한미군 역사) 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록물 수집 및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주한미군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평택시의 사례는 본 연구와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를 주한미군 최초 주둔 이후 전 과정(용산기지이전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 있음
 -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유·무형의 결과물을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아카이브의 의미로 간주함
 - 주한미군 역사 조사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시민으로서 주한미군 역사에 대한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시민봉사자」로 규정함
 - 아카이브 지속적 조사 발굴,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자료의 공개 및 활용,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실물자료를 수집·구입할 수 있고 보관장소는 공립박물관으로 할 수 있음

〈표 54〉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2022.11.17. 시행]

구분	조성목적 및 기능	비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란 주한미군 최초 주둔 이후의 전 과정(용산기지이전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사업 포함)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시민봉사자”란 주한미군 역사 조사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시민으로서 주한미군 역사에 대한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전담인력)	시장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협조 5. 그 밖에 주한미군 역사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민봉사자)	① 시장은 조사대상 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시민을 시민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록물의 생산)	① 시장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록물 생산 시 자료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한다.	
제8조 (실물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 1. 자료기증서 발급 / 2. 박물관 무료 입장 / 3. 감사패 증정	
제8조의2 (자료의 구입)	①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 절차는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3.2.]	
제9조 (주한미군 역사의 보존 및 보관)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보관 장소는 시 공립박물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활용)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역사인식 함양 제고 3. 지역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를 둔다.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사점 및 대안 분석

2.1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활동의 행정적 결과물 수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증평군 및 세종시는 주민 주도 기록생산 및 활용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아카이브의 경향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아카이브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졌으며 대부분 유사한 조항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함.
- 미군 부대 반환이라는 특수적 상황, 5·18민주화운동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기록물 수집관리의 근거가 되는 평택과 광주 사례는 사건과 이슈 중심의 주제기록 특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 참고해야 함.

2.2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대안분석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연계한 일부 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는 기록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음.
- 주로 인천시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간행물, 도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정보와 행정박물을 기록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록관에 보존서고, 열람사무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따라서 현재까지 행정기록물 관리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시 기록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캠프마켓 관련 공공 및 민간기록물을 수집, 관리,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 있음.
 - 인천기록원 내 캠프마켓 전담 조직 운영을 고려하며 조례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앞서 분석된 결과처럼 기록원 설립 시점이 불명확함. 따라서 본 조례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일부 개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연계한 일부 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시립박물관은 박물관 유물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박물관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유물수집실무위원회에서는 구입·이관·기증·기탁 등 업무를 지원하고 제30조를 근거로는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를 두어 고증, 진위파악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제36조에 따라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유물은 안전 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 보관 하도록 되어 있음.
- 제39조를 근거로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록물의 적극적 활용에도 기여하고 있음.
- 인천시립박물관 외에 4개의 분관의 경우도 현재 제정된 조례가 적용됨.
- 따라서 캠프마켓 아카이브 업무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수행하고 캠프마켓 복합문화공간이 시립박물관 분관이 되면 기존 조례를 연계 활용할 수 있음.
- 기록물 수집·보관 관련 주요 업무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고, 기타 특수 업무의 경우 일부 개정을 통해 보완함.
- 하지만 캠프마켓 아카이브 업무가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인력, 시설,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임.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참조한 신규 제정

- 평택시는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공공기관 생산한 기록물과 평택 지역과 시민들의 일상적 기록물, 구술 등을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함.
- 이는 제5조를 근거로 조성된 기록관에서 수집·보존·활용 등 아카이브 관련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고, 열람·전시·교육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구축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음. 이는 기존 기록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역사에 대한 기록적 가치를 높게 인정하여 아카이브 조례를 따로 만든 것으로 판단됨¹²⁵⁾.
- 앞서 평택시 주한미군 아카이브 조례를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관련 내용을 근거로 「캠프마켓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새롭게 제정함.
- 전담인력 배치, 시민봉사가 참여, 기록물 수집 및 구입, 기록물 보존 및 보관, 콘텐츠 활용 등 사항을 중심으로 캠프마켓 아카이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
 - 아카이브 전담인력 배치 : 지속적 조사 발굴, 전자적 자료관리, 자료의 공개활용 등
 - 시민봉사가 위촉 : 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한 시민참여 유도
 - 실물자료 수집 :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자료 수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준
 - 자료 구입 :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개인, 기관, 단체 협조
 - 역사의 보존 및 보관 : 원본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시립박물관 임시보존
 - 활용 :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용, 지역공동체 역사 인식 제고 등

125) 2021년 평택시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수집 용역」을 통해, 공공과 민간영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 주둔 및 이전 기록물의 미래 유산적 가치를 분석함. p.86

3. 캠프마켓 아카이브 실행을 위한 법령 검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캠프마켓 기록관 설립 및 운영 관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공공기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¹²⁶⁾은 기록관 설치·운영해야 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는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을 둘러싼 행정 문서, 사진, 영상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볼 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민간차원에서 생산한 일상적 기록물, 구술채록 등을 수집하여 공유하는 것은 현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기록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캠프마켓 기록관이 역사적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상 기록관의 업무로는 불가하며 기록관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함.
 - 기록관 자체적으로 지역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
-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프마켓 기록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 위상 및 역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¹²⁷⁾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박물관자료를 활용한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였음.
-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을 글램(GLAM)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공간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함.
-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전개해야 함.
 -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126)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광역시도 공공기관

12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하지만 위의 사업을 캠프마켓 아카이브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한다고 볼 때 인력 채용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 학예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 학예사, 시설 규모 등에 따른 박물관 등록 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적합성, 자료 수집의 적정성, 자료의 학술·예술·교육·역사적 가치, 자료의 회소성 등을 인정받아야 등록이 됨.
-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관 등 제2종 박물관 등록 요건은 82㎡ 이상의 전시실이 있고, 학예사 1명 이상이 근무하며 60점 이상 전시자료와 수장고가 있어야 함. 또한 사무실·연구실·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 장치를 갖추어야 함.
- 따라서 향후 캠프마켓 복합문화공간을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장자료, 전문인력, 시설 규모 등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저작권법

온라인상 직접링크에 대한 저작권

-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¹²⁸⁾. 따라서 캠프마켓 온라인 페이지에 영리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복제권, 전송권, 편집저작물작성권¹²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영구적 고정, 조금의 변경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는 있음

저작물의 이용이나 활용

- 저작권법 제35조의 3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할 때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 목적으로 수업 교재 또는 수업 진행에 필요한 경우 특정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음.

128)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129)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청중,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음.
- 이러한 조건에 따라 수집된 기록자원의 활용 범위를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변환 관련

- 저작권법 제31조 2항에서는 도서관 및 자료관은 당해 기관에서 디지털 정보 자료의 관내 열람 및 자료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종이 기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
- 단, 해당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관이 관내 열람 목적이라고 해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음.

장기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관련 조항

- 2003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소장자료가 아날로그 형태인 경우 자체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할 수 있음.
- 단, 해당 자료가 CD-ROM, DVD 등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는 자체 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음.
- 절판 등 타 자료관/도서관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는 보존용으로 복제할 수 있음.
- 도서관 등은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의해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출판물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음.

소장자료의 열람 및 저작권 보호

-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 및 자료관 복제, 전송 등은 면책특권 규정함.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4. 캠프마켓 아카이브 내부 규정 마련

아카이브를 위한 운영 규정

- 캠프마켓 아카이브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수집, 발굴, 생산에 대한 사항
 - 부지반환 이후 공원과정에 따라 생산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

- 수집된 자료의 관리·보존 업무에 대한 사항
- 소장자료의 활용 업무 및 저작권 관리에 대한 사항 제시
- 수집·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표 55〉 캠프마켓 아카이브 운영규정(안)

구분	내용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록관리의 원칙)	
제2장 조직 및 업무분장	제5조(구성)	
	제6조(기록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3장 기록의 관리	제8조(기록의 생산)	
	제9조(기록의 등록 및 저장)	
	제10조(기록의 정리)	
	제11조(기록의 이관)	
	제12조(기록의 인수)	
	제13조(기록의 보존)	
	제14조(기록관리기준표)	
	제15조(핵심기록)	
	제16조(보존기간)	
	제1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18조(기록의 평가 및 폐기)	
	제19조(기록의 대출 및 열람)	
	제20조(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제21조(주요기록의 전자화 및 보존관리)	
	제22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23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4장 수집기록의 관리	제24조(수집기록의 정의와 범위)	
	제25조(수집기록의 수집)	
	제26조(수집기록의 정리와 보존)	
	제27조(수집기록의 열람)	
	제28조(수집기록의 평가 및 재평가)	
	제29조(기증자예우)	
	제30조(보존기록관 설치와 운영)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31조(보안관리)	
	제32조(점검)	

08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로드맵

제1절 단계별 추진계획

제2절 단위 사업 종합

제3절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제4절 자원 조달방안

제8장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로드맵

제1절 단계별 추진계획

1. 연도별 로드맵 제안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준비기-발전기-확대기’에 따른 성과 목표

- 준비기 :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으로, 먼저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물과 수집해야 하는 기록물을 파악하고, 향후 체계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리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발전기 :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하는 과정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여, 아카이브 성과를 확산하도록 함. 이를 통해 생산, 수집, 보관, 활용 작업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확대기 :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 거점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글램(GLAM)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함. 이를 통해 이용자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지향적 의미를 실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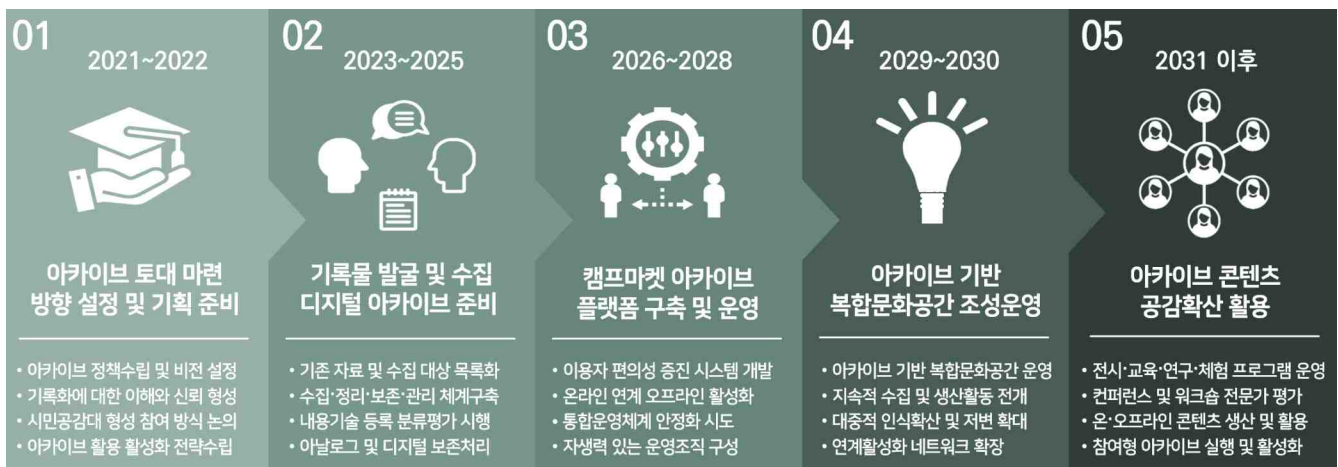
〈표 56〉 단계별 목표 설정

구분	목표	세부내용
준비기	캠프마켓 아카이브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현황 파악 및 기본자료 수집조사 •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수집된 기록물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활용 가능성 모색
발전기	캠프마켓 아카이브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된 아카이브를 대내외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전문가 및 시민참여를 통한 아카이브 활성화 시도 • 아카이브 자료의 생산, 수집, 보관, 활용의 선순환 구조 형성
확대기	캠프마켓 아카이브 중심 네트워크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키비움, 글램(GLAM) 등 역할을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 캠프마켓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인식 전환 • 이용자 범위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계승적 의미 실현

성공적인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5단계 10개년 로드맵 작성

- 1단계(2021~2022년) : 아카이브 토대 마련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단계이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본 용역이 이를 위한 과정임.
 - 아카이브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비전 설정 등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집·관리·활용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해와 신뢰 형성이 필요함
 - 주요 기능 및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하여 업무 수행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카이브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2단계(2023년~2025년) : 본격적인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준비하는 시기이며 확고한 인적·물적·법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야 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 분류체계를 설정하여 초기부터 자료 수집 및 분류작업 수행
- 기존 소장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 뿐만 아니라 행정자료, 해외 소장 기록물, 민간 자료 등 적극적으로 수집·분류하여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의 고유성 및 차별성을 마련해야 함
- 국내외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직접적 경험자를 대상으로 구술채록을 수행하여 역사적 공간에 대한 사실적 기록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수집된 기록물 목록화, 분류화 작업을 수행하고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단계(2026년~2028년) : 캠프마켓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단계이며, 온·오프라인 서비스체계를 완성하여 기록자원 활용성을 극대화함.
 - 디지털 변환된 기록물을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함
 - 아카이브 플랫폼의 통합 운영체계 안정화를 통해 아카이브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운영조직이 구성될 필요성이 있음
- 4단계(2029년~2030년) : 아카이브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이 되는 단계이며 캠프마켓 아카이브 허브 기능을 바탕으로 핵심적 인프라 역할을 수행함.
 -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지속적 수집 및 생산활동은 병행되어야 함
 - 지역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과 형성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제 캠프마켓만의 문제를 넘어서 전국 반환지역 연대 구축
- 5단계(2031년 이후) :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원이 조성된 이후의 단계이며 캠프마켓 아카이브 콘텐츠의 공감과 확산을 마련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전시, 교육, 체험, 연구 등을 작업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수집 및 생산활동이 전개되고 문화 콘텐츠화를 통한 대중적 인식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함
 - 전문가 그룹들과 캠프마켓 아카이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과거·현재·미래가 함께하는 참여형 실행을 도모하고자 함



[그림 53] 캠프마켓 아카이브 5단계 10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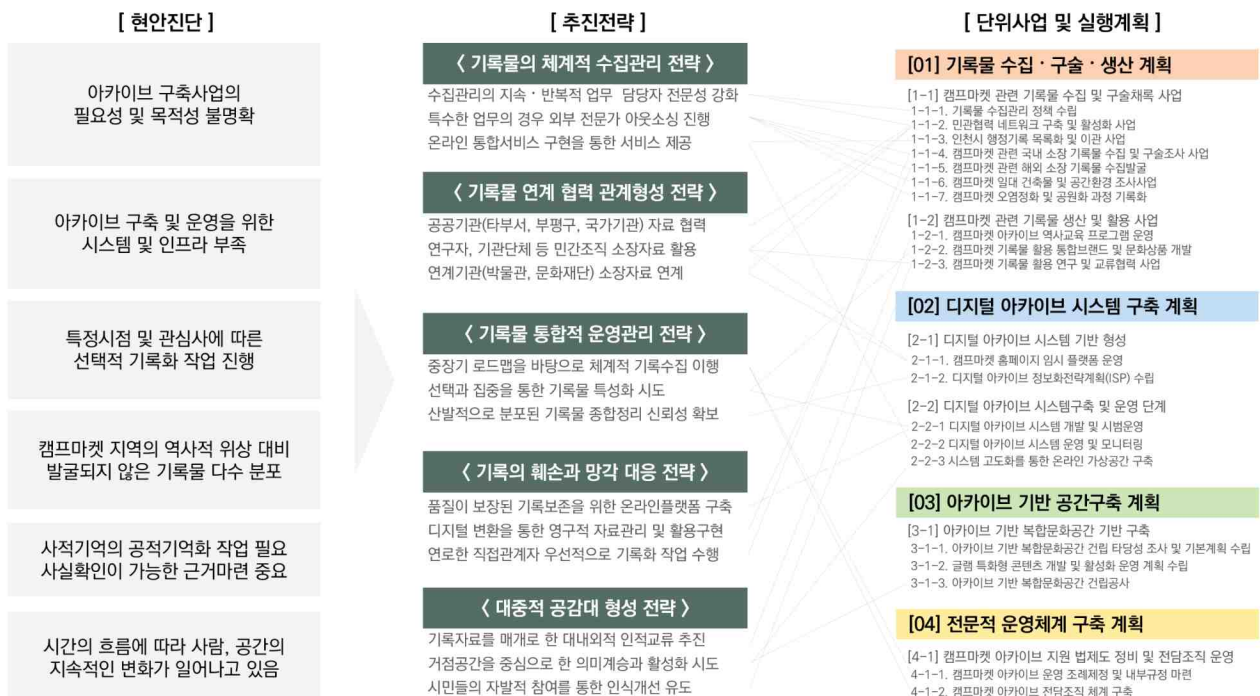
2. 단위 사업 도출

현안 진단

-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목적성이 불명확하였음. 이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계적 역할 마련이 중요해짐.
- 인천시 차원에서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업무를 전담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확정의 필요성 제기됨.
-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특성이 특정시점 및 관심사 등에 따른 선택적 기록화 경향이 있다는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역할 마련이 요구됨.
- 일제강점기-미군주둔기-부지반환기 등 지역의 역사적 위상에 비해 발굴되지 않은 기록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천 활동이 강조됨.
-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에서의 일상적 삶을 영유하던 이들의 사적 기억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적 기억으로 전환될 필요성 제기됨.
-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등장, 시대적 이슈 발생 등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

추진전략 및 단위 사업

- 3대 추진목표 및 5개 추진전략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대두된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 사업과 세부 실행계획을 도출하였음.
- 4개의 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20개의 세부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 내용, 실행방안,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례검토 등 내용을 상세하게 제안함.



[그림 54] 캠프마켓 아카이브 단위사업 도출

제2절 단위 사업 종합

4개 유형 20개 사업 145억원 예산지원이 필요함.

-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행정 직접 실행 사업(10개)와 전문가 위탁 사업(10개)으로 구분되며, 4개의 유형별로 20개의 단위 사업이 도출되었음.

〈표 57〉 단위 사업 종합

[illegible]

제3절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① 기록물 수집·구술·생산 계획

[1-1]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 채록 사업

[1-1-1] 기록물 수집관리 정책 및 업무매뉴얼 수립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기록물 수집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체계적 수집을 위해서는 수집 대상 범주, 우선순위 등 수집 전략을 비롯하여 전문적 수집 및 수집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이 작성될 필요가 있음.
- 기록물의 합리적 선별을 위한 판단이 가능하고, 수집 작업을 수행할 때 불필요하고 중복 작업을 방지하는 등, 매뉴얼은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 작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 주요 계획 내용

-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집관리 정책(안)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 「캠프마켓 아카이브 수집 정책문」을 제정하여 확정하도록 해야 함.
 - 수집 준비 사항 / 수집 대상 조사 / 수집실행 / 수집 결과 정리 등
- 이는 아카이브 전담자가 직접 관리를 하며 향후 진행 예정인 행정기록, 국내 자료, 해외 자료, 생활사 구술, 건축물 조사, 오염정화 및 공원화 과정 등 기록물 정리 작업을 수행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함.
- 그리고 수집을 진행하면서 우선순위 및 수집 방식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장 상황 및 수집 현황에 따라 매년 보완·수정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매년 수집 정책 및 업무매뉴얼을 검토하여 공지해야 함.
 - 2022년 :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수집 정책(안) 검토
 - 2023년~계속 : 수집 진행 과정에 따라 수정·보완 작업 시행
- 아카이브 전담자 행정사무 업무로 예산 불필요 (필요시 전문가 자문)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자료구축을 위한 아카이브 업무매뉴얼 수립¹³⁰⁾
 -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위원회 위촉(2021년 4월)
 -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 구입 사업 진행(2021년~2022년)
- (시사점) 평택시의 경우, 기본계획 이후 아카이브 구축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제도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130)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수집 용역」 이후 조례를 제정하여 주한미군의 역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유·무형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1-1-2]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연구자, 지역 전문가, 민간단체 등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 수집, 자료공유, 성과 확산 등의 활동이 필요함.
- 상호 간의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아카이브 자료의 가치와 의미, 유효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각 기관 및 개인의 활동과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각자 수집·발굴한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함.
- 다른 기관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관련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경우,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며 연계를 통해 기록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계획내용

-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록물 수집의 범주를 타 수집기관 기록, 협치 기록, 민간기록으로 확대해야 함.
- 연대 협력을 통한 수집 시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및 취합이 아니라 캠프마켓 아카이브 조직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축해야 함.
- 먼저 공공기관, 민간기관, 연계 기관 등 네트워크 대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원의 유형과 규모, 저작권 등의 권한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함.
- 수집관리 담당자들로 구성된 「유관기관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관의 성격에 맞는 약정(MOU)을 통해 공식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 수집기획(방법론, 매뉴얼 작성)부터 수집실행(협동화 작업)을 통한 공동의 성과물 도출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이 생산하고 소장한 기록물을 유기적 협력 전략을 통해서 공유하고 생산된 기록물을 유기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관계 설정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의 장 마련(분기별 1회)
 - 회의 참석비 : 10만원 × 10개 기관(개인) × 4회(분기별) × 10년 = 4,000만원
 - 교류 활동 공론장 : 500만원 × 10년 = 5,000만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서울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국내외 기록 전문기관 교류협력¹³¹⁾
 - 유관(부서) 공식적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 내 문화기관(박물관, 도서관, 연구원 등)
 - 공동연구, 지속적인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 협력대상 기관 지속적 발굴
- (시사점)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관리하고 있는 기관, 단체, 연구자들과 기록정보자원의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분석보존 및 연계 수집 방안을 마련함

131) 2022년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계획(V. 기록문화 확산 및 교류 협력)

[1-1-3] 캠프마켓 관련 행정기록 목록화 및 이관 사업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인천시청, 부평구청, 기타 공공기관 등 내부 행정문서 가운데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들이 존재할 수 있어 파기 혹은 유실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미군이나 국방부 측에서 부대 반환 이전과 이후 생산된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수립이 필요함.

○ 주요 계획내용

- 공공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행정기록물의 경우 전문가 채용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중요한 기록물에 우선하여 이관, 등록, 관리 절차를 수행하도록 함.
- 미군 부대 반환 이전 및 이후에 생산 · 입수된 기록자료를 실사로 확인하여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관과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함.
- 현재 캠프마켓과에서 작성한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기록물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훼손 및 멸실의 가능성이 있는 행정박물의 경우는 박물관 연계를 통한 별도의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부지 반환 추진경과, 미군 및 국방부 이관 기록, 건축물 부재, 시민참여위원회 활동, 시민참여 행사, 시정질문, 오염정화 과정, 토론회·설명회·공청회 등 자료 포함
- 특히 국방부 이관자료, 토양오염정화 기록, 공원 조성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등 진행형 자료는 아카이브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캠프마켓과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경우는 담당직원 및 전담 인력이 직접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고 인천시 내 타 부서, 부평구청, 유관 기관 등에서 소장하는 기록의 경우는 2023년부터 전담 조직 차원에서 작업을 시행해야 함.
- 아카이브 전담 인력의 상시업무로 규정하여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하도록 하고 훼손될 위험이 있는 고문서, 사진, 행정박물 등 자료 이관 및 디지털 변환 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함.
 - 행정기록 이관 사무관리비 : 1,000만원 × 5년 = 5,000만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광주시) 5·18광주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행정기록물
 - 광주광역시,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미국 국무부, CIA 등
 - 정부 기관에서 생산된 원천 기록물 등을 진상규명 관련하여 열람, 수집, 이관 진행
- (시사점) 아카이브를 통해 확보된 자료가 단순히 보존 및 관리에만 국한되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연구 등으로 가치 있게 활용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보존이 잘되고 있는 행정기록은 목록화를 통한 현황만 파악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으로 이관하거나 디지털 변환작업을 수행함.

[1-1-4] 캠프마켓 관련 국내 소장 기록물 수집 및 구술 조사 사업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과 주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 제고를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본 과업에서 제안한 「기록물 유형, 수집·관리 과정, 수집·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국내 소장하고 있는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야 함.
- 이 땅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사람들의 생활사 등에 관한 기록물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성·다양성·변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함.
- 과거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집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서사를 보여주는 맥락 중심의 기록도 다루어져야 함.

○ 주요 계획내용

- 캠프마켓 기록물 수집 정책 및 업무매뉴얼에서 제안하는 범위,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기록화 작업을 수행함.
- 시대 흐름에 따른 공간적 특성과 생활사 관련 기록물(문서, 도서, 사진, 카드, 도면, 시청각 자료, 박물, 구술 등) 소재 정보 파악 및 수집·정리 활동을 전개함.
 - 기존 목록화 자료를 통한 우선수집 대상 종류 및 소재 파악
 - 수집대상 단체/개인/기관 방문 및 면담, 현장실사를 통한 기록물 현황 상세 조사
 - 사전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리드 및 수집계획 수립
 - 기록물 가치 평가 및 수집 가능성 타진(소장처 접촉, 섭외, 협의)
 - 타겟팅 결과물을 통한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 변환 작업수행
 - 생활사 조사를 위한 구술 채록 및 녹취록 작성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3년~2024년 집중적 기록물 수집 시기에는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2025년 이후에는 부서 내 전담 인력이 인천시립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함.
- 2027년부터는 아카이브 조직 내 전문가 인력이 담당하여 수집작업을 수행함.
 - 기록물 수집 및 구술 채록 사업(전문가 용역비) : 1억 × 2년 = 2억원
 - 전담조직 기획 수집 사업비 : 5백만원 × 7년 = 3,500만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증평군) 증평기록 기획수집 및 증평군 개청운동 아카이빙 / 10개월(1억4천만원)
 - 기본계획 이후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기록화 작업의 첫 단계로 시작됨
 - 증평의 장소, 주제, 사건, 인물 관련 기록 수집, 5명 이상 구술 채록(영상촬영)
- (시사점) 수집 정책과 수집 전략을 바탕으로 기록의 중요도, 훼손 상태, 기증의사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함(수집의 성과지표 구체적 제시)

[1-1-5] 캠프마켓 관련 해외 소장 기록물 수집발굴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으로 이어지는 땅의 용도와 주체의 다양화로, 국내 자료만으로는 역사적 사건과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연구된 정보들은 파편화되어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파악은 경험자 구술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캠프마켓 기록물은 주제, 시기, 주제,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자료를 생산한 주체(미국, 일본 등)의 기록 전문기관이 소장하고 있음.
- 이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한국전쟁 이후 미군, 한국군 등에 대한 당시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해외 기관을 방문해야 누락된 기억을 찾아낼 수 있음.

○ 주요 계획내용

- 국내 타 기관과의 중복 수집을 피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해외 소장 기록물을 수집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검토 필요.
 -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소장 해외 기록물 현황분석 자료 활용
- 미국 국립문서관리청(NARA), 일본 국립공문서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대상 기관 선정.
- 역사적 맥락, 검색 키워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역사적으로 수집·활용·보존이 필요한 미수집 기록물을 우선 수집해야 함.
 - 시기/연도, 기록제목, 소장처별 식별번호, 형태, 분량, 검색 키워드, 링크 등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해제작업을 통해 세부 내용 및 역사적 의미 도출 필요
- 해외 소장 기록물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대만 등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3년 국내 소장 해외자료(76건) 가운데 재수집 필요자료 우선 검토 진행.
- 2024년~2030년 격년으로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한 직접 수집 작업 실행함.
 - 해외 기록물 수집 사업(전문가 용역비) : 1.5억 × 4년 = 6억원
 - *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해외 자료 수집 연계 모색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부산광역시) 피란수도 부산 해외 소장 기록물발굴 학술연구용역 / 18개월(1억원)
 - 해외 소장 문서, 사진 등을 수집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초자료 활용
 - 국내 기수집된 자료 현황 파악 이후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한 새로운 자료 조사발굴
- (시사점) 먼저 국내 소장 해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현지 방문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함.

[1-1-6] 캠프마켓 일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사사업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 내부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가치 평가를 통해 역사적 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이 요구됨.
- 1단계 반환(A, B) 이후 일부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분석 작업 수행함.
 - 주한미군이 생산한 958매 건축도면, 부대 자산카드 74점 정보를 통한 특성 분석¹³²⁾
- 토양오염정화 과정에서 역사적 건축물을 불가피하게 철거 및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 차원에서 건축물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요구됨.
 - 특히, 향후 반환이 예정된 D구역 건물에 대한 조사분석 작업이 선행될 필요성 제기

○ 주요 계획내용

- 2011년 문화재청이 수행한 조사¹³³⁾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 개괄적 파악 필요
- 캠프마켓 내 건축자산(점, 선, 면)의 구분을 통한 현황조사 방안 도출
 - 건축물, 구조물, 길, 녹지, 광장 등 공간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향 설정
 - 시설물의 기본현황, 연혁, 변천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 조사 분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건축자산 조사카드¹³⁴⁾를 활용하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평가 기준 적용
-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문헌조사, 건축물대장, 외관 현황, 가치요소 등을 통해 건축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특별한 관리의 대상이 될 건축물은 심층 조사를 수행하여 가치를 재확인하도록 함.
- 심층 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분명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연계 방안검토 (관련부서 협조 필요)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3년에 D구역을 중심으로 오염정화 작업 이전에 조사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존치 여부 및 안전진단 의견을 통해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024년에는 정밀조사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건축물, 토양오염정화로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에 대해서 심층 조사 및 디지털 조사 등을 시행함.
 - 캠프마켓 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사(전문가 용역비) : 1.5억 × 2년 = 3억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국토교통부) 용산기지 내 시설물 내부 등 현황 기본조사 / 6개월(3억5천만원)
 - 기본현황 조사(미군 제공자료 검토), 간이조사(약 300동), 간이 추가조사(약 150동)
 - 노후·훼손 등의 현황 파악, 문화재적 가치 판단, 추가 정밀조사 대상 선정
- (시사점) 먼저 기본조사를 수행하여 공원과의 조화, 역사적 가치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밀 조사 대상 및 방안을 제시함.

13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별책 : 캠프마켓 1단계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 2021, p. 14

133) 중앙문화재연구원, 주한미군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1

13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

[1-1-7] 캠프마켓 오염정화 및 공원화 과정 기록화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 토양오염정화 과정은 2~3년¹³⁵⁾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건축물 주변이 오염되었을 경우 불가피하게 철거 혹은 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함.
- 미군 부대의 잔재가 공원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오랜 기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작업임. 특히 시민들과 함께 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장소의 서사가 될 수 있음.
 - 오염된 땅이 정화되는 과정, 그로 인해 공간의 형태가 변화되는 모습은 향후 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재조명될 필요가 있어 진행 과정 기록이 필요함.

○ 주요 계획내용

- 캠프마켓 부지 내 토양오염정화로 공간이 변화되는 모습과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숲과 나무가 심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카메라를 이용하여 오염정화 및 공원 조성과정 영상기록 타임랩스 촬영(변화되는 과정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지점선정, 주요 예정 공정표를 참조)
-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이라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간의 시민참여 활동 성과물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하도록 함.
 - 지금까지 진행된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 시민 공론화 및 소통의 과정 등은 공원을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과정으로 기록될 수 있고, 설계 공모를 통한 전문가의 참여는 세계적으로 명소화된 공원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3년~2024년 D구역 반환 이후 토양오염정화 과정 영상기록(전문가 용역)
 - 4개 지점 이상 타임랩스 촬영(전문가 용역비) : 4,000만원 × 2년 = 8,000만원
- 2025년~2026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민참여 과정 기록(내부 수행)
- 2027년~2030년 미군부대가 공원이 되어가는 과정 영상기록(전문가 용역)
 - 4개 지점 이상 타임랩스 촬영 : 4,000만원 × 2년 = 8,000만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행복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 / 12개월(1억원)
 - 주요시설물 조성공사 현장에 대한 공정별 현장영상 기록, 주요건축물 전방위 촬영
 - 도시건설 과정에 참여한 정부기관, 설계자, 시공사, 자문위원 등 참여주체 인터뷰
- (시사점)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중대한 역사적 자산과 사료로 활용하고자 영상기록을 2012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하고 있음.

135) A구역 : 2019년 6월 ~ 2023년 6월 예정(2022년 10월 기준 공정을 85.8%) / B구역(주변포함) : 2020년 9월 ~ 2022년 12월(2022년 10월 기준 공정을 79.1%)

[1-2]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생산 및 활용 사업

[1-2-1] 캠프마켓 아카이브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 기록물을 시민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문화 교육 및 콘텐츠 창작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통해 기록물 수집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주둔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흔적을 직접 느끼고 공간의 변화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계획내용

-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캠프마켓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의미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캠프마켓의 과거·현재·미래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한 지식교육, 현장해설 및 체험 등
- 토양오염정화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공원 조성 이전까지 부대 내부 공간을 개방하여 버스 투어, 도보 투어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안내 프로그램 운영.
 - 캠프마켓 공간 및 시간 기록 워크숍 : 시민들의 시선으로 남겨진 공간에 관한 생각을 기록하여 미래세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함.
- 캠프마켓의 역사성, 상징성,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누적된 땅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구상 및 프로그램 운영
 - 「평화」라는 테마를 부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 전개
- 미래세대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생활 속 기록문화 학교 개설 운영함.
 -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계기 마련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토양오염정화가 완료되고 난 이후 2027년부터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캠프마켓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직접운영) : 2천만원 × 5년 = 1억원
 - 중앙정부(문체부, 문화재청 등)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 교육관련 국비지원 방안 모색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9개월(1억2천만원)
 - 장교숙소 5단지 역사문화 해설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보 투어 프로그램, 용산기지 내 주요 거점을 돌아보는 버스 투어 프로그램, 개방 부지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
- (시사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하고, 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함. 이는 현재 캠프마켓 B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시민 소통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전체 부지반환 이후 대상지 전체로 확장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1-2-2] 캠프마켓 기록물 활용 브랜드 및 문화상품 개발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 아카이브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제작하여 기록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민적 인지도를 확산하고자 함.
- 이는 상처와 아픔의 기억에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부여하는 기록자산의 재해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문화적 기록물에 창의성과 상징성을 더하여 감성적 문화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국내외 유사 문화상품의 사례 분석 및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디자인 개발, 시제품을 제작하여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함.
- 향후 조성될 복합문화공간 내 뮤지엄샵을 조성·운영하여 기록물을 기반으로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여 부분적 수익 창출을 모색할 수 있음.

○ 주요 계획내용

- 역사적 건축물, 옛 경관, 인물의 생활사 등의 기록을 문화적 콘텐츠와 접목하여 사진, 그림, 소설, 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시민참여형 공모방식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음.
 - 공모전 선정된 작품을 엽서, 책자,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
- 캠프마켓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여 가치와 의미를 담으면서 시민들에게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품 브랜드 및 굿즈 개발
 - 브랜드명, 심볼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처, 전용색상, 전용서체, 디자인모티프, 엠블럼
 - BI 응용요소 : 명함, 메모지, 간판, 현판, 패키지 디자인, 대외 홍보물 등
 - 문화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지역예술인 참여 과거의 공간, 시설, 이야기 등에 의미를 더하는 상품 개발
 - 청년예술인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역사교육 참여 이후 상품 개발 공모 사업 운영
 - 예술인 개발 특별전시 상품 기획전 개최, 출판물 및 전시 도록 제작 배포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캠프마켓 아카이브 브랜드 및 상품개발(전문가 용역비) : 1억원 × 1년 = 1억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284 선물의 집 상품 개발 및 판매
 -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한 포스터, 엽서, 카드북, 도록 등 판매(온라인 마켓 연계)
 - 서울역이라는 미래의 유산을 알리고, 그 가치를 재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나에게 온 보물, 뭇즈(박물관 상품)
 - 국립박물관이 소장 전시하는 유물을 모티브로 특화된 박물관 상품 개발 및 보급
 - 일상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여 박물관의 브랜드 가치 창출 시도
- (시사점)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양한 캠프마켓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3] 캠프마켓 기록물 활용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의 역사, 건축, 경관, 생태, 참여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및 공간건축 분야와 연계한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미군기지 반환 이후 역사성 기반 공간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협력적 기록물 수집, 혁신적 공간변화 등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도시 및 국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담론 생산이 가능함.

○ 주요 계획내용

-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미군주둔기 등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 및 발굴된 사료를 통한 전쟁사, 한국사 연구
 - 일제강점기 역사교육, 동아시아의 전쟁사, 부평의 도시형성 등
- 캠프마켓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사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내외부 공간적 특성, 공간을 둘러싼 생활사, 문화예술 활동 연구
 - 시기별 건축양식, 기지촌 등 지역사회 형성, 조병창·에스킵시티 공간문화 활동
- 부지반환 이후 공원 결정 과정, 설계 공모를 통한 공간 계획, 건축가·조경가 등 전문가의 사회참여, 시민참여 의견수렴 등 공원 조성을 둘러싼 이슈 연구
 - 오염정화 이후 생태복원, 미군기지 공원화 연구, 역사적 건물 존치에 대한 사회 갈등
- 국내외 관련 기구와 교류협력 관계를 추진하여 공동연수, 공동연구, 번역출간 등 대외 교류를 통한 연구 기능의 확장 시도
 -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 동원 포럼, 동아시아 전쟁사 국제 회의 등
- 미군부대 근무자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시도
 - 과거의 추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7년 아카이브 전담 조직구성 이후 관련 연구 및 교류협력 활동 전개
 - 캠프마켓 아카이브 관련 연구사업 : 5백만원 × 5년 = 2,500만원
 - 캠프마켓 아카이브 교류 협력 사업 : 5백만원 × 5년 = 2,500만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 기록유산의 효과적 보존과 보편적 접근 목적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국내 16개 기록유산 등재됨.
 -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등 협력을 통해 잠재적 기록물 발굴 지원 사업 추진함.
- (시사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미군 주둔의 가슴 아픈 역사는 동아시아 전쟁사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록물은 시대의 역사와 사회문화를 내포하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될 수 있음. 기록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함.

02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계획

[2-1]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기반 형성

[2-1-1] 캠프마켓 홈페이지 임시 플랫폼 운영¹³⁶⁾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그간 상업 도메인으로 임시 운영하던 캠프마켓 홈페이지를 2022년 7월 인천시 패밀리 사이트로 이관하여 공식적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새소식, 캠프마켓 소개, 개방공간, 시민생각 찾기, 소통박스, 자료실, 갤러리 등 구성
 - 특히 강화된 소통박스는 질문 응답 기능을 두어 상호 간의 의견 교류 가능
- 현재 이관된 홈페이지는 아카이브 자료를 게시하여 캠프마켓 관련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활용되는 양상을 모니터링한 이후 향후 조성될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 계획내용

- 본 연구를 통해서 수집된 문헌자료, 사진자료를 우선적으로 현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함.
 -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실 적극적 활용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 기록물 구입, 기증, 이관, 대관 등을 유도하거나 설명하는 페이지를 보완함.
-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캠프마켓의 공간변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시민 공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집, 확보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각자의 기억을 엮어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하도록 유도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현재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역할을 확장하도록 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이후 아카이브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함.
 - 2024년 기록물 수집관리 담당자(정보시스템 전문가) 채용을 통한 업무 진행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Yongsan Legacy) 홈페이지 내 역사, 사람, 음식, 음악 등 콘텐츠 작성¹³⁷⁾
 - 미군부대 이전에 따라 사라지게 될 사람들의 기억, 이야기, 흔적의 기록 목적 개설
 - 용산기지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보다는 개인적 경험 위주의 내용 자발적 게시
- (시사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캠프마켓 홈페이지 내 자유로운 의견 게시, 공개되지 않은 기록정보 열람 등의 기능이 보완되어야 함.

136) 인천광역시 운영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campmarket/index>

137) 용산레거시 홈페이지 : <https://yongsanlegacy.org>

[2-1-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략계획(ISP)¹³⁸⁾ 수립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현재 캠프마켓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부재하며, 이에 역사적 가치 기반 전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특히 해외에서 수집된 자료와 국내 아카이브가 소장한 자료 및 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허브 플랫폼의 구축이 요구됨.
- 이에 따라 관리·서비스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아카이브 업무 기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특화된 모델을 마련해야 함.

○ 주요 계획내용

- 소장하고 있거나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의 현황 파악을 통해 아카이브 관리·서비스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성 및 방향성을 도출함.
 - 국내외 유관기관(박물관, 기록원 등) 사례조사를 통한 아카이브 시스템 환경분석
 - 인천시 내부 시스템 관계성 분석, 소장 기록물 및 연계 기록물 현황 파악
- 기록물의 환경 및 특성 분석에 따른 아카이브 관리·서비스시스템 기능 설계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목표 및 방향, 비전 설계
 - 기존 시스템과의 관계(인천시 패밀리사이트) 정립 및 통합관리 방안 마련
 - 디지털 이관 및 장기보존 방안 마련과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기능요소 도출
-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
 - 시스템 운영전략 제시 및 대중적 인식확산 목적 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 데이터 이관 및 수집량, 데이터 사용량 등 중장기 사용량을 분석을 통한, H/W, DB, 네트워크 용량 선정 등을 위한 예산(안) 도출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5년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자격요건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등록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 사업비 : 1억 5천만원 (환경분석, 현황분석, 모델수립, 이행계획 수립 등)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전쟁기념관) 6·25전쟁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 6개월(1억3천만원)
 - 6·25전쟁에 특화된 전문정보의 제공을 위한 종합 아카이브 구축 목적
 - 전쟁사 및 현대사 시스템 설계를 통해 유관기관 연계·참여형 아카이브 모델 수립
- (시사점)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분산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범주, 특성, 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138) 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2-2]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및 운영

[2-2-1]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에 특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연계·참여형 모델의 형태로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도모할 수 있음.
- 캠프마켓 기록자원을 이용자에게 검색, 열람, 콘텐츠 등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 공간, 주제, 출처 등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어야 함.
- 디지털화된 파일들에 대한 입력·등록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문서, 사진, 간행물 등 스캔, 보정, 입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함.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성 등 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고도화 작업 및 유지보수를 위해 확장가능하고 상호운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함.

○ 주요 계획내용

- 기존에 운영되어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게시물 유지, 자료실 D/B 이관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과의 연속성을 마련해야 함.
- 이미 수집된 기록물들과 유관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서 통합된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설계가 필요함.
- 수집된 기록물 가운데 공개 가능 및 저작권 진단이 완료된 자료를 선별하여 우선으로 고품질 디지털 자료로 변환을 수행하고, 이후 아카이브 시스템에 탑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캠프마켓 관련된 정보 및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된 자료와 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할 방안 제시가 필요함.
- 각종 아카이브 관련된 활동에서 생산된 자료(홍보, 전시, 연구·교육, 기획 등)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5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26년 시스템 구축, 2027년 시범운영 진행
 - 최신의 기술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임
 - 사업비 : 3억 (DB이관 및 초기작업, 서비스시스템,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등)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이래 축적된 자료를 DB화하여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다가, 최근 독립된 아카이브 페이지 신설하여 서울학 연구 지식정보를 제공함
- (시사점) 박물관의 전반적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서울에 대한 학술적 이해와 일상적 정보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페이지를 독립적으로 구축함.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기록정보 제공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2-2]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집을 통해 대국민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수집된 기록물을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집·관리·보존·활용 등의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게 됨. 기록자원 보존의 단순한 디지털 자료 저장소가 아니라 캠프마켓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기반 시스템 역할도 수행해야 함.
-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웹사이트가 아니라 캠프마켓 관련 역사적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과정이 전달되는 소통창구가 되어야 함.
- 시민들을 위한 아카이브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화된 자료를 활용한 아카이브 특화형 콘텐츠를 기획하여 확장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함.

○ 주요 계획내용

-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통해 연구자, 교육자, 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대중적 서비스를 구현함.
- 이미 수집된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아카이브 기반 서비스 플랫폼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이후 인천육군조병창, 애스컴시티, 캠프마켓 등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함.
 - 강제동원 피해자, 미군 및 한국인 근무자, 인근지역 거주민 등 과거 및 현재의 기억을 가진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연계 참여형 아카이브 역할 수행
- 향후 사회적 요구 증대, 시스템의 노후화, 전산 기술의 발전 등의 상황변화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전문인력의 책임감 있는 모니터링 필요.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7년부터는 아카이브 전담 조직의 전문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며, 시스템 개발 업체 측에서 2029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관리 지원.
- 2030년 이후 유지보수 비용 일부 측정(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추가 비용 발생)
 - 시스템 유지관리비 : 5,000만원 × 2년 = 1억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¹³⁹⁾
 - 소장기록의 보존·관리 단위기능별 프로세스를 위한 엔진 정비
 - DB서버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데이터센터 통합 정보자원)¹⁴⁰⁾
- (시사점) 기술 발전, 수집 기록물 확장,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함.

139) 2022년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계획(Ⅲ. 디지털 기반 기록관리)

140) 용량 확장, 성능 향상, 설치 공간 축소 등으로 인해 데이터를 한 종류의 스토리지에서 다른 종류의 스토리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함.

[2-2-3]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가상공간 구축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카이브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역사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함.
-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시스템 내 구축된 역사정보, 사회현상, 생활사 등 내용을 재구성하여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콘텐츠 강화를 시도함.
- 디지털화된 기록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캠프마켓 공간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함.

○ 주요 계획내용

- 기존 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공간 데이터(훼손된 건축물에 대한 정밀 실측 조사 및 3D스캔)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남아있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공간건축 정보를 추가로 구축함.
 - 3D 정밀기록 데이터 취득 ⇒ 3D 스캔 데이터 후처리 ⇒ 포토그래메트리(Photogrammetry) 데이터 후처리¹⁴¹⁾
- 3D 모델링, VR콘텐츠 등 3차원 영상정보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캠프마켓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시스템과 연동하여 공간건축 메타버스 플랫폼¹⁴²⁾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장소 기반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창조적 기록문화 콘텐츠 강화를 시도하여 2030년부터 고도화 작업을 준비하도록 함.
- 2031년 공원을 개장할 시점에 온라인으로 사라진 장소의 원형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가상공간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전문가 참여 필수
 - 디지털 공간데이터 구축 사업비 : 2천만원 × 3년 = 6천만원
 - 가상공간 구축 및 콘텐츠 제작 : 2억원 × 1년 = 2억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서울특별시) 용산기지 내 시설물 디지털 공간 기록화 / 3억원
 - 용산미군 기지 내 역사문화적 의미있는 장소의 원형 보존을 위한 기록화 작업 수행
 - 공원 조성을 이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의 모습을 디지털 가상현실로 구현
- (시사점) 과거, 현재, 미래의 공간 모습을 온라인상에 실감형 콘텐츠로 제공하여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141) 서울특별시(2022)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산기지 내 시설물 디지털 공간 기록화」 사업의 공간데이터 취득 방법 일부 내용을 인용함

142) 당시 상황에서 수요조사 및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활용도 높은 가상공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선정이 필요함

03 아카이브 기반 공간구축 계획

[3-1]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 기반 구축

[3-1-1]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물 조성하는 기본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 우선해서 공간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이 선행돼야 함.
 - 입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조성계획, 운영방안 등을 담은 계획 수립
-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전검토를 목표로 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행정적 절차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 특수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시 학예사, 기록연구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계획내용

- 캠프마켓의 공간적 특성 및 개발 여건 분석을 통한 규모의 적정성 확인
-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 필요성 및 역할 설정
 -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 기능 및 역할, 도입시설 도출
- 건립 부지 입지 선정 및 환경적 특성 분석을 통한 활용가능한 건물 선정
- 건축계획, 전시 및 운영계획 및 소장품(유물) 확보방안 마련
 - 전시, 수장, 교육, 사무·연구, 공공편의, 관리시설 등 공간구상 및 프로그램 제시
- 비용 및 편익 추정,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시설물 수요 분석, 경제성 분석, 재무적 분석, 정책적 분석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D구역 토양오염정화가 완료되는 시점과 공원 마스터플랜 이후 진행된 설계 공모 계획(안)을 반영하여 복합문화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부지 내 활용할 수 있는 건물 및 환경적 여건 등 현실적 상황 고려 필요
- 건축물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위탁용역
 - 용역비 : 1.5억원 × 1년 = 1.5억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 9개월(1억1천만원)
 - 아카이브센터 설립방안, 조직 및 인력, 입지선정 및 공간구상, 중장기 계획 등
 -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관, 관리, 활용을 위한 방향성 및 기준 설정
- (시사점) 본 과업에서 제안한 아카이브센터(복합문화공간)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 부지 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위치, 규모, 형태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3-1-2] 글램(GLAM) 특화형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운영 계획수립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최근 이들 기관의 특성과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기능 및 역할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글램(GLAM)¹⁴³⁾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유사 기관 업무를 다차원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활용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및 역할을 글램(GLAM)의 형태로 규정하고 기관들을 같은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 이상으로 전문인력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캠프마켓 복합문화공간이라는 특별함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 주요 계획내용

- 먼저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캠프마켓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조사 및 인터뷰, 워크숍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함.
- 복합문화공간 현황진단, 여건 분석, 정책적 현황분석 등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글램(GLAM)의 형태로 특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캠프마켓의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한 역사·문화·예술적 가치 발굴을 통한 정체성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콘셉트 및 전략을 수립함.
- 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컨셉별, 기능별, 공간별, 이용 타겟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 가능 방안을 분석하고, 시설 활용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등 공공성과 수익성의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함.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27년 수립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내용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이 운영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028년 특화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분야별 전문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를 구축해야 함.
-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및 실행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위탁용역.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 1.5억원 × 1년 = 1.5억원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국토교통부)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 8개월(1억원)
 - 콘텐츠 운영방안(전시,아카이브,연구,교육 등), 콘텐츠 확보계획, 개관준비 프로그램
- (시사점) 도시건축박물관의 경우 건립 이전에 콘텐츠를 구체화하여 다양한 기능 및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음. 이에 따라 캠프마켓 복합공간도 글램(GLAM)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담아내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함.

143) 미술관(Galleries),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만든 단어

[3-1-3]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 건립공사¹⁴⁴⁾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은 학술연구·기록전시·역사교육·편의 시설·수장고·사무실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됨.
- 건축물의 형태는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며, 수장고 및 서고 등 특수한 목적 시설은 부분 증축이 필요할 수 있음.
- 이에 노후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캠프마켓 기본계획(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함.

○ 주요 계획내용

- 캠프마켓 내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주변 여건 및 적정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1530 외 8개를 도출하였음.
- 따라서 1530 외 8개 건축물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건물 조성하는 비용을 예측하고자 함.
 -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는 기존건물의 조건 및 주변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음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토지매입 및 건물 보상비 : 반환 이후 인천시 소유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음.
- 건축공사비(설계, 감리비 제외) : 리모델링 공사는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기존 사례를 참고로 하여 1530건물의 활용(예시)을 전제로 하면 약 86억¹⁴⁵⁾이라는 비용이 추정됨.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리모델링 사례
 - 24년간 사용하던 중학교 건물을 활용한 「모두의 학교」¹⁴⁶⁾ : 공사비(2,638,000원/㎡)
 - 서울북부법원 청사건물 용도 전환 「시민생활사 박물관」¹⁴⁷⁾ : 공사비(2,547,000원/㎡)
- (시사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사례가 되는 2개의 공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공사비 2,592,500원/㎡¹⁴⁸⁾이 예상됨. 이렇게 도출된 공사비를 캠프마켓 내 건축물에 적용하여 예상된 공사비로 추정하였음.
 - 이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만 추정한 것이므로 외부공간 사업비의 추가가 필요함

144) 건축공간연구원(2021). 용산공원 내 건물을 활용한 아카이브 기반 마련 연구. 국토부 장관. p208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145) $3,332\text{m}^2(1530 \text{ 연면적}) \times 2,592,500\text{원}(2\text{개 사례 } \text{m}^2\text{공사비 평균값}) = 8,638,210,000\text{원}$

146) 2017년 준공 / 연면적 2,483㎡(증축152㎡)n 지상3층 규모 / 공사비 : 5,661,118,000원

147) 2019년 준공 / 연면적 6,919㎡(증축597㎡) 지하1층, 지상5층 규모 / 공사비 : 16,015,618,000원

148) 현재의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04 전문적 운영 조직체계 구축 계획

[4-1] 캠프마켓 아카이브 지원 법제도 정비 및 전담 조직 운영

[4-1-1] 캠프마켓 아카이브 운영 조례제정 및 내부규정 마련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의 다양한 기억과 흔적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발굴하는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조직, 인력, 예산 등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 현재까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록 수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캠프마켓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주요 계획내용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관련 조례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캠프마켓 아카이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축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작성해야 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와 관련된 법적 정의, 전담 인력, 조사 분석, 조사 대상, 기록물의 생산·수집·보존에 대한 사항, 자료 구축 및 보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 포함
- 캠프마켓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력하여 아카이브 구축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안을 작성해야 하고, 시의회를 통해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조례 제정
 - (대안1)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연계한 일부 개정
 - (대안2)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연계한 일부 개정
 - (대안3)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참조한 신규 제정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조례 제정은 시의회 등의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해야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2023년부터 조례안 제안을 준비해야 함.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지역 이슈와 주제를 기반으로 기록물 수집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자료),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 평택시(주한미군 역사) 등이 있음.
- 특히 주한미군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평택시의 사례는 본 연구와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아카이브의 의미를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유·무형의 결과물을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하고 수집된 실물 자료는 「평택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립박물관 연계하도록 규정하였음
 - 아카이브 지속적 조사 발굴,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자료의 공개 및 활용,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현실적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된 대안 가운데 선택하도록 함.

[4-1-2] 캠프마켓 아카이브 전담조직 체계 구축

○ 현황진단 및 필요성

-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업무는 공익성이 높고, 203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대상이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직접 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2021~2026년) 인천시 캠프마켓과 직영 :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행정적 차원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함.
- (2027년~2030년) 인천시립박물관 내 전담팀 직영 운영 : 아카이브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수집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시립박물관 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2031년~2033년)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 혼용 : 공원 내부 시설은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문화공간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며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
- (2034년 이후) 인천시 출연 캠프마켓 재단법인 설립 : 초기 설립비용과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운영 주체 이원화(박물관과 시설공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주요 계획내용

-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을 거점으로 전담조직 업무를 수행하게 됨.
 - 2031년 기준 인원 7명 : 책임자, 기록물 수집(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학예연구사), 정보시스템 전문가, 기록물 관리(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학예연구사), 기록물 활용 콘텐츠 전문가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운영팀, 설비·음향 등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팀 별도 운영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2031년 공원 개장 이전에 조직이 구축된다는 것을 전제로 10년 동안 아카이브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3,136,491천원으로 추정됨.
 - 2023년 공무원 조직 내 학예연구사 1인 총원 : 51,928천원¹⁴⁹⁾ × 1년
 - 2024년~2026년 공무원 조직 학예연구관¹⁵⁰⁾ 외 2인¹⁵¹⁾ : 165,540천원 × 3년
 - 2027년~2030년 박물관 조직 학예연구관 외 3인¹⁵²⁾ : 210,777천원 × 4년
 - 2031년~ 학예연구관 외 6인¹⁵³⁾ : 353,179천원 × 1년

○ 사례검토 및 적용방안

- 지자체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유사 박물관 사례를 통한 적정성을 검토함.

149) 2022년 11월 9일 제9회 과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서 유물구입 및 관리, 소장자료 번역 및 수장고 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예연구사(나급)를 모집했으며, 이에 제시된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15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5급(가급)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61,684천원 기준으로 하였고, 시스템 전문가의 1인의 경우 학예연구사(나급) 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51) 학예연구사 1인(나급), 시스템 전문가 1인(나급)

152) 학예연구사 1인(나급), 시스템 전문가 1인(나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다급 연봉 하한액 45,237천원)

153) 학예연구사 1인(나급), 시스템 전문가 1인(나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나급), 학예연구사 1인(다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다급), 콘텐츠 서비스 전문가 1인(다급)

제4절 재원 조달방안

1. 국비 연계형 공모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문화 진흥 계획 수립
 - 폐(廢)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적 리모델링 지원 (2015~2019년 29개소)
 - 2020년 14개 사업 13,953백만원 지원(국비50%) ⇒ 1개소 당 10억
 - 기존 폐산업시설 중심에서 교육·교통행정 유휴시설로 대상을 확대 진행 중
-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공원, 복합문화공간, 창작 공간 등을 위한 공간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2014년 10월 캠프그리브스 반환부지 활용사업이 문화재생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6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행되면서 지금의 성과를 거둠.
 - 부대 내 방치되어 있던 탄약고, 켄셋막사, 볼링장 등 10개 시설 전시관으로 재조성
 - 미군 부대 반환 이후 공간의 장소성을 수립하고 다양한 건물들의 정체성을 수립 하여 역사문화공원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 수행
- 따라서 아카이브 기반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공간 문화재생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캠프그리브스의 문화재생 성과를 통해서 최근 반환되는 미군 부대의 문화적 활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됨.

문화체육관광부 실감형 콘텐츠 지원사업

- 2020년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예산은 974억원이고, 이는 가상·증강현실(VR·A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임.
-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거점지역을 실감형 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현재 예산을 지원받았고,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유원시설에도 조성을 준비하고 있음.
- 2030년 캠프마켓 온라인 가상공간 구축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국비지원 사업

- 국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배치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박물관과 문화시설 건립비용 일부 지원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공립 박물관에 대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건축비의 40%를 지원받아 박물관 건립에 사용할 수 있음.
 -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함

- 캠프마켓 아카이브 복합문화공간은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공간 조성 시 국비지원을 모색해 볼 수 있음.

2. 아카이브 관련 정책 연계 사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를 통한 보편적 집단기억 계승

-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보존, 관리 뿐만 아니라 그간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에 대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음.
- 이는 미래 지향적인 종합적인 기록관리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기록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시, 조사, 연구, 교육, 서비스 등 다차원적으로 이행 가능함.
-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통해 인천시 및 부평구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힘이 될 수 있음.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후속 조치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록물의 지속성과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 공동연구 수행

-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소장 한국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함.
 - 주제 :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자원, 통일, 문화, 예술 등 전 주제
 - 시대 : 한국사 전 시대 관련 자료
- 하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는 유사 기관이 중복해서 수집하거나 자료 검색 역량 부족으로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기도 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해외자료 수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도 인천시 차원에서의 별도 수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수집이 수행되면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인천시 기록원 설립 및 운영 예산 지원

- 2012년 「인천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인천시청에 기록관 조직을 두어 행정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기록원의 부재 및 기록물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활용하는 확장성을 가지지 못함.
- 이에 따라 2022년 인천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방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 캠프마켓 기록물은 일본군, 미군, 국방부, 인천시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발생한 민간기록이기도 함
- 따라서 인천시 기록원이 설립되면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적 차원과 민간기록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참고문헌

[학술논문]

- 곽건홍(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김도훈(2007). 부평 캠프마켓 미군반환부지 공원화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2021). 사회적 재난 이후 조성된 기억장소의 의미해석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훈(2014). 기억과 기록-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 김주관(2006).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447-483.
- 김홍규(2021). 국공립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반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 박인권(2012).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SAGE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4): 1-26.
- 박재민·성종상(2013). 문화경관 연구를 위한 장소기억 개념 고찰. 한국조경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69-71.
- 심지영(2020). 박물관의 가상현실(VR) 활용방식에 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43: 85-102.
- 원다솔·이민(2020). 아카이빙 개념을 융합한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 연구- 일상의 장소로서 지역을 기록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2): 167-180.
- 유소연·김지현(2022). 국내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05-237.
- 여진원·장우권(2013). 도시아카이브의 방향과 ‘파사주프로젝트’ 적용에 관한 연구 - 발터 벤야민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293-313.
- 이연경(2022). 1940년대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의 설치와 군수산업도시 부평의 탄생. 도시연구. 30: 164-208.
- 이상의(2016).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165-213.
- 이상의(2019). 구술로 보는 일제하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동방학지, 188 : 107-160.
- 이상의(2020).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윤군조병창, 국사편찬위원회·인천도시역사관 공동학술회의
- 이상의(2021). 강제동원과 저항의 상징 인천육군조병창, 인천역사통신 30, 인천문화재단
- 이장열(2020). 한국 대중음악 중심 장소로서 부평 연구. 기전문화연구. 41(2): 135-172.
- 장원호·구선아(2019). 서울의 일상적 장소기억을 기록한 독립출판물의 특징. 인문콘텐츠. 53: 171-196.
- 장대환·김익한(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 기록학연구. 89: 277-320.
- 최원태(2001).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23-40.

[단행본]

- 국가기록원(2011). 기록학개론. 대전: 국가기록원.
- 노명환(2017).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 문화기반 시설총람.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부평사편찬위원회(1997). 부평사. 인천: 부평문화원.

- _____ (2007). 부평사 제1~2권. 인천: 부평문화원.
- _____ (2021a). 부평사 제1권(부평의 환경과 역사). 인천: 부평문화원.
- _____ (2021b). 부평사 제3-1권(산업과 사회: 부평 도시가 되다). 인천: 부평문화원.
- _____ (2021c). 부평사 제4권(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시티). 인천: 부평문화원.
- 부평역사박물관(2019).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미군기지와 부평 사람들 이야기. 인천: 부평역사박물관.
- 이상의(2019). (구술사료선집 26)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21). 캠프마켓 1단계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보고서]

- 김정욱·안지선(2022).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운영 방안. 인천: 인천연구원.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20).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을 위한 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용역. 인천시립박물관.
- ☞한국자치경제연구원(2022). 부평미군기지 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아카이브웍스(2022). 인천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인천: 인천광역시청.
- 이상의(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구술자료집, 인천문화재단
- 인천광역시(2021).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 인천: 인천광역시.
- 최영화·이선정(2018).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인천: 인천연구원.
- 한국문화정보기술(2021).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수집 용역. 평택: 평택시청

[기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기호일보. 2022.9.23. “인천시. 시민공원 조성 사전절차 2026년까지 마무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913>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라키비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38960&cid=43667&categoryId=43667>
-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https://futureheritage.seoul.go.kr/web/definition/HeritageOutLine.do"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2.2.16.. “인천형 근현대문화유산 관리 ‘종합정비계획’ 만든다”.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4145311
- 인천투데이. 2021.3.4.. “한국환경공단. 캠프마켓 오염정화 중 협의없이 건물 부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20>.
- 뉴스투데이. 2021.4.15..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사업관련 기록물 공개 수집”.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415500199>

부록

1.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통합목록
2.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자 진행 기존 구술자료 분석
3. 캠프마켓 관련 활동조직 및 기관단체 목록
4. 시대변화에 따른 주요사건 및 이슈발생 목록
5. 국내소장 해외기록물 현황파악 및 해제
6. 미국 소장 미수집 기록물 해제(RG338/RG554)
7. 일본 소장 미수집 기록물 현황 파악
8. 기타(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자료)
9. 수집 매뉴얼 서식

연구진

(주) 조경하다 열음

| 연구책임 김도훈

| 연구진 윤호준

조민영

안근철

양은수

이병우

장하니

김윤

이기욱

김범진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인천광역시 캠프마켓과

등록번호 54-6280000-000583-01

仁川陸軍造兵廠
ASCOM CITY
CAMP MARKET
ARCHIVE

